



11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11호

(루계 제 769 호)

◇◇◇◇◇◇◇◇◇◇ 차 제 ◇◇◇◇◇◇◇◇◇◇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들길우에 날은 저무는데...	4
주체문학의 대강	5
특별공연	5
별처럼 새기신 자욱	6
꼭 들어주실거요!	7
고향의 과원이 기다립니다	7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의리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화폭	8
통고장이 부린 조화	11
병사의 경례	12
학두봉기슭에서	12
건설장의 벽시	13
오늘을 추억하리	14
인생과 래일	25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시대의 명작	26
심장은 사랑으로 뜨겁다	30
불씨가 되어 기발이 되어	41
돌고장의 사과덕이야기	41

우리 분조 처녀들에게	42
한마음 한뜻으로	43
조선속담	43
붓대여, 불멸의 자욱 걸음걸음 따르라	54
조선속담	56
내가 짠 천입니다	57
우리는 래일에 산다	57
무딜수 없는 정의의 필봉	58
필요한 사람	59
어머니에게	68
황금산처녀의 노래	69
각쟁이작가로부터 마음 후한 작가로	72
샘물에 비낀 시대적문제성	73
내 고향의 징검돌아	74
신진순과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	75
상식	76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남정가》에 대하여	77
조너선 스위프트와 풍자산문 《통이야기》	78
《만악관》	80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최 향 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
어버이수령님
수령님 다녀가신 우리 공장구내엔
수령님 오시여 하신 말씀 자자구구를
사적비에 새겨놓고
심장에 뜨거이 안고산다

어버이수령님
우리 공장에 오시여 보아주신
사랑하는 나의 기대엔
그날 기대앞에 남기신 수령님자옥처럼
또렷이 새겨져있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아주신 기대》

이 공장에서 나의 처녀시절이 흘렀고
이 기대와 함께 세월은 흘러
이제는 두 자식의 어머니가 되었건만
오늘도 그날처럼 나는
수령님앞에 섰던 선반공의 마음

어버이수령님 그리워
남먼저 일터에 들어서면
어버이수령님 나의 작업모습 보아주시던
그날의 그 모습으로
하루일을 축복해주실듯

아,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퇴근길에 들리는 식료상점
그이 보아주신 식료품명세에도
탁아소와 유치원아이들의 장난감에도
그이 만져보신 사랑의 체온이

이 가슴 후덕허주거니

수도에서 천리 먼곳 최전연고지에도
어버이수령님은 계시여라
병사들의 식당에 들리시여 국맛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고향이 어데인가고 다정히 물어주신
병사 나의 아들과 함께

그래서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길은
수령님을 못 잊는 우리 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하를
이 세상 끝까지 굽어치게 한
수령영생위업의 천만리장정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외진 산촌 방목장의 방목공이라
깊고깊은 막장의 이름없는 광부들이라
인민이 있는 그 어디에나
수령님의 자옥 새겨진 이 땅

아, 우리 수령님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
태양의 해발이 그 어디나 비치듯
수령님은 어디에나 그 언제나
한평생 찾으신 조국땅
한평생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대중을 의식화하는데서 연극예술이 노는 비상한 견인력과 효과성에 큰 기대를 걸고있었다.》

《나도 연극구경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날 만강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순박한 산골사람들이 그날 밤만은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혁명군의 사상과 정서는 <피바다>의 공연무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뇌수와 심장과 폐부에 만강천의 물처럼 풍만하게 흘러들었다.》

《실로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은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들길우에 날은 저무는데...

김 석 주

들길우에 날은 저무는데
멀리 마을을 바라보시며
무거운 마음을 안으신채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다

현지도의 먼길을 지나시던 길에
잊지 않고 찾으신 그 농민이
얼마전 우리곁을 떠났다고 올리는 말씀에
아버이수령님께선 달리던 승용차를 멈추시고
들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무거운 슬픔을 참으시는듯
웁기고 또 웁기시는 발자국소리
사위는 숨을 죽이고
어둠은 조심히 내리고...

충실한 당원의 한생을 더듬으시며
쌍이고쌍이는 못 잊을 추억
떠나간 농민의 성실한 삶을 아끼시여
혼자말씀이신듯

—좋은 동무였는데 그렇게 갔구만...

토지개혁의 그해 가을 어느날부터던가
생의 걸음걸음 이끌어 빛내여주시며
베를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도
못 잊으시여 걷고 또 걸으시는 그날의 들길—

농사일을 의논해주시며
함께 걸으시던 들길에 언덕에
과일은 가지에 무겁고
나락은 들판에 설레여
저녁은 이렇게 좋은데 그가 가고 없는가

그날처럼 노을은 저렇게 붉은데
웃으며 달려오던 그 모습은 다시 없으니
류달리 큰 손으로 땅을 다루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떠날줄 모르던
이 풍요한 별을 영원히 떠나갔는가

가실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못 잊으시여 떠나실줄 모르시고
다시 또다시 당원의 한생을 아끼시여라
—훌륭한 당원이었소...

오래도록 바라보시는 말없는 산천—
산에 들에 설레는 가을과 흐르는 향기는
이 땅에 남긴 그의 숨결과 마음이런가!
저 먼 들 한끝에서
일어서며 달려오는 황금의 가을...

아, 살아 당원의 생을 빛내여주시고
떠난 후에도 그 한생을 빛내여주시며
평범한 삶에 영광을 주시는 사랑이여
그 사랑속에 당원의 삶에 끝이 있으랴

우리 당이 떠나온 그날의 그 기슭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들어 싸우다
깨끗한 삶을 바치고 떠난 당원의 삶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나거니

수령님의 위대하고 크나큰 가슴에
못 잊을 추억으로 남아있는 당원의 한생은
영광과 행복속에 계속되여라
태양의 품에 영생의 꽃으로 살아

(1975)

주 체 문 학 의 대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문학발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려면 문학부문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특 별 공 연

백 하

씨비리대지가 설레인다
바이칼호수가 파도를 일으킨다
울란—우데의 무대에 올려퍼지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광활한 로씨야의 초원우에
힘차게 올려퍼지는 노래
정다운 우리 말로 부르는
로씨야내무군협주단의 우렁찬 합창
넓고넓은 씨비리대지를 들어흔든다

모스크바에서 울란—우데는
머나먼 수만리
경애하는 장군님을
얼마나 극진히 맞이했으면
중앙의 예술단들 명배우들 여기에 와서
특별공연을 펼치었으랴

올려퍼진다 힘차게 힘차게
온 세상이 흠모에 넘쳐 부르는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세계가 우리르는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환희와 걱정을 담아
뜨거이뜨거이 목메여 부른다

온 장내가 온 합창단이
장군님을 뜨거이 우러러
이름 못할 가슴속 격동을 담아
모두 후더운 눈물이 글썽
진정에 넘쳐 노래부른다

가슴뜨거워라
우리 장군님을 얼마나 경모하였으면
끝없는 씨비리대륙이 온 심장을 터쳐
희세의 선군령장을 목청다해 칭송하랴

오, 조로친선이여
영원불멸할 조로친선을 위해
중앙의 예술단들과 명배우들이
울란—우데에 다 모였나니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러
온 모스크바가 여기에 다 옮겨왔어라

별처럼 새기신 자옥

리 명 근

2만여리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이 가슴에 새겨지는 길
지난 8월 우리 장군님 걸으신
빛나는 외국방문의 길이어

자옥자옥 천만의 마음이 따라서며
온 나라가 잠 못들고
어버이소식을 기다리며
더듬어 누구나 가슴에 안고산
불멸의 그 자옥이어

그 자옥 찍으시는 곳마다에서
그이 가슴에 안으신것은
파연 무엇이였으랴
세계를 향해가는 조국의 발걸음
더 좋아질 인민생활...

차창너머 비껴드는 밀림의 푸른빛
차창너머 스며드는 초원의 풀냄새
그속에서도 우리 장군님
정답게 그려보시였으리
대동강청춘파원의 사과향기며
산촌에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떼...

추억깊은 곳을 찾으셔도
공장의 동음속을 걸으셔도
그이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닿아있었으리
인민과 함께 계셨으리

두줄기 궤도가
끝없이 이어진 길에
조국을 안고
인민을 안고
불멸의 자옥을 남기신 우리 장군님

대동력기지를 돌아보실 때도
그이 눈앞에 어려왔을 희천의 새 언제
고기배 오가는 호수를 굽어보실 때도
조국의 철갑상어떼를 그리셨으리

가시는 곳마다에 울리는

칭송과 축원의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금시 어려왔을 군인가족들의 진정어린
소박한 노래소리며
혁명군가의 장엄한 메아리

두고온 인민들의 생활을 생각하시며
그리도 주의깊이 보아주신
갓가지 그릇들이며 식료품들
포도주공장의 저장고며
우유산업공사의 탱크며 포장까지도...

조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그 자옥자옥을
빛나는 별처럼 아로새기신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거룩한 그 자옥에 받들려
비둘기떼는 더 높이 창공을 날고
친선의 무지개는 지경을 넘어
더 아름답게 펼쳐졌어라

선군령도의 그 발걸음을
광활한 대지와 대지에 이어놓으시며
자주와 진보를 위하여
인류앞에 불멸의 공헌을 쌓으신
그 위업 영원하리니

오, 찬란히 빛나라
조국청사에 길이 남아
인류력사의 또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눈부신 천만별이 되어 빛나라
2만여리 장정에 뚜렷이 새기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그 자옥이어!



꼭 들어주실 거요!

박 상 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소식
탄전에 전해진 저녁
온 중대가 막장에 달려왔네

아직은 교대전
밤교대친구들도 교대마친 친구들도
누가 부르지 않았건만
모두들 막장으로 달려왔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장맛 알기엔 아직도 먼
올봄에 갓 조직된 제대군인굴진소대의 작업모습에
온 중대 넋을 잃었네

무거운 착암기도
자동보총처럼 다루며
호박에 동침놓듯
련속천공 들이대는 굴진공들

막장에 메아리치는 그들의 목소리

—동무들!
여기서 로씨야는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터치는 련속발파소리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꼭 들어주실거요!

아, 저 마음이였구나
군복은 벗었어도
장군님병사로 사는
제대군인탄부들의 뜨거운 마음

더 큰 탄발을 마련하여
외국방문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릴 마음에
온 중대가 화답하여 터쳤네
—장군님께서 꼭 들어주실거요

고향의 과원이 기다립니다

리 진 목

고향의 과원이 기다립니다
5월에 오셨던 못 잊을 봄날처럼
장군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로씨야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들어서서는 그길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청춘과원에 오셨던 그날에
기쁘시여 오래도록 바라보셨던
과원의 절경 펼친 사과꽃바다가
이제는 알알이 탐스럽게 무르익은
그리움의 열매바다 되었습니다

빨갭게 익은 사과 잘 익은 사과
인류의 자주화위업 위해
불멸의 업적 쌓으시고 돌아오시는
그이께 선참 드리고싶은 과원의 마음이
알알이 맺어 무르익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우리 장군님 장장 수만리길에 쌓으신 피로
선경의 과원에 오시여 순간에 푸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 불타오릅니다

조국에 계실 때에도 그리워
수만리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면 더욱 그리워
그 그리움의 열풍 불어불어 서로서로 약속한듯
낮이라 밤이라 과원을 떠나지 않고
알뜰살뜰 정성다해 가꾸어온 우리들이거니

내 고향 과원이 기다립니다
그리움이 아침노을로 피어오르고
그리움이 은하수로 솟아흐르는 청춘과원에
아버이장군님을 다시 모실
행복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의리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화폭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4) 《고귀한 의리》에 대하여 —

김 용 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 이것은 우리 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그 어떤 색다른 바람도 스배어들수 없고 그 어떤 물리적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하고 사나운 광풍속에서도 끄떡없는 일심단결의 무기로 화디엔(화전)의 언덕에서 닳을 올린 조선혁명은 장구한 기간 승리의 한길만을 빛나게 걸어왔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으며 그 공고성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 해답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4) 《고귀한 의리》에 오른 주옥같은 단편소설들이 말하여준다.

위인의 고귀한 의리는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낳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이 혈연적인 관계로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기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놓여있으며 그 위력과 공고성의 근본요인도 전사들과 인민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적의리에 있다.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에 올라있는 모든 소설들은 형상전반에 걸쳐 이 문제에 심원한 해답을 주고있다. 문제제기도 의리에 관한 문제이며 해명도 고귀한 의리의 위대한 생활력에 관한 열렬한 송가이다.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사랑,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의리의 세계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그 어느 령도자도 지녀본적이 없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며 가장 신성하고 가장 숭엄한 도덕의리의 최고절정을 이룬다.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의리는 육체적생명만 아

니라 그보다는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시는 혁명적의리의 최상최대의 발현이였다. 바로 이런 의리이기에 우리는 수령님의 의리를 숭고하고 고귀한 혁명적의리라고 높이 칭송하는것이다.

단편소설 《고귀한 의리》(김수범 작)가 이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아들과 딸, 며느리를 바치고 홀로 남은 장길녀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여기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신다.

해방후 어머니의 생일날에는 자식들을 대신하여 생일상도 친히 차려주셨다. 어머니자신도 생일을 몰랐고 생일이란 10살전에만 죄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투사들이 다 모인 저택에서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친히 생일축배술을 부어주신다.

나라의 정사를 다 맡아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집을 찾으시여 줄당콩줄도 바로 매여주시고 어머니의 병세를 걱정하시여 딸처럼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간호원도 보내주신다. 실로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크고 숭엄한 화폭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그것은 전국어머니대회를 친히 발기하시고 주석단 자신의 곁에 어머니를 앉히신 후 자식들을 영웅으로 키워 혁명에 바치고 자신 또한 혁명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는 그를 영웅으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의리는 참으로 뜨겁고 열렬하며 숭고하고 숭엄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다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저 하늘처럼 넓고 저 바다처럼 깊은것이였다.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락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슬하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다 귀중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온 나라 인민모두와의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전의 피어린 언덕을

함께 넘어온 항일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의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였고 평범한 병사,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그리고 남녘의 동포들과 세계 평화애호인사들과의 의리도 중시하시였다.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의리의 세계를 다면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여기에는 항일투사들에게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 [단편소설 《삶의 보금자리》 (조상호 작), 《신록이 질어가는 계절》 (조창근 작)] 도 있고 평범한 농민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이야기 [단편소설 《첫걸음을 떼던 때》 (공천영 작), 《보통날 아침》 (진재환 작)] 도 있으며 전선영웅들을 집에 찾아온 친자식들처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뜨거운 정을 쏟아부어주시는 참다운 의리의 숭고한 세계 [단편소설 《제비들이 나래떨 때》 (강현만 작)] 도 있다. 또한 한번 믿음을 주신 지식인들을 그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상처라도 생길세라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고귀한 의리의 세계 [단편소설 《따뜻한 눈》 (최영학 작), 《진리의 탐구》 (리화 작), 《포화속의 전당》 (리정수 작), 《만년대계》 (현승남 작), 《소쩍새 우는 밤》 (김준학 작)] 도 있다.

언제나 남녘땅 인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제일로 가슴아파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의리의 세계 [단편소설 《떼가 흐른다》 (박두일 작)] 도 있으며 진실로 조선에서의 평화를 바라는 외국의 벗들과도 의리를 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의 영상 [단편소설 《평화의 조건》 (김대성 작)] 도 숭엄하게 안겨온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의리는 한정과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의리의 세계였으며 이 세상 천만군민에게 바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의리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강위력한 일심단결을 낳았다.

풍만한 생활이 수령의 위인상을 부각시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4) 《고귀한 의리》에 오른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수령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풍만한 생활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놓은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은 자기의 고유한 생리로부터 풍만

한 생활로 차고넘쳐야 하며 사상의 위대성도 생활속에서, 령도의 위대성도 생활속에서, 품모의 위대성도 생활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 뇌수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정중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틀을 만들어 격식화할수 있으며 봉 띄워놓고 추상화하여 형상할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릴 때만이 극복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에 오른 소설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풍만한 생활로 펼쳐놓은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도 그 어떤 력사적인 회의나 모임에서 연설로 선언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풍만하고 진실한 생활로 보여준다.

단편소설 《진리의 탐구》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작품에는 과학자 아닌 과학자, 속이 텅빈 사변철학가들이 주장하는 《환경지배설》을 머리속이고 따를것인가, 아니면 주체적립장을 견지할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상의 문제가 아니였다. 사상과 사상간의 치열한 대결이였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심각한 문제해결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만이 계몽심박사를 지지해주시였다. 그것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 나오시여 그를 격식이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따듯이 고무해주신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화폭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상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슴뜨겁게 받아안는다.

단편소설집은 탁월한 군사전략가, 령도예술가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도 풍만한 생활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타격》(박윤 작)도 강의한 의지와 담대한 배짱으로 정전담판을 승리로 이끄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궁지높이 형상한 작품이다. 소재는 매우 크고 방대하다. 그러나 소설가는 중량이 무겁고 체적이 방대한 소재에 포로되어 격식을 차려 장엄하게 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적으로 그려 우리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배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켰다.

최고사령부 앞마당에서 배구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것이다. 정전담판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느냐, 아니면 결속하지 못하느냐 하는 엄숙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배구경기를

조직하시고 통신병처녀립의 비공개지도원(당시)이 되기도 하신다. 응원소리, 웃음소리, 열기편 선수들의 고함소리, 이 모든 생활의 통쾌한 음향이 최고사령부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통쾌하게 그려진 생활속에서 우리는 수령님의 의지와 배짱을 강렬하게 느낀다.

단편소설집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도 생활속에서 감명깊게 그리고 있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거의 모든 작품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에 오른 단편소설들은 내용뿐 아니라 예술적형식탐구에서도 생활반영의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적품모를 소재로 잡고 사상에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 있다.

수령의 위인적품모는 거창한 정치적사변이나 행사를 판가리하는 첨예한 군사작전을 능숙하게 처리하는데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위주로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생활을 깊이 파면 그 의의는 비상이 높아진다. 수령의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도 깊이 음미해보면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심오한 철학적의미가 깃들어 있다. 더우기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정사를 룬하시고 정책을 세워나가기였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이 하나하나의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을 소재로 잡고 거기에서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밝혀내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였다.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에 오른 모든 소설들은 평범한 인민들과 맺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의리적관계를 기본으로 취급하고 있다.

피어린 항일의 격전장에서 귀틀집을 지어 결혼식을 차려주시는 이야기도 감동적이며 준엄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나날 서울시민들의 떨감이 걱정되시어 인민군부대를 설악산의 나무썩기에 동원시키신 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격동적이다. 전쟁의 폐허우에서 모든것이 어려웠던 전후 맨처음 학교부터 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도 가슴뜨거우며 10년이 걸려야 건설할 수 있다던 옥류교를 2년도 못 걸려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령도도 가슴을 치는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인간관계도 특색있게 맺어주고 있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단편소설은 거의 모두가 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간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고귀한 의리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권내에서 우리 수령님과 인간관계를 맺고있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전사, 소박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다. 강철룡, 강준혁, 장길녀, 오태희, 박영섭, 안필만, 영실, 최림, 계웅심, 임성재 등 이들 모두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한없이 겸허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품모가 생활적으로 풍만하게 펼쳐진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소설들은 뜻깊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친아버이사랑으로 고귀한 의리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옥자옥은 모두가 다 보석처럼 귀중한 뜻깊은 생활세부들이다.

단편소설 《첫걸음을 떼던 때》에는 수령님께서 안필만의 신발끈을 풀어주시는 세부, 매세 6마리를 사주시는 인상깊은 세부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계군(당시)의 깊은 산골마을에 찾아 오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한달음에 달려온 안필만이 세포위원장네 토방에서 신발끈을 풀고 있다. 그러나 다급한 마음과 언손이 말을 듣지 않아 헤덤비기만 한다. 이때 수령님께서 나오시어 그의 신발끈을 친히 풀어주신다. 이 하나의 세부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애, 고귀한 의리의 세계를 다 말하여 준다.

단편소설 《신록이 질어가는 계절》의 끝단지 세부도 감동적이다.

전화의 나날 언제나 수령님의 건강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청오펀 막바지의 로인이 10kg이 넘는 꼴을 아버지수령님께 드리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꼴을 큰 단지와 작은 단지에 나누어넣으신 후 큰 단지는 학원원아들에게 주시고 작은 단지는 전사하시였다가 늘 배앓이로 고생하는 최현에게 주신다. 최현은 그 꼴을 풀어 공격전에 나선 병사들에게 한고뿌씩 나누어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이 담긴 꼴물을 마시고 병사들은 30분만에 벼락같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모금의 꼴물이 병사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세부들은 수없이 많다. 《삶의 보금자리》의 귀틀집세부, 《떼가 흐른다》의 안경세부, 《신록이 질어가는 계절》의 호박물주리세부, 《고귀한 의리》의 생일축배잔세부 등 뜻깊고 인

통 고 장 이 부 름 조 화

항일무장투쟁시기 간악한 일제놈들은 조선인 민혁명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일제가 백두산호랑이로 명성을 떨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하고도 뛰어난 지략과 전법에 의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무리죽음을 당하며 통쾌하게 녹아났기때문이다.

그중에는 《백두산에서 도를 닦으신 김일성장군님은 통고장 몇장으로 수많은 적들의 허리띠를 늦추고 맥을 다 뽑아버리신다.》라는 전설을 낳은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주체27(1938)년 봄, 춘기공세로 넘어간 조선인 민혁명군부대가 도처에서 적들을 족쳐대고있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류다오거우(6도구)의 적을 습격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놈들에게 언제 습격한다는 통고장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백두산청년장군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신묘한 전법을 또 펼치신다는 생각으로 저으기 흥분되면서도 그 영문을 알수 없어 의아해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언제 습격한다는것을 알게 되면 적들이 가만있을수 없기때문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청천벽력같은 이 소식을 받은 류다오거우의 놈들은 유격대가 또 쳐들어온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벅적 떠들었다. 적들은 여기저기에서 증원부대를 끌어들이고 밤낮으로 경비를 강화하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에게 성시를 습격하겠다고 알려준 날에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으시였다.

바늘떨어지는 소리도 놓칠세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며 그날 밤을 지새운 놈들은 날이 밝자 다행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긴장을 늦추었을 때 같은 내용의 통고장을 또 보내게 하시였다.

이번에는 진짜일것이라고 생각한 적들은 또다시 며칠밤을 뜯눈으로 보내며 부산을 피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격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쯤되자 지칠대로 지친 적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유격대가 큰소리만 치지 사실은 거짓말만 하는게 아닌가고 저들끼리 속닥거리였다.

류다오거우의 적들은 유격대의 거짓통고장에 다시는 안 속는다고 하면서 증원부대들도 다 돌려보내고 발편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적들의 심리상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전투를 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부대에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한 지략과 전법을 깨닫게 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사기충천하여 류다오거우에 돌입하였다.

며칠동안 자지도 못하고 시달릴대로 시달려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된 적들은 미처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채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아연실색한 일제《토벌》대는 류다오거우가 녹아난 원인이 그 통고장의 신비로운 조화에 있다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한 지략과 령군술앞에서 적들은 언제나 무리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 소식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상깊은 세부들이 단편소설들의 갈피마다에서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

단편소설집 《고귀한 의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넓고넓은 저 바다처럼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놓은 사랑과 의리의 서사시이다. 장쾌한 바다의 설레임과도 같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운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기슭을 살뜰하게 어루만지는 잔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정함과 친근감을 주는것은 한없이 소박하고 끝없이 위대한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의리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렸기때문이라고 말하고싶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풍만하게 그리면 명작이 될수 있다.

작가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수령형상소설문학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아가야 할것이다.

병사의 경례

리 찬 호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해
한자옥한자옥에 백두산의 무게를 실으시며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군대
그이를 기다리며 전투력을 다져온 우리
먼길 가신 장군님 몸성히 돌아오시길
날자를 꼽으며 기다리지만 앓았다
훈련 또 드세찬 훈련으로
더 억세지고 더 천백배 강대해졌다

하산을 지나 아무르주로
부랴찌야에서 다시 중국 동북지역으로
국경에서 국경으로 이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며
우리 마음 얼마나 간절함에 끓었던가

무장으로 장군님을 받들자고
훈련장에 번개치며 휘뿌린 진한 땀
그 자욱이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을 뿜고

그 나날의 그리움이
우리를 일당백용사로 더 억세게 키웠거니

그이는 보시리라
세계가 경탄하는 백두산총대아래
눈부시게 펼쳐가는 최첨단의 세계
총대를 믿고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외국방문의 길에 발전소와 공장들을 보시며
또 하나의 웅대한 설계를 펼치셨을 그이께
그 미래를 담보하는 총대의 위력
기세충천한 우리의 훈련모습을 보여드리자

아, 축원으로 솟는 열정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어버이 다녀오신 먼길에
쌓이신 그 피로를 다 푸실수 있게
훈련의 높은 목표 돌파한 만세소리
하늘 땅 바다위에 드높이 메아리칠 때
그렇다 그것이 그이께 드리는
이 나라 병사들의 가장 고귀한 경례이다!

학두봉기습에서

서 진 명

배고동소리 정다운 홍원땅
단풍붉은 학두봉기습에
가시던 걸음 잠시 멈추시고
그날의 젖은 행전 그대로 서계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억세게 틀어쥐신 권총은
방금 파발리와 봉오골에서
일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긴 멸적의 총
인민들의 사무친 원한도 풀어주고
조국해방 그날의 약속도 채워져있어
바라보는 우리 마음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김형권동지께서 이끄신 조선혁명군무장소조가
조국땅에 울리신 불멸의 첫 총성은
일제멸망을 예고하는 우뢰소리였어라

일제놈들의 폭압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백두산을 우러러
조국해방의 구성이신 수령님 그리며 사는 인민
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려
일제의 멸망을 앞당길 불이 되어 건고걸으신
사선의 그 길은 얼마였던가

때로는 버랑밀 덩불속에서
가랑잎을 이불삼아 지낸 밤은 그 몇밤
때로는 농민으로 나무꾼으로
화전민들과 솟구기로동자들속에서
수령님의 무장투쟁로선을 선전도 하였고

지금도 황황 불이 이는듯
불씨봉 소나무에 새기신 구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의 글발은
단풍붉은 불씨봉이 그대로
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부르던 화불인듯

김형권동지는 불이라도 뿔뿔 라는 불이었다
수령님 주신 혁명임무 받고
안두(안도)와 나이트우산(내도산)을 내려
무장소조를 이끌고 국내깊이 진출하신 김형권동지
그이는 일제의 멸망을 앞당길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이었다

아직도 홍원땅 학두봉기슭에
그날의 옷차림으로
가슴에 권총을 품으시고
천만군민의 앞장에서 걸어가고있어라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무장으로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그날을 향해
우리와 함께 가고있어라

백시묵음

건설장의 백시

전 수 철

하늘우의 결승선

직선주로 달리는 룡상선수들
오직 곧바로 앞으로만 달린다네
곧바로 달리는 그앞에
승리의 결승선이 기다리기에

허나 여기 만수대지구건설장
초고층살림집건설자 우리는

창공을 향해 곧바로 솟구쳐오른다네
30층 40층우에 승리의 결승선이 있기에

그 하늘우에 결승선이 있다네
4월의 축포가 터져오를 환희의 광장
건설자 우리들에게 안겨줄
축포의 꽃보라로 엮어진 축하의 꽃다발이

전화종소리

찌르릉 찌르릉...
설새없이 울려오는 전화종소리
철근가공장과 콘크리트혼합장에서
강재며 골재를 보내달라는 독촉인가?

순간도 빈틈없는 공사전만
공사속도가 너무 빨라

때없이 제기되는 건설장의 정황
저저마다 들이대는 독촉의 목소리

나에게는 들려오누나 저 종소리
4월의 축전장으로 어서 가자고
우리를 비약으로 부르는 소리
우리를 래일로 떠미는 소리

병사들의 말

무슨 검사가 따로 필요하랴
휘틀을 조립하고 철근을 조립해도
충막을 엮고 미장을 해제껴도
하는 일 모두다 합격!

그 숨씨 어찌먼 번개갈고
해놓은 일 너무도 손색없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그 비결 물으니
병사들 하는 총알같은 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선군시대 병사들의
하나같은 숨씨라고

속보원동무에게

아침출근길에 건설자들 보라고
작업실적도표 그리는 속보원동무
하지만 그 순간에 달라진 실적은?...
동무는 실적을 속보판에 그리지만
건설자 우리들의 마음속 속보를

그대는 잘 모르는것 같구려

온 세상 사람들 경탄속에 바라보는
만수대의 푸른 하늘은 우리들의 속보판
솟구치는 건물은 우리 그려가는 실적의 도표!

김일성상계관작품

희곡

오늘을 추억하리



김일성상계관인 김흥기
김일성상계관인 서남준

△때: 고난의 행군시기
△곳: 어느 한 산간군에서
△나오는 사람
강산옥: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광천: 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오석래: 발전소건설 시공지도원
조 갑: 군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준: 군당책임비서
리윤희: 군인민병원 간호원(산옥의 조카)
오순정: 장공장 기사(석태의 누이)
리송희: 중학교 학생(산옥의 딸)
봄순 할머니: 년로보장자(로당원)
조세철: 군건설대 지도원(조갑의 아들)
경옥: 중학교 학생
박철: 군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순: 장공장 지배인
창진: 종이공장 지배인
봄순 할머니의 며느리
계획과장
주민등록과장
전력공업부 국장
전력공업부 연구사
도행정경제위원회 국토과장
장로인
인민군 사단장, 참모장, 초기복무군인들, 병사들
군내 지배인들
남녀청년건설자들
가두녀인들

서 장

△가요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장중한 선율이 흐르는 속에 주인공 강산옥의 목소리가 설화로 울린다.

설화: 생각하면 그 시절이 너무도 참혹해 돌이켜보기조차 피로운 추억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웅이져있는 고난의 행군!...

△서서히 막이 열린다.
온 발전소건설장을 삼켜버릴듯 한 눈보라, 눈보라...
질통과 흙마대를 멘 남녀건설자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허기져 쓰러지기도 하고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기에 설화가 계속된다.
설화: 행복했던 지난날이 눈물겹게 그리울수록 시련이 더 쓰리고 아팠던 그 시절 인간이 겪을수 있는 최악의 역경에서 풀뿌리를 깨물며 죽음과 싸운 고난의 그 피자욱 우리 작은 산간군에도 찍혀져있다...
△고조되는 음악과 함께 바위산이 무너져내리면서 붉은기를 지켜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모습 대군상으로 펼쳐지는 속에 제명이 솟는다.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제 1 장

군행정경제위원회 마당

△무대
한쪽으로 치우쳐 《선양군행정경제위원회》라

는 간판이 붙은 청사입구가 보이고 커다란 느티나무, 그 반대쪽으로는 발전소전경도가 세워져있고 멀리로는 산간읍전경이 펼쳐졌다.

△국부조명속에 중학생복차림의 송희가 느티나무앞에서 마른기침을 툭툭 하며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있다.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배가 볼록 나온 석태 도면말이를 손에 들고 급히 나오다 송희를 본다.

석태: 야 아니, 이게 우리 송희가 아니야?

송희: (반색하며)석태아저씨!

석태: 에이, 석태아저씨가 뭐니. 장차 네 사촌아저씨가 되겠는데 뭐.

△송희 픽- 하고 코웃음 짓는다.

석태: 왜, 내가 싫니?

송희: 누가 뭐 싫대요.

△이때 무대밖에서 윤희의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석태: (그쪽을 힐끔 쳐다보고나서 능청스럽게) 참 송희야, 사촌언니 못 봤니?

△위생가방을 멘 윤희 나오다가 엇듣는다.

석태: 그 윤희인지 하는 처녀 말이다, 벌써부터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심겁게 히들거리지 말라느니, 그전날의 석태가 아니라느니...

윤희: (석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동무가?!

△송희 키득거리다.

석태: (어깨를 주물며) 아니, 동문 왜 건설장에 있지 않구.

윤희: (뽀로통해서) 군병원에 약타러 갔댔어요.

석태: 오, 그런걸 난 또 내가 헛눈 팔가봐 따라왔다구?

윤희: (또 주먹을 들며) 엄마! 이 동무가 정말?!

송희: 언니.

윤희: (송희에게) 여긴 왜 왔니?

송희: 량정파장이아저씨를 만날려구요.

석태: 량정파장을?... 왜?

송희: 흥, 아저씨 몰라두 돼.

석태: 허...

윤희: 참, 송희야. (종이쪽지를 주며)자, 엄마가 보내더라.

송희: (반색하여) 우리 엄마가요?(쪽지를 펴보더니 흠 내던진다.)

석태: 엉?!

△석태가 종이쪽지를 집어드는데 윤희가 송희의 팔을 잡는다.

윤희: 아니, 왜 그러니? 왜 그래? 송희야.

석태: (종이쪽지를 펴보며) 《송희야, 엄마는 오늘 밤도 건설장에서 내려가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엄마로부터》?...

송희: 씨, 난 엄마와 매일 편지로만 만나.

석태: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송희야, 오늘은 행정위원장동지가 집에 꼭 내려가실게다. 여차

하면 너와 함께 나들이갈수도 있구. ...

송희: 나들이라니요?

윤희: 삼봉군에 너의 외삼촌같은 사람이 또 나졌대.

송희: 그럼 우리 엄마하구 전쟁때 헤어졌다는 그 총알깍지 외삼촌?

윤희: 그렇지 않구.

송희: 야! 언니.

윤희: (손벽치며 좋아하는 송희를 보더니 그의 량볼을 싸쥐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석부석하니? 부은것 같기두 하구... 가만있으라.

송희: 아니, 일없어요. 량정과장이아저씨 못 봤나요?

석태: 량정과장은 왜 만나려구?

송희: 난 빨리 만나야 돼요.

윤희: 방금전에 량정사업소로 가는걸 봤어.

송희: 그래요? (바빠 나가려다가 휘청거린다.)

윤희: (제격 부족하며) 엄마, 송희야! 너 왜 그래?

송희: 일없어, 난 빨리 만나야 돼. (나간다.)

윤희, 석태: 송희야!

윤희: 저 애가 심상치 않아요.

석태: 웬?

윤희: 오래동안 난알구경을 못해서 영양이 급격히 약해지면 급성폐염에 합병증이 오면서 나중엔... (석태의 귀에 대고 소곤거린다.)

석태: (놀라며) 그럼 위원장동지한테 빨리 알려야지.

윤희: 발전소건설문제때문에 집에도 못 내려오고있는데 어떻게...

△이때 조갑 계획과장과 같이 나오다 본다.

윤희: (석태의 팔을 잡으며) 송희는 내가 잘 돌보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요.

조갑: 하긴 저런 때야 아래방 옷방 가리지 않지.

△윤희 놀라서 황급히 달아뺀다.

석태: (나가는 윤희를 보며) 윤희! (조갑에게)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동지.

조갑: (시무룩해서 대답이 없다.)

석태: 야, 인상 좀 밝게 가지면 안됩니까?

조갑: 히들거리긴. 야, 발전소 시공지도원이 여긴 왜 왔어?

석태: 저 첼탑 옮기는 문제때문에 위원장동지를 좀 만나려구요.

조갑: 첼탑 옮기는 문제? 그건 내가 걱정 안해도 돼. 도행정위원회 광천부위원장이 책임졌어. 허허... 참, 재작년 광천부위원장덕에 무보수로 동맛을 본것때문에 가슴이 아랄했었는데 어쩐다? 또 마주치게 됐은즉...

석태: (무릎을 철썩 치며) 거 참 반갑겠는데요?

조갑: 반가워?!

석태: 그렇지 않구요. 내가 얼마나 보고싶었다구요.

조갑: 저래서 사람들이 무보수로동 갔다오더니 머리가 잘못됐다고 하지.

석래: 허허... 조갑부위원장동지보군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조갑: 뭐래?

석래: 거 뭐 이름그대로... (두손으로 흉내를 내며) 조-가-비...

조갑: 뭐이?

석래: 아, 아닙니다. (청사안으로 들어간다.)

조갑: 저런 맹랑한 녀석 봤나. ...

△조갑 손가락으로 이마를 다독이는데 남너지배인이 나온다.

창진: 안녕하십니까. (익살조로) 어- 조갑부위원장동지가 이마를 툭툭 때리는걸 보니 또 뭐 속상한 일이 있는거구만요.

조갑: 여보, 발전소건설에 걸린 문제가 한두가진줄 아오. 휴원천지가 멀어지다나니 레루장이 또 걸렸소.

창진: 그래서 등짐으로 저나르지 않습니까?

조갑: 어휴, 10리가 넘는 곳에서 어느 하가에...

경순: 위원장동지가 발전소건설장에서 내려왔습니까?

조갑: 거기두 없습니까?

경순: 예.

조갑: 나두 찾고있는중인데.

경순: 아, 시누이결혼식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시로 따라간게 아닐까요?

일군들: 우시라고요?!

경순: 왜요?

창진: 발전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우시가 다 뭍니까, 우시가?...

조갑: 여보, 위원장은 뭐 인간이 아니요? 전원에서 전사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인데 위원장동무가 우시루 따라가는거야 웅당한 일이지.

일군들: 아- 그럼요. (서로들 긍정한다.)

△이때 만신창이 된 산옥 나온다.

일군들: (반색하며) 위원장동지.

△일군들이 수표반을 종이를 들고 다가가다가 산옥의 험상한 모습을 보고 아연해한다.

산옥: (기쁨에 넘쳐) 다들 있었구만요. 조부위원장동무, 레루를 해결할 방도를 찾았어요, 방도를!

조갑, 일군들: 레루를요?

산옥: 참나무를 깎아서 레루를 대신합시다.

일군들: (놀라며) 참나무로요?!

산옥: 내 지금 군인동무들이 건설하고있는 저 물길굴전투장을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군인동무들은 글썽 갱속에 물이 차니 폐목을 띄워놓고 그우에서 함마로 발파구멍을 뚫고있더구만요.

일군들: 예?

산옥: 자갈이 떨어지면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들고 모래가 떨어지면 자갈을 부셔서 모래를 만들고있었습니다.

일군들: (입을 딱 벌리며) 자갈을 부셔서 모래를 만들어요?!

산옥: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변청년발전소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입니다. 확실히 우린 그 혁명적군인정신이 부족했어요, 혁명적군인정신이...

△모두 긍정한다.

산옥: 그래서 모자라는 레루를 참나무를 깎아서 대신해보자는겁니다.

일군들: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합시다.

경순: 그런걸 우린 위원장동지가 시누이 우시로 따라간줄 알았습니다.

산옥: 우시로요?

일군들: 예.

계획과장: (종이장을 내밀며) 저... 강냉이입니다.

장공장에서 벌써 몇달째 생산이 걸렸다가에...

산옥: 과장동무, 지금 건설장에 점심밥을 못가지고 나와 일하는 사람이 왜 하나둘 늘어나는지 료해해봤어요?

계획과장: 그건 아직...

산옥: 자식들때문입니다. 이 강냉이는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세대들에 다 돌리세요.

경순: (나서며 안타까이) 아니, 위원장동지, 좀 해결해주십시오.

산옥: 허허... 작년부터 한다는 원료기지는 어떻게 하구 없는 강냉이만 계속 찾아요?

경순: 매년엔 꼭...

산옥: 지배인동무, 내 그 공장에 말린 칩뿌리를 보내주겠으니 우리도 대용식품을 한번 만들어보지요.

경순: 대용식품이요?

산옥: 먹어야 발전소두 건설하지요. 자강도에선 글썽 니탄으로 떡이나 빵을 만들어 식량을 대신한대요. 그러니 우린 우리 군에 흔한 칩뿌리로 국수를 눌러보잔 말입니다.

경순: 칩뿌리로요?

산옥: 해보세요.

경순: 예.

산옥: 조부위원장동무, 이자 오면서 보니까 발전소건설용세멘트창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됐더군요.

조갑: 내 그래서 자재지도원동무한테 단단히 과업을 주었습니다.

산옥: 아니아니, 그건 조부위원장동무가 직접 책임지세요.

조갑: 제가요?!

산옥: 왜, 겁이 남니까?

조갑: 그... 그런건 아니지만... 워낙 철도도 없는 산골인데다가 변변한 건재기지 하나 없는 우리 군에서 세멘트문젠...

산옥: 그래서 부위원장동무가 책임지라는게 아니예요? 그렇다구 이미 맡고있는 수도보수공사를 아예 쉼버려선 안됩니다.

조갑: 예? 어휴-(손끝으로 이마만 다독인다.)

산옥: 거 이마는 그만 다독이세요. 그러다 이마에 떡살이 배기겠어요.

△모두 웃는다.

창진: 위원장동지. (수표받을 종이를 내민다.)

산옥: (수표를 해주며) 동무넌 왜 발전소건설로력을 제때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창진: 저두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구하러 떠나다보니 출근을 못합니다.

산옥: (화학공장 지배인에게) 동무넌 왜 안 내 보내요?

화학공장 지배인: 우리두 사정은 같습니다.

산옥: (생각깊이) 그래요. 우리가 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너무도 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아예 질식시켜 죽이려들지, 게다가 몇년째 자연재해는 계속되고있어요.

창진: 옳습니다. 동유럽사회주의가 무너지다보니 사회주의시장이라는건 다 없어지고말았습니다.

조갑: 우리 군에서도 지금 여러 공장들이 밋고 주민들에게 공급하던 식량마저도 다 떨어졌수다.

산옥: (힘주어) 이런 형편에서 우린 전력문제를 푸는것부터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지배인들: 옳습니다.

창진: 현대 위원장동지, 발전소건설설계때부터 말썽이 많던 저 철탑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풀자는겁니까?

산옥: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진: 예?! 걱정을 안하다니? (전망도앞으로 달려가서) 자, 보십시오. 장차 장마철에 언제안에 물이 차 이 고압선하고 떡 붙어놓으면 그뎐 짱 하겠는데...

산옥: 그래서 도행정위원회 광천부위원장동지가 철탑문제를 풀자고 곧바로 전력공업부에 갔어요.

창진: 예? 아니, 거 그럼 2년전에 우리 군에서 행정위원장을 하던?...

지배인1: 아, 광천위원장.

조갑: 아무 일에서나 그저 머리가 픽픽 도는 사람이요. 우리 선양군실정야야 손금보듯 알지.

산옥: 그러니 철탑문젠 더 걱정들 마세요. 자, 가서들 일보세요.

△ 지배인들 해쳐저간다.

산옥: 박부위원장동무, 인민군부대에 보낼 원호

물자를 좀 마련해놓았는데 부위원장동무가 다녀와야겠어요.

박철: 그 사단장동지가 또 거절할텐데요.

산옥: 그래서 부위원장동무를 보내지요.

박철: 알겠습니다. (들어간다.)

산옥: 예, 수고해주세요.

석래: (달려나오며) 위원장동지!

산옥: 석래니? (돌의자에 앉아 사업수첩을 펼쳐 본다.)

석래: 저, 송희가...

산옥: 가만(청사 옷층을 향해) 명희동무, 명희동무.

△《예-》 하더니 2층창문이 열리며 처녀가 얼굴을 내민다.

산옥: 광천부위원장동지가 떠났대요?

명희: 예, 떠났답니다.

산옥: 알겠어요.

석래: (기다렸다는듯) 위원장동지, 글썽 송희가...

산옥: 송희? 듣던 이름이다?! 어느 인민반에 사니?

석래: 예?! (어이없어하더니 종이쪽지를 산옥앞에 내놓으며) 자요.

산옥: 엉? 이게 뭐야?

석래: 송희가 어머니하고 편지로만 만난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야속했으면 그런 말을 다...

△산옥 편지를 보며 서글픈 미소를 짓는다.

△이때 주민등록과장 나온다.

주민등록과장: 위원장동지.

석래: (반색하며) 아니? 주민등록과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산옥: (일어서며) 과장동무, 수고했습니다.

주민등록과장: 필요.

석래: 저... 우리 위원장동지 동생이 옳습니까?

주민등록과장: (땀을 들이며) 허참, 글썽 전쟁이 끝날무렵에 광천역에서 헤어졌다는건 맞는데...

산옥: (기대에 차서) 예.

주민등록과장: 위원장동지가 목에 걸어주었다는 그 총알깍지로 만든 놀이감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질 않습니까?

산옥: (가는숨을 내쉬며) 네...

주민등록과장: 하지만 책임비서동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찾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옥: 고맙습니다.

주민등록과장: 무슨 말씀을...

△산옥 두어깨를 떨구며 돌아서는데 밖에서 승용차가 달려와 멎어서는 소리가 들린다.

△몇몇 일군들과 이미 나와있던 조갑 소리친다.

조갑: 광천부위원장이 옵니다!

일군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동지.

광천: (나오며) 그새 잘들 있었습니까?

산옥: (반색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광천: 수고야 뭘...

석래: (한쪽에서) 안녕하십니까?

광천: 게 석태동무 아니요? 오래간만입니다. (다가가며) 이번 발전소건설에서도 또 시공을 맡았다지. (그의 배를 툭 치며) 허— 배가 다 나왔구만. 고난의 행군뎐데 꽤 좀 사는 모양이지?

석래: 예, 약간 좀...

△모두 웃는다.

산옥: 부위원장동지, 우리 철탑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천: 에이, 말두 마오. 그 전력공업부 량반들 말이요. 내 그만큼 말했는데두 금년말까지는 계획에 몰릴수 없다는거요.

산옥: (놀라며)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조건 장마철전까지 언제공사를 끝내자구 하는데, 예? 부위원장동지.

광천: 글썄, 전력공업부에서 안된다는걸 낸들 어찌겠소.

조갑: 어유— (이마를 다독이며 주저앉는다.)

△모두 실망해한다.

광천: 아니, 왜들 이렇게 풀이 죽어서 그러오? 독투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위원장동무, 군이 살아갈 길이 저 발전소건설에만 있는게 아니지.

산옥: 예?!

△일동 의아해한다.

광천: 내 다 생각이 있소.

석래: 허, 이러다가 또...

△광천과 석래 서로 눈길 마주친다.

△이때 박부위원장 청사에서 나온다.

박철: 위원장동지, 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산옥: 알겠어요. (지배인들에게) 자, 동무들은 일들을 보세요.

△모두 풀들이 죽어 나간다.

산옥: (광천에게) 그럼 전... (맥없이 청사로 들어간다.)

주민등록과장: (산옥의 맥빠진 모습을 바라보더니) 이럴 때 위원장동지한테 동생을 찾아주면 정말 힘이 되겠는데...

광천: 그건 무슨 소리요?

주민등록과장: 예, 전쟁때 헤어진 동생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광천: 위원장동무한테도 그런 일이 있는가?

조갑: 참, 부위원장동진 헤어진 누이를 찾았습니까?

광천: 에—에— 난 포기했소. 40년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딜 가서...

주민등록과장: 언제 헤어졌습니까?

광천: 전쟁이 끝날무렵에 헤어졌소. 조부위원장동무, 현장에 좀 나가보지요.

△광천과 조갑 나간다.

주민등록과장: (나가는 광천을 향해) 아니, 저...

△산옥 위원회청사에서 나온다.

주민등록과장: (산옥에게) 저, 전화를 좀... (청사로 급히 들어간다.)

산옥: (광천이 나간 쪽을 바라보며) 광천부위원장동지가 무슨 생각이 있다는걸가... 광천부위원장!

—암전—

△암전속에 방송차에서 울리는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방송원의 목소리: 《우리 영천강발전소건설장으로 또다시 달려나온 읍내 가두인민반원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가두인민반원 여러분, 모두다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군의 생명선인 발전소건설에서 오늘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됩시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됩시다!》

제 2 장 언 제 건 설 장

무대: 한쪽으로 언제가 보이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나무발판이 세워져있는데 그앞에 통나무가 쌓여있다. 다른 한쪽에 세워진 큰 속보판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구호가 힘있는 글발로 씌여져있다.

△무대 밝아지면 흙마대과 맞들이 든 사람들이 언제로 오른다.

△질통을 멘 광천과 조갑 나온다.

광천: 부위원장동무, 흙원천지가 저렇게 멀어졌는데 왜 아직 보고하지 않았소?

조갑: 위원장동무가 있는데 제가 무슨...

광천: 위원장동문 어딜 갔소?

조갑: 예, 저 험한 북대봉에 올라갔습니다, 참 나무로 레루를 만들겠다고요.

광천: 정말 이악한 녀성이요.

조갑: 어휴. (긴숨을 내쉬며) 말두 마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발전소 하나만 하자구 해두 아람찬데 이진 그저 축산이요, 양어요, 수림화, 원림화, 생산문화, 생활문화까지 좌우간 치마폭으로 못 일구는 바람이 없지요.

광천: 일군들은 그렇게 손탁이 세야 돼. (통나무우에 앉으며) 부위원장동무! 외국에 간 아들이 이젠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소?

조갑: 웬걸요. (광천옆에 앉으며)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녀석은 지금 고난의 행군이란 말두

모르구 지낼거웨다.

광천: 빠다냄새가 일정하게 났겠구만, 허허… 부위원장동무 그래두 손에 풀기가 있을 때 자식문제 하난 잘 해결했소.

조갑: 어유— 요즘 같아선 사는 재미가 없어서 원… 난 그저 그녀석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우다.

광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조갑: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며느리라는건 손자녀석에게 간식은 고사하고 통강냉이밥만 먹인다고 토돌거리더니 손자애를 데리고 제 친정으로 출가버리구말았수다.

광천: 뭐요?

조갑: (긴숨을 내쉬며) 그통에 손자녀석의 재물을 받아주며 만시름을 다 잊던 그 락마저 사라고말았쎄다.

광천: (고개를 끄덕이며) 음… 그래서 늘 병글거리던 사람이 한숨뿐이구만. 자, 한대 피우오.

조갑: (담배를 받아들고) 어이구, 고양이군요.

광천: (일어서며) 부위원장동무, 터놓고 말해보오. 이 언제가 장마철전까지 되긴 될것 같소?

조갑: 어이구, 이런 식으루 해가지고야 어느 하가에… 개미가 동뚝을 쌓는 격이지요.

광천: 그럼 군이 살아갈 다른 방도를 모색해보야 할게 아니요.

조갑: 어휴— 요즘같은 때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는게 상책이지요.

광천: 동문 역시 이름그대로 조가비요.

조갑: 예?

광천: 먹을알이 있을 땐 몸전체가 입이 되구 불리할 땐 몸전체가 방패가 되는 조가비란 말이요.

조갑: 하하…

광천: 부위원장동무, 군료양소 라디오온천 말이요.

조갑: 라디오온천이라니요?

광천: 라디오성분이 많은 온천! 부위원장동무 그 온천에 몸을 잠그어봤겠지?

조갑: 물론이지요. 그저 눈을 척 감구 앉아있노라면 온몸이 흐물흐물해지는게 아무 생각 없수다.

광천: 아깝거던. 그 큰 돈뎡이를 군병원 료양소로나 쓰고있으니…

조갑: 아니, 돈뎡이라니요?

광천: 그것만 가지구두 발전소요, 뭐요 고생하지 않아두 잘살수 있겠는데…

△조갑 영문을 몰라하는데 지칠대로 지친 산옥 언덕을 넘어 나온다.

조갑: 부위원장동무! 위원장동무가…

광천: (산옥에게 다가가며) 왔구만. 그래, 갓던 일은 어떻게 됐소?

산옥: 우리 군이 받은 립지에 참나무들이 있긴 한데 가뜩이나 벌거숭이가 된 산들을 보니 차마

거기엔 손을 못 대겠습니다.

광천: 음, 그럴수 있지. 위원장동무, 내 언제중심강토에 좀 올라가보겠소.

△광천 조갑과 함께 언제로 올라간다.

△산옥 통나무우에 풀썩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때 위생가방을 멘 윤희 나와 산옥을 본다.

윤희: 삼촌엄마!

산옥: 윤희냐?

윤희: 갓던 일은 어떻게 됐나요?

산옥: (말없이 한숨만 쉰다.)

윤희: (측은하게 지켜보더니) 삼촌엄마, 힘들지요?

△윤희 산옥의 어깨를 두드려준다.

산옥: 어— 시원하다.

윤희: 참, 오늘신문 봤나요?

산옥: 아직 못 봤다.

윤희: 야, 전쟁때 헤어졌던 형제가 감격적으로 만난 기사를 읽으면서 난 삼촌엄마를 생각했어요.

산옥: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꿈같은 일이지. 우리 장진이도 어텐가 꼭 살아있을텐데…

윤희: 옳아요. 아마 큰일을 하고있을거예요.

산옥: 난 그가 탄을 캐든 농사를 짓든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장군님만을 받들어 일을 잘해나간다면 더 바랄게 없다. 우리 장군님 소식은 없던?

윤희: 없어요.

산옥: (서운한 어조로) 어제는 또다시 철령을 넘으셨다는 소식이 실렸었는데…

△이때 석태를 비롯한 청년들이 철탑모형을 들고나온다.

석태: 위원장동지! 갓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옥: (착잡한 생각에 잠겨 대답 없다.)

△윤희 석태를 끌고가더니 뭐라고 귀에 대고 속삭인다.

석태: (알아차리고) 차 이런, 위원장동지두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위원장동지가 늘 말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필요한거지요.

모두: 예!

△청년1이 뭐라고 신호한다.

석태: 참, 위원장동지, 고등어국애기 들어봤습니까?

산옥: 고등어국애기?

석태: 윤희, 어서.

윤희: (펄쩍 뛰며) 동무네가 하라고.

△청년들 윤희를 밀어세운다.

윤희: (나서며 해학적으로)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시집을 왔대요. 《고등어 사시오, 고등어요.》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 장사

군을 집마당으로 불러들인 새각시 정작 고등어를 사자니 돈은 없지, 궁벽한 산골에서 물고기를 먹어본진 까마득하지. 그래서 함지에 담겨있는 고등어를 손에 꼭 쥔채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다가 할 수없이 장사군을 그냥 보냈대요.

석래: (역시 해학적으로) 부엌에 들어간 새색시 손에 묻은 고등어기름 쟁개비에 씻어 국을 끓여 새서방에게 대접했다고.

윤희: 고등어국 한사발을 단숨에 들이킨 남편 《야, 천하진미로구나.》 하고 환성을 올리는데 시어머니 폴짝 엉덩방아 쪼으며

석래: 《에그 아깝다. 그 손을 쟁개비가 아니라 큰 가마에 씻었더라면 온 식구가 먹었을걸!》

△일동 킁득거린다.

윤희: 다음날 우물가에서 이 사연을 들은 얌전한 아낙네 찰싹 이마를 치며

청년1: 《에그마나나 아깝다. 그 손을 가마가 아니라 이 우물에 씻었더라면 온 동네가 다 먹었을걸!》

△일동 와— 하고 웃는다.

산옥: 가만! 우물?!... 저 언제안의 침수될 구역에 참나무들이 있지?

모두: 예?

산옥: 있지?

석래: 예, 있어두 많지요.

청년1: 몽땅(두팔을 모으며) 이런것들입니다.

산옥: 하하... 그런것두 모르고 난 괜히 저 북대 봉만 헤맸지.

석래: 그럼 레루감때문에?!

산옥: 영!

석래: 위원장동지! 우리 위원장동지 의견대루 전기를 끄지 않구 철탑을 옮겨보겠습니다.

산옥: 그래, 난 믿어.

석래: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영천강에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1호, 2호, 3호...

명호: (랑만과 희열에 넘쳐)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만부하로 돌아가구...

청년: (역시 희열에 넘쳐) 전야마다 생명수가 철철 흘러드니 황금나락이 파도쳐설레이구...

석래: 산골짜마다 생긴 대인공호수들은 잉어, 붕어, 초어, 산천어가 육질거리는 양어장으로 전변되구... 윤희, 그뎐 자신있지?

윤희: (나서며) 필요?

석래: 4래자.

윤희: 어마나! (얼굴을 싸찡다.)

△일동 웃는다.

산옥: (흥분에 겨워) 동무들, 정말 고마워. 우리의 꿈이 꼭 현실로 꽃피날거야. 우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모두: 웃으며 가자!—

석래: 자, 동무들, 또 철탑문젤 토론해보자.

△석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앉는다.

△광천 조갑을 데리고 나온다.

광천: 저 동무들은 뭐요?

조갑: 제대군인들로 조직한 철탑연구조입니다.

광천: 철탑연구조? 누가 조직했게?

조갑: 위원장동무가 조직했습니다.

광천: 음... (청년들에게 가며) 수고들 합니다.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 인사한다.

광천: (철탑모형을 보며) 허, 신통한걸. 동무네 재간이 여간 아니구만, 허허... 그래, 무슨 좋은 안이 나왔소?

석래: 우리 전기를 끄지 않구 철탑을 옮겨보자는겁니다.

광천: 전기를 끄지 않구?

조갑: 내 귀가 생겨 처음 듣는 소리다. 야, 저 고압철탑이 뉘집마당에 서있는 전보댄줄 알아?

산옥: 조부위원장동무!...

명호: 그래서 철탑연구조를 못지 않았습니까?

조갑: 철탑연구조?! (산옥에게) 위원장동무, 내 저 사람들의 머리에서 철탑문제가 풀린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청년3: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광천: 아— 아— 대중의 지혜를 무시하면 되오. 혹시 알겠소?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조갑: 삶은 닭알에서 병아리두 까나올수 있지요.

명호: 뭐라고요?

△순간 석래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듯 철탑모형을 떨어뜨리고 두팔을 허우적거린다.

△놀란 윤희가 급히 다가간다.

윤희: 석태동무, 왜 그래요?

△석태 명호를 찾으며 조갑에게 다가간다.

산옥: 윤희야, 어서 데리고 병원에 가봐.

△윤희, 조갑, 청년들 석태를 데리고 나간다.

광천: (천천히 거닐며) 이거 무슨 결정적인 대책이 서야겠는데... 여보, 위원장동무. 내 한가지 방도를 내놓으라우?

산옥: 예?...

광천: 내 얼마전에 우리 도행정위원회 무역국장 동무한테서 의견을 받았는데 동무네만 있는 노다지가 있지 않소?

산옥: 노다지라니요?

광천: 라디오휘천 말이요. 외국사람들은 라디오휘천이라면 오금을 못 쓴다지 않소. 이 선양군이 못살긴 해두 산천경개야 얼마나 좋소. 게다가 라디오휘천이 세개씩이나 있구... 어디 그뿐이요. 유명한 절간두... 그걸 포함해서 여기다 관광지를 꾸리면야...

산옥: (아연해하며) 관광지름요?

광천: 글썄, 나두 동무처럼 처음엔 무슨 소릴 하

는가 하구 무역국장동무의 의견을 일축해버렸는데 돌아앉아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거든. 어떤 나라는 말이요, 땅덩어리는 조마구만 해도 국민소득은 대단하오. 관광업으로 그렇게 됐거든.

산옥: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야 우리 식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요.

광천: 음?

산옥: 그렇게 남의 돈주머니를 넘겨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속으로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

광천: 그속으로?! 허허... 그럼 위원장동문 지금 같은 형편에서 이 큰 발전소를 꽤 해낼수 있겠소?

산옥: 그럼 부위원장동진 어찌자는겁니까?

광천: 내 생각엔 현재 30미터계선에서 언제를 마무리하자는거요.

산옥: 예?

광천: 그럼 철탐문제두 제기되지 않을까 아나요.

산옥: 철탐문제야 부위원장동지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천: (안타까이) 내 몇번이나 말했소. 전력 공업부에서 안된다는걸 난들 어찌했소.

산옥: ...

광천: 그렇게 하지요. 그럼 자그마한 발전소는 될게 아니요.

산옥: 부족되는 전기는 어떻게 하구요?

광천: 그건 내가 해결해줘.

산옥: 아닙니다. 우린 어떻게 하나 3 000키로와트의 전력을 얻어내야 합니다.

광천: 그렇다— 이제 보니 동무고집이 여간 아나구만.

산옥: 고집이라니요?

광천: (흠마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두 속이 타서 그러오. 저 사람들을 좀 보오. 멀룩한 삶은 통강냉이 한줌 먹구 등짐을 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단 말이요. 일군들일수록 인정이 있어야지. 후날 사람들이 동물 보구 뭐라고 하겠소.

산옥: 저도 가슴이 아쁩니다. 사람들은 지금 허기져 쓰러지고있어요. 하지만 래일을 확신하기에 쓰러지면서도 웃으며 언제를 쌓고있습니다.

광천: (안타까이) 이것 보오. 위원장동무 딸애가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제 어머니이름을 걸구 강냉이를 다 꺼냈겠소?

산옥: (놀라며) 예? 우리 송희가요?

광천: 오늘을 견뎌야 래일두 있는게 아니요. 음!... 아무튼 내 전력공업부에 다시 가보긴 하겠지만 잘 생각해보오. (무거운 걸음으로 나간다.)

△이어 승용차가 떠나가는 소리.

△산옥 철탐모형을 집어들고 자그마한 바위쪽으로 다가가 맥없이 앉는다.

△이때 익준 주민등록과장과 함께 급히 나온다.

익준: 게, 행정위원장동무 아니요? 옳구만.

산옥: (일어서며) 책임비서동지...

익준: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산옥: 책임비서동지, 저 발전소가 정말 되긴 될까요?

익준: 아니, 발전소건설발기자가 그게 무슨 소리요?

산옥: 솔직히 전 불안합니다. 겁두 나구요.

익준: 그거면 되오. 내 여태 자기 일에 대해 겁이 없구 불안을 느낄줄 모르는 사람 큰일치는걸 못 봤다니까. (손수건에 땀을 주며) 자, 받소.

산옥: (의아하여) 이건?

익준: 어서 풀어보라는데, 어서.

△산옥 손수건에 땀 총탄깍지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핀다.

익준: 그래, 그 총알깍지놀이감이 맞소?

산옥: 예, 맞습니다. 이 쪼그라진거랑, 이 색동 끈이랑 다 맞습니다.

익준: (무릎을 치며) 찾았소. 업은 아이를 찾는 다더니 곁에 두고도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헤맸구만, 하하... 놀라지 마오. 도행정위원회 광천부위원장동무가 바로 동무의 동생이요, 강진이란 말이요.

산옥: 예— 예?! (무작정 달려나가려다 돌아서며) 그런데 어째서 이름이?...

주민등록과장: 동생을 키워준 그 녀성제대군인동무는 광천역에서 얻은 애라고 해서 이름을 광천이라구 지었답니다.

산옥: 그래서 광천이라구요?

△산옥 총탄깍지를 뽀뽀 풀썩 주저앉는다.

산옥: (뜨거움에 젖어) 정말 다들 고맙습니다.

익준: 고맙다는 인사는 동생을 키워준 영덕군의 그 녀성동무한테 해야지.

주민등록과장: 이젠 할머니가 됐더구만요.

산옥: 글썄 늘 업고다니던 엘 그날은 왜 역대합실에 그냥 내려놓고 먹을걸 얻으려 갔댔겠어요.

익준: 일이 안될라면 별일이 다 있지. 자, 어서 동생을 만나보오.

△산옥 달려나가다가 주춤 멈추어선다.

익준: 왜 그러오?

산옥: 방금 전력공업부로 간다고 떠났습니다.

익준: 철탐때문에?

산옥: 예.

익준: 그거 참 잘됐소.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겠는데 송희랑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겠소.

산옥: (총탄깍지를 품에 꼭 안으며) 강진아!...

△전환막이 내린다.

△전환막앞

△윤희, 석래 나온다.

윤희: 빨리 병원에 가자요.

석래: 일없겠지 뭐.

윤희: 일없을게 뭐예요. 그러다 영영 실명당하면 어떻게 해요.

석래: 소경한테 시집을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

윤희: 남은 속이 타 죽겠단데 심겁게 놀아.

석래: 하하... 윤희, 행정위원장동지가 나보고 뭐랬는지 알아? 우리 결혼식을 언제 하겠는가고 묻지 않아.

윤희: 그래서요?

석래: 그래서 내 남패자를 떠난 대오가 북대정사에 도착하는 날이라고 했지 뭐.

윤희: 남패자?! 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석래: 끝나는 날.

윤희: 피— 자기 결심이면 다 되나?

석래: 좋아하면서두.

윤희: 예?

석래: 하하... 가자구.

△들이 다정히 웃으며 나갈 때 전환막이 오른다.

제 3 장 우 물 가

무대: 한쪽에 큰 버드나무아래 우물이 있고 다른 반대쪽에는 석태네 집이 반쯤 나와있다. 터밭들에는 가물에 탄 강냉이와 줄당콩들이 보인다.

△전환막이 오르면 우물가에 봄순 할머니와 녀인들이 앉아 남새를 씻고 빨래도 하며 얘기를 하고있다.

녀인1: 글썄 철탑을 직승기로 올렸대.

녀인들: 정말?

녀인3: 어디서?

녀인1: 꿈에서.

△녀인들 웃는데 녀인2 바깥쪽을 들고 나온다.

녀인2: 에그— 우리 동넨 언제면 수도보수공사를 해주겠는지...

녀인들: 그러게 말이다.

녀인1:이 우물이래두 있는게 천만다행이다.

녀인2: 참, 쌍둥이 엄마, 들었?

녀인1: 뭘?

녀인2: 글썄 행정위원장 딸 송희가 건설장세대에 나누어줄 강냉이 20키로씩이나 떼냈대.

녀인들: 뭘 20키로?!

봄순 할머니: 무슨 소릴? 지금 난알만은 단 한 키로래두 위원장수표없인 못 나가.

녀인2: 제 배 고프니까 엄마이를 팔았겠지요 뭐.

녀인5: 에그, 설마하니 송희가 그런짓을 해?

녀인2: (얼을 올리며) 차 이런, 내 귀루 직접 들었더니까. 행정위원회 계획과장 맥이 자기 남편이 해결해주었대요.

녀인4: (입을 딱 벌리며) 고 쪼꼬마한게 담두

크구만. 어머니가 그렇게 교양하지 않았겠는데...

녀인1: 이제 그러다 작은 위원장이란 소릴 듣겠나.

녀인3: 너무 그러지들 말라요. 오죽 배가 고팔으면 그랬을가, 원.

녀인4: (눈을 흘기며) 가만 배고파?!

녀인1, 2: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녀인3: 내가 듣자니까 그 집에서두 거의 반년이 넘도록 난알구경을 못하다싶이 한대요.

녀인2: 뭘?! 호호... 어이구, 모를 소리 (녀인1, 4를 향해 어성을 높이며) 다른 집두 아닌 행정위원장집에서?

봄순 할머니: 입방아들은 좀 그만 쥘으라구. 예로부터 발방아에선 쌀이 나오구 입방아에서 구렁이가 나온다 했네. 내 범벅이 생겼길래 송희네 집에 갔더니 고사리같은 손에 닭은 강냉이 한줌 쥐고 그걸 밥이라구 먹고있더구만. 오죽하면 동네사람들이 끼니거리가 생기면 송희 걱정을 하겠나.

녀인 1, 2, 4 서로 마주보며 입을 삐죽거리더니 쭈군쭈군한다.

녀인1: (빨래를 하며) 그저 미국놈이 원쑤다!...

장로인: (나오며) 봄순이 할머니 나왔소?

녀인1: 조갑부위원장이 잘못되었다는 소리 들었수?

녀인4: (이마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그럼 이 부위원장?

녀인1: 소문 짜해.

녀인4: 어쩐지 수도보수공사가 늦어진다 했지.

△이때 산옥이 나온다.

산옥: 수고들 해요.

△놀란 녀인들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목례한다.

봄순 할머니: 오늘은 행정위원장안색이 아주 좋수다.

산옥: 그래요?

△녀인 1, 2, 4가 방금 한 말을 산옥이가 듣지 않았을가 하고 손가락질하며 소곤거리는데 장로인이 낫과 솥들을 들고 우물가에 나타난다.

산옥: (장로인에게) 아바이, 안녕하십니까? 그래 요새두 산에 웅노를 놓으시는가요?

장로인: 그만두었네.

산옥: 왜요?

장로인: 땀감이 없어 산마다 벌거숭이가 되여가고 있는데 산짐승을 잡는다는게 나라앞에 죄를 짓는것만 같아서...

산옥: (고개를 끄덕이며) 네... (녀인들에게) 그런데 물은 왜 여기들 와서?

녀인4: 예, 우리 영화관 뒤동네하구 봄순이네 8반, 9반은...

녀인1, 2: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녀인4: 왜 그래? 할 말은 해야 돼.

산옥: 하하... 수도보수공사가 아직 안 끝난 모양이군요. (녀인5에게) 탁아소에도 물이 안 나와요?

녀인5: 예... 쫄쫄 나오는걸루 그런대로 밥은 해 먹었는데 빨래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다.

△산옥 수첩에다 적는다.

녀인1: (그를 보고나서) 야!— 위원장동지 수첩에 적히는걸 보니 물문제는 풀렸다.

△녀인들이 즐겁게 웃는다.

봄순 할머니: 행정위원장, 거 조갑부위원장 말 이유. 요새 통 볼수가 없던데... (어줍게 미소하더니) 혹시 잘못됐다는게 사실인가?

산옥: 네? 잘못되다니요?! 양수기펌프때문에 인덕광산에 간다구 했는데요.

△때마침 조갑 자그마한 석유등잔을 손에 들고 나오다 듣는다.

녀인1: 양수기펌프를 구하러 인덕광산에 갔다가 차가 아찔하게 높은 벼랑길에서 댕바퀴 굴며 떨어지는 바람에 이 이마가 두쪽으로 썩 갈라져 죽었다구 영화관 뒤동네랑 소문이 짜해요.

녀인5: 그럴 때나 조가비가 될게지...

조갑: (불쑥 나서며) 누가 죽었다구요?

녀인들: 엉?!

조갑: (다가가며) 도대체 누가 죽었답디까?

△녀인들이 질겁하여 《앗!》소리를 지르자 조갑 뒤로 벌렁 나자빠진다.

조갑: (일어서며) 이 아나네들이 왜 이래? (나가려다.)

산옥: 어딜 가요?

조갑: 어휴— 이 조갑이가 나서야 판을 짤 널판자를 해결할게 아니요.

녀인1: (어이없이 웃으며) 판널을 해결한대.

녀인들: 호호! (웃음을 터뜨린다.)

조갑: (아연해서) 이 아주머니들이 오늘 뭔가 잘못된게 아니야? (발을 구르며 큰소리로)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런 갱충머리들 없다구야.

△웃음을 푼 그친 녀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키득거린다.

조갑: 허참 (한쪽에서 묵묵히 낮만 갈고있는 장로인에게) 장아바이, 아무래두 묘자리는 아바이가 봐주어야겠습니다.

장로인: (시치미를 뻑 따고) 그럭허세, 부위원장묘자리야 좋은데 봐줘야지.

조갑: 부위원장이라니요? (펄쩍 뛰며) 아니, 그럼 우리 박부위원장이지?!

장로인: 거 제발 빠꾸기같은 소린 그만하라구.

조갑: 예?

장로인: 임자가 죽었다는 소리야, 임자가!

조갑: 뭐, 뭐 내가요?!

△녀인들이 폭소를 터치며 달아뺀다.

△조갑은 어리벙벙해하는데 한쪽에서 지켜보

고있던 산옥 나선다.

산옥: 부위원장동무가 말은 수도보수공사가 안 되니 그러지요, 수도물이 안 나오니...

조갑: (불부는 소리로) 말하기야 쉽지요. 양수긴 또 댔수다. 그렇다구 영천강물을 손가락으로 퍼올릴수가 없지 않소. 이것 보시우, 갈증을 느낀다구 우물에 꺼꾸로 뛰어들었다가는 죽습네다. 드레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고난의 행군인데 물이 좀 안 나오는걸 가지구, 쫄쫄...

산옥: 고난의 행군이라구 물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가요? 그러니 부위원장동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수밖에요.

조갑: 좋시다. 죽은 사람하구 말할게 있나요.

산옥: (조갑의 손에 들린것을 가리키며) 그건 뭐냐요?

조갑: 예? 예— 석유등잔이웨다. 요것 좀 보시우. 심지조절기까지 달렸수다. 하두 정전이 되니까 이것두 날따라 발전합네다, 하하...

산옥: (억이 막혀 바라보다가) 그래, 세멘트는 어떻게 댔어요?

조갑: 내 그것때문에 위원장동무를 찾아 예까지 오지 않았소. 도자재상사 량반들이 겨우 한방통 주겠다고는 하는데... 어휴— 운반수단이 걸린데다가 휘발유 한방울두 없다지. 이거야 어디... (손끝으로 이마를 다독인다.)

산옥: (안타까이) 부위원장동무, 지금 전력사정으로 군내공장들은 물론 주민들이 전등불도 보지 못하고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늘날 중소형발전소건설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갑: (마른 입만 다신다.)

산옥: 부위원장동무, 우릴 보고 왜 일군이라고 합니까? 옛날엔 막별이군을 가리켜 일군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선 인민을 위해 손끝에 피가 지도록 일을 잘하라고 일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의 어려움앞에서 이런 등잔불이나 켜들구 동면할게 아니라 심장에 불을 달고 맞받아뿔고나가야 합니다, 맞받아!

조갑: 알겠시다. (나간다)

△기가 막혀 바라보던 산옥 석태집쪽으로 몸을 돌린다.

△한쪽 마당구석에 쌓은 부뚜막우엔 자그마한 가마가 놓여있다.

산옥: 석태, 석태 있어?...

△이때 보꾸레미를 손에 든 순정 들어오다가 자기 집앞에 선 산옥을 발견한다.

산옥: 순정이.

순정: (반색하며) 아니?! 행정위원장동지.

△산옥 돌아선다.

산옥: 순정이로구나.

순정: 안녕하십니까?

산옥: 어디 갔겠니?
△산옥 순정의 손에 들린 보꾸레미에 눈길이나
자 순정 얼른 등뒤에 감춘다.

산옥: 그게 뭐야?

순정: (당황해하며) 아니, 저... 아무것도...

△순정 당황해하다가 보꾸레미에 찐 담배막대기
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산옥: 엉?

△어쩔바를 몰라하는 순정.

산옥: (그를 보며) 장사하니?

순정: (담배막대기들을 보자기에 찌며) 마침 누
가 외상으로 넘겨주겠다기에. 이걸 가지군 《달리
기》는 못하는거구. 《메뚜기》에라도 좀 앉아볼
가 해서...

산옥: (생각깊이 담배막대기를 내려다보며) 너
이러자구 공장에서 나왔구나.

순정: (띠엠티엠티) 위원장동지, 사실... 몇해째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어머니 석태를 저한테 맡겼
는데 제가 동생 하나 뒤받침 못한다면 사람들
이 절보고 뭐라구 하겠나요. 그래 생각다못해 부
끄러운줄 알면서도...

산옥: 너 그러다간 이전에 깨끗했던 네 모습은
다 없어지구 오히려 돈맛이나 들이게 돼. 그럴수
록 조직과 집단속에 더 깊숙이 몸을 잠그어야지.
공장에 하나밖에 없는 기사가 그게 무슨 꼴이야.
공장이 살아야 제집두 산다.

△순정 고개를 떨구며 두손만 마주비빈다.

산옥: (순정의 머리를 가리키며) 야, 그 머리나
좀 빗구 다니렴. 그러다 마음마저 흐트러질라.

△순정 자기 머리칼을 손으로 다잡으며 무색해
한다.

산옥: 그래, 석태가 어떻게 됐다구?

순정: 너무 걱정마십시오. 진료소에서는 영양이
약해서 그리 됐다는데 윤희가 군병원에 데리고 갔
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올겁니다.

산옥: 영양이 약해지다니? 석태가?

순정: ...

△산옥 지체없이 판가마쪽으로 다가가 가마뚜껑
을 열어본다.

산옥: 엉? (아연해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석태
가 이런 길쭉구죽을 먹구?... 그런데두 배가 나와?

순정: 위원장동지, 하루는 우리 석태가 글썽 발
전소건설시공지도원으로 임명됐다고 하면서 날
보고 배뽀를 하나 두툼하게 해달라는겁니다.

산옥: 배뽀를?

순정: 가뜰이나 키가 꺾두룩한데 배마저 훌쩍하
게 들어가게 되면 영양실조환자처럼 보여서 동무
들과 옷사람들의 걱정만 산다는겁니다.

산옥: 그래서?

순정: 하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
면서 《누이, 오늘부터 이 석텐 어제날의 석태가

아니야. 오늘은 좀 어려워도 내 배심 좋게 웃으며
간다.》 이럽니다. (목이 뻐다.)

산옥: (생각깊이) 그래서 배가 나왔겠구나.

△이때 석태와 그의 한쪽팔을 낀 윤희가 나
온다.

순정: (마주가며) 왔구나. 수고했어.

석태: 아니, 위원장동지가?

산옥: (윤희에게) 그래, 군병원에선 뭐라던?

윤희: 영양부족에 의한 시신경위축이래요. 그때
문에 눈이 잘 안 보이면서...

△피로운듯 고개를 돌리고있던 산옥 말없이 석
태의 웃웃단추를 하나하나 벗긴다. 순간 석태의
배에 두른 두툼한 배띠가 나진다.

석태: (멋적은듯 병글거리며) 위원장동지, 전
일없습니다.

△산옥 왈각 쏟아질듯 한 눈물을 애써 참으며
석태의 두팔을 잡고 두무릎을 꿇는다.

산옥: (갈린 목소리로) 석태, 내 군의 호주
로서 너를 낳아키운 어머니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순정: 위원장동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 어떻
게 하나 영양보충을 해주겠습니까.

산옥: (일어서며) 아니야, 자강도의 어느 러관
지배인은 정양소를 꾸려놓고 자체로 생산한 알
곡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양보충을 잘해
준다는데 난 우리 기술자들에게 이걸 해라, 저
걸 해라 파업만 주었지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지
못했어.

석태: 위원장동지,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산옥: 석태, 대나무는 서서 죽는다고 사람은
곳곳이 산 뒤끝이 반드시 있는 법이라 했다. 우
리 조카사위가 정말 장해. 윤희야, 어서 들
어가.

윤희: 내가 방을 덤힐테니까 좀 안정하라고요.

석태: 차 이런, 일없다는데두.

△석태와 윤희 들어간다.

산옥: 순정이, 우리 석태를 잘 돌봐주자.

순정: 예.

△산옥 나가려 하는데 순정이가 찾는다.

순정: 위원장동지, 이번 발전소건설에도 도행정
위원회 광천부위원장동지가 관여합니까?

산옥: 왜?

순정: 그렇다면 시공지도원을 다른 사람으로 시
켜주십시오.

산옥: 그건 무슨 소리야?

순정: 또 억울한 루명을 쓸게 있습니까?

산옥: 루명이라니?

순정: 됐습니다. 상처란 그저 쑤셔야 아프기
만 하죠. ...

산옥: 순정이, 무슨 일인지 솔직히 말해줘. 우
리야 장차 사돈간이 될 사이가 아니니, 응? (순정

인 생 과 재 일

홍 민 식

《오늘을 추억하리》

연극은 끝나고 밤은 깊었어도 잠들수 없구나
래일을 안고산 고난의 행군
엄혹했던 그 나날들이
홍벽을 두드리며 흘러가누나

그 래 일 을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서
인적드문 깊은 계곡에
발전소언제를 쌓으며
그밑에 꿈과 량심을 묻은 사람들

그 래 일 을 안고 쓰러져 숨지면서도
기대결을 떠나지 않은 선반공이 있더라
한줌 통강냉이 썩으면서도
흙마대 돌마대를 지고 달리며
청춘로반을 열어간 돌격대원들도 있었더라

그 래 일 이 멀리 있었던가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너투사의 가슴에 그 래 일 이 있었고
열어뒀 꽃나이로 적의 화점을 막은
영웅전사의 심장도 그 래 일 속에 뿔뿔이 찢어졌
느냐

오늘이 가서 래일이 오던가

바치는 사랑이 없고
애국에 불타는 투쟁이 없이는 오지 않는 래일
오, 래일은

지향으로 뿔뿔이 찢어진 오늘의 값높은 삶
오늘에 산 인생의 영원한 행복

그렇게 어제의 삶들이 떠밀어 오늘이 왔고
그렇게 오늘의 삶들이 불러 래일이 오거니
래일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수 없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지이며 힘!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보람도 래일에 있다는 철리로
가장 값높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삶

그것으로 우리 마음 깨끗하고
그것으로 우리 세월 밝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래일은 아름다워라
우리 조국은 부강하여라

아, 참되게 살자 주인공처럼
래일을 위한 오늘을
후대들 두고두고 잊지 않게
오늘을 추억하리 오늘을 추억하리
가장 떳떳한 추억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을 끌고 집토방에 가서 앉는다.)

△순정 서글픈 미소를 짓더니 할수 없다는듯 이
야기를 시작한다.

순정: 재작년 실패한 저수지공사때였습니다. ...
언제의 중심강토다짐에 언 구간이 있었는데 시공
을 맡았던 우리 석태는 모두 까내고 재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행정위원장이었
던 광천부위원장동지가 일없다고 하자 경쟁열에
들뻤던 사람들은 우리 석태가 없는 사이에 거기다
그저 진흙을 막 처넣었습니다. 결국 물이 새면서
저수지가 터져나가고말았습니다.

그 일로 해서 사고심의회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광천부위원장동지가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

이 없다고 아예 딱 잡아떼는 바람에 우리 석태가
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안고 무보수로동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잊을수 있어
도 우리 석태만은 잊지 못합니다, 석태만은... (말
끝을 흐린다.)

산옥: (순정의 잔등을 끌며) 그런 일이 있었
구나. ...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산옥 일어서더니 깊
은 생각에 잠겨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산옥: 우리 강진이가 어쩌면...

—암전—

(다음호에 계속)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시대의 명작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두고—

김혜숙

국립연극단에서 창조한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극문학 **김일성**상계관인들인 김흥기, 서남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련일 공연되고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연극들을 창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창작창조과정에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여 완성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이 연극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명작중의 명작이라고 하시면서 인간관계설정으로 부터 극작술, 무대미술, 음악, 연기형상에 이르기까지 손색없는 작품,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또하나의 기념비적절작품, 선군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참된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깊은 정서와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이라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연극은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처럼 선군시대 인간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적인생관, 미래관을 새겨주는 훌륭한 교재로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시기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어느 한 산간군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향토애를 보여주면서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명작중의 명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명작창작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최상의 수준에 이른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기념비적절작이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경지에 이른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고상한 내용과 세련된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시기 가장 심각하고 첨예하게 제기되었던 인간문제, 신념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결함으로써 사상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명작이다.

사상성은 문학의 중요한 속성이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첫째가는 기준으로서 그것은 내용과 제기한 문제의 심오성,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관계된다.

고난의 행군시기는 고난이 겹쌓이고 시련이 련이온 엄혹한 시기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웅어리진 슬픔,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 련속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쓰러지고마느냐 아니면 일떠서느냐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고난의 행군은 자기를 지키고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결사의 수호전이였으며 신념과 의지의 강행군이였다.

이 엄혹한 시련을 헤치고 우리 인민이 무엇을 힘으로 하여 일떠섰으며 어떻게 자기와 귀중한 조국을 지켜냈는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간고했던 나날을 긍지높이 아름답게 추억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연극은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은 신념이였다고 대답을 주고있다.

신념문제, 이것은 고난의 행군시기 가장 첨예하게 제기된 인간문제였다. 신념문제는 지난 시기에도 중요했고 오늘에도 래일에도 혁명의 길 전로정에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신념문제는 나 개인의 운명은 물론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검증된다.

연극은 이러한 가장 절실하고 운명적인 신념문제를 제기하고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해명하고있다.

연극은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신념은 어떤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

켜야 하는가, 그 신념은 얼마나 위력한가를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주인공 강산옥은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며 자식을 가진 평범한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든 고난을 겪는다. 어린 딸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괴로움, 지어 그 딸을 잃게 되는 가슴찡기는 슬픔, 힘겨울 때면 안타까워 하소연도 하는 이러한 소박한 녀인이 군이 살아나가는 길을 열려고 발전소건설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발전소건설장을 떠나지 않은 새 세대 청년기술자 석태기사, 가보인 재봉기를 팔아 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 봄순이 할머니, 장사길에 나섰다가 공장이 살아야 가정도 산다는 자각을 안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녀기사 순정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간호원처녀 윤희, 이런 평범한 인간들이 강산옥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였다.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래일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배짱을 가질수 있게 한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나 어린 주인공들이 대답한다.

《우리 엄만 텔레비존에서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만 하루빨리 발전소가 돼야 한다고 했어. 전기불이 와야 텔레비로 매일 아버지장군님을 뵈올수 있다구...》

《맞아. 아버지장군님만 뵈오면 배 안 고파.》

나 어린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동심비끼인 이 말은 고난의 행군길에 선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내린 뿌리였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다, 우리 장군님을 뵈옵고싶은 절절한 그리움, 이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이 지닌 역센 신념의 뿌리였다.

연극은 이 뿌리에서 역세게 자라난 신념은 어떤 것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군살림살이를 떠안고 너무도 힘에 부쳐 걱정하는 강산옥에게 군당책임비서는 조용히 일러준다.

한가정의 일도 바로잡지 못해 모지름을 쓸 때가 많은데 온 나라 가정을 다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는가, 불꺼진 거리와 숨죽은 공장을 지나 허거저 쓰러진 인민을 보시면서 철령을 넘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이야 오죽하시겠는가. ...

주인공이 눈물속에 받아새기는 군당책임비서의 이 말은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분, 자나 깨나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모든 가슴아픔을 마음속에 묵묵히 묻어두시기만 하시는 장군님의 심정

을 깊이 새겨안은 우리모두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려는 주인공과 우리 인민모두의 신념의 목소리였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절한 그리움, 이것이 우리 주인공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눌지 않는 신념의 밑뿌리였다. 시련이 겹쌓이고 고난이 클수록 우리 주인공들의 장군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어졌고 그리움은 더더욱 절절해졌다. 그래서 배짱도 커졌다.

연극은 우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이런 혁명적신념, 이런 배짱이 우리 주인공들이 힘들고 배고파 쓰러졌다가도 불사신마냥 일떠서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신념은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준다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연극은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명작중의 명작이다.

신념은 래일을 본다는 말이 있다.

신념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미래를 사랑하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을 모른다. 신념은 가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신념, 한번 먹은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신념을 지켜 끝까지 가보아야 진짜 그의 신념을 알수 있다.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투쟁하고 창조하고 전진하는 인간이 진짜배기 신념의 강자이며 래일을 앞당기는 사람들이다.

연극에서 주인공들은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 하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을 지니였기에 고난을 박차고 불사신마냥 일떠섰으며 그 나날들을 긍지높이 추억하게 된다.

참으로 혁명적신념이야말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생관을 가지게 하고 결사의 각오로 만난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로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신념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

연극은 보면 볼수록 승리자의 희열과 랑만, 혁명하는 진짜 보람을 가슴뿌듯이 안겨준다.

연극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래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인간은 오늘을 떼떽이 추억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에게는 쓰러린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

사랑하는 딸애를 잃은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짓부시며 끝끝내 발전소건설을 성공시키는 강산옥과 석태, 윤희, 순정이, 세철이,

우리 장군님 계시여 꼭 잘살 날이 온다고 말하는 로당원 봄순이 할머니, 옷가지나 쌀이 아니라 랑만과 힘을 안고오는 군인들, 연극의 주인공들은 슬픔도 죽음도 이겨내며 언제나 곳곳이 일어선다.

연극은 신념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시련앞에 굴복하며 혁명의 원칙을 꺾버린 패배주의자, 의지박약자들에게는 쓰라린 후회만이 있고 오늘을 추억할 권리조차 없다는것을 광천 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갑 군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 심각하게 밝혀주고있다.

발전소건설에서 관건적인 철탑문제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관광지건설을 주장하며 비판과 처벌이 두려워 철탑문제를 우리 장군님께 제의서를 올려 해결하려는 무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광천부위원장,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고 하며 먹을알이 있을 때에는 몸전체가 입이 되고 불리할 때에는 꼬리를 사리는 인간, 이른바 살아갈줄 아는 사람, 군중이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요령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인 조갑 부위원장, 시련앞에 겁을 먹고 주저앉는 이러한 패배주의자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런 너절한 인간들은 패일을 모르며 먼 후날에 성스러운 오늘을 추억할수 없음을 보여주고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너절한 인간, 인민의 비난을 받는 존재로 되었던 두 일군의 형상도 혁명적 신념의 철학을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연극은 이처럼 인물들의 생동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우리 장군님의 인생관을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간직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배심있게 웃는 강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동요하는 패배주의자가 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장군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혁명적신념이 변치않는 사람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이 또다시 닥쳐온다 하여도 연극의 주인공들과 같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승리자가 될것이다.

연극은 이 심원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낸것으로 하여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명작으로 되었다.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높은 사상성과 함께 예술성 또한 최상의 수준에 이른 명작이다.

예술성은 문학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예술성이 없으면 작품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예술성은 형식의 질적수준과 관련된다. 형식이 특색있고 세련되어있을수록 고상한 예술성이

가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형식의 모든 요소들이 세련되어 최상의 수준에 이름으로써 예술성이 높은 명작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이 연극은 인간관계설정으로부터 극작술, 연출, 무대미술, 효과, 음악, 연기형상에 이르기까지 손색없는 작품,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결작이다.

연극의 세련된 형식가운데서 인간관계설정 하나만 놓고보아도 최상의 수준에 오른 연극형상의 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연극은 신념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준다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설정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결하였다.

연극에서는 사상적으로 대치된 인물들의 관계를 혈육의 관계로 설정하고있다. 이러한 특색있는 인물관계는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깊이있게 전형화하고 첨예한 극성을 조성하여 작품의 내용, 신념의 철학을 더욱 뚜렷하게 밝혀낼수 있게 하였다.

작품의 주인공인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산옥과 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광천은 누이와 동생관계이다. 그들은 다같이 당정책관철을 조직지휘해야 할 군과 도의 책임일군들로서 생산실무적인 관계이면서 혈육의 관계이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모를 다 잃고 뜻하지 않게 헤어져 수십년세월 생사여부를 모르고 지내왔다. 이러한 그들이 발전소건설을 놓고 의견이 서로 다른 두 일군이 되어 충돌한다.

강산옥은 수십년세월 애타게 찾고찾던 동생이 일시적인 난관앞에 굴복하여 동요하는 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불려야 했으나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를수 없게 된 강산옥의 기막힌 심정, 서로 대치된 두 일군, 오누이의 모습은 혁명적인생관의 차이가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사회주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임을 절감하게 한다.

저수지공사의 실패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썩은 무서운 리기주의자, 난관이 조성되자 발전소가 아니라 관광지를 꾸리자는 동요분자, 비판과 처벌이 무서워 철탑문제를 우리 장군님께 제의서를 올려 해결하려는 배은망덕한자, 이런 동생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누이 강산옥은 상봉의 정이 아니라 격분에 차서 준절히 말한다.

《…우리가 뉘덕에 살아났구 오늘은 나라의 일

군으로까지 자랐게... 저한테 유리할 땐 자식이 되고 불리할 땐 남이 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탄끔을 꾸구, 그렇게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니? 너같은 일군들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험한 길을 더 많이 걸으셨다. 바로 너같은 일군들때문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차디찬 눈비를 더 많이 맞으시는거야.》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강산옥은 40여년 만에 만나게 된 친동생이지만 혈육의 정에 겨운 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민의 목소리로 준절히 규탄한다.

오누이의 이 극적인 상봉장면은 사람이 일시적인 난관앞에 동요하고 자기보신에 빠지면 나중에는 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고 사회주의존엄까지 잊고 사는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는것을 새겨안게 한다.

연극은 사상적으로 대치된 두 인물을 혈육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오누이의 극적인 상봉장면 하나로 극을 집중화하면서도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폭넓게 보여주었으며 광천이의 개조과정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혈육이라는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연극은 사건들을 그대로 감정조직으로 일관시키고 인물들의 운명을 명백하게 처리하여 작품이 제기한 신념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었다.

연극에서는 조부위원장과 아들 세철이와의 관계도 혈육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량면주의자, 보신주의자인 그의 개변과정을 극적인 변화로 함축성있게 그리면서도 설득력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강산옥과 송희와의 관계도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딸의 모습에서 그자신뿐아니라 주인공어머니의 신념과 의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더욱 돈구어낼수 있었다.

연극은 이처럼 중심인물들의 인간관계를 혈육의 관계로 맺어줌으로써 혈육의 정에 비긴 극성을 보다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심화시킬수 있었다.

연극에서 혈육의 관계라는 특색있는 인간관계는 연극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함축하면서도 실감있고 감동깊게 엮을수 있게 하였다.

혈육의 관계인것으로 하여 광천이를 규탄하는 강산옥의 목소리가 더욱 격렬할수 있었고 광천이의 뉘우침과 개조되는 과정을 따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다. 막돌 한개라도 발전소언제에 놓고싶어 외국에서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아들 세철이의 말에 동면하던 아버지 조갑부위원장의 자기를 뉘우치는 생활이 없어도 무방했다.

주인공과 딸 송희의 관계는 주인공의 성격은 물론 시련에 찬 이 시기의 면모를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있다. 텔레비존에서 우리 장군님을 뵈고저 발전소완공을 갈망하며 어머니가 준 쌀을 석태기사에게 주고 조용히 눈을 감는 송희, 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나가는 강산옥의 모습, 이런 관계는 신념을 지켜가는 길에서의 값높은 희생은 추억에 영원히 남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더욱 사무치게 새겨주었다.

특히 연극에서 절정을 이루는 장면은 작품의 마감처리도 잘하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주인공 강산옥은 군중들에게 말한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이였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어 흠집을 지면서도 래일을 생각하고 굶어 쓰러지면서도 래일을 그리고 모진 마음속 고통을 겪으면서도 래일의 승리만을 위해 불사신처럼 일떠서 싸웠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었으며 것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날에는 장군님을 따라 헤쳐온 오늘을 긍지높이 추억하게 될것이다.

실로 잊을수 없는 시련의 그 언덕에서 래일의 인생판으로 조국과 혁명을 구원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전하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들은 승리의 한길로만 가고갈것이다.

연극은 이외에도 인물들의 대사속에 울리는 생활적인 몇마디 말로 고난의 행군시기 모습을 보여준것이라든가, 종자의 요구에 맞게 고등어국이 야기, 우물가장면을 설정하여 어두워질수 있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신심에 넘친 락천적인 생활정서로 보여준 양상, 충격과 여운이 강한 설화, 생활적인 대사 등으로 작품의 풍격을 돈구고있다.

연극은 사회주의수호전은 붉은기의 수호전이였다는것을 암시하며 붉은기를 추켜들고 서있는 장엄한 군상들과 고난의 행군의 간고성을 상징하는 군상을 보여주는 서장을 비롯한 무대미술과 배우연기, 음악과 음향 등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 연극의 종자해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연극은 참으로 사상성은 물론 그 예술성이 최상의 높이에서 결합된 명작중의 명작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김일성**상계판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선군시대 명작들을 더 많이, 왕성히 창작해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심장은 사랑으로 뜨겁다

김 경 일

단풍이 타던 가을은 먼산너머 사라져가고있었다. 굵이쳐간 철령산줄기의 깊고낮은 골마다 안개가 끼였다가는 누기진 찬바람에 가뭇없이 훑날리곤 했다. 그러다가 때이르게 희끗희끗 첫 눈발이 날렸다. 강원도 고산땅에 굴지의 청춘과원을 일떠세우고있는 618건설돌격대가 벌써 두번째로 맞는 겨울이다.

지난해 첫 겨울은 돌격대원들에게 얼마나 시련에 찬 계절이었던가.

바위처럼 얼어붙은 땅, 모질게 붙어치는 칼바람, 정대와 함마로 뜯어낸 절토벽들, 셀수없이 메워온 골짜기와 웅덩이들, 새봄을 맞으며 피땀을 바쳐 넓혀온 호원들에 지지대를 세우고 어린 과일 나무모들을 심으며 처녀돌격대원들은 모진 시련을 이겨낸 걱정과 겨워 흐느껴울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험했다. 금시 닥쳐온 이 겨울은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벅찬 사연들을 이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줄것인가. ...

심장의 무게

김세근려단장은 급히 살림집건설장으로 가고있었다. 지난밤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대대에서 두개 호동의 내부미장이 말짱 일어 재시공을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차에는 며칠째 려단을 취재하고있는 신문기자인 김형춘이 함께 타고있었다.

평안남도려단은 방대한 토지정리과제와 수십여

동의 1단계 살림집건설과제를 수행하고있었다. 이제 거의 완공단계인데 뜻밖의 일을 빚어낸것이다.

한줄한줄의 세멘트며 소석회가 어떻게 마련된것 이기에... 불현듯 그의 눈앞에 지난해 가을 공사에 진입하던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

백두산지구에서 위훈을 떨치던 618건설돌격대는 고산과수농장을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새 전투장으로 기동전개하였다.

지휘성원들의 회의에서는 수천정보의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살림집 및 공공건물건설과제가 제시되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들이 논의되었다.

려단정치부장 김길운과 함께 이 회의에 참가한 김세근의 마음은 무거웠다. 방대한 공사과제였다. 필요한 설비들과 자재소요량은 상상을 초월했다. 려단이 맡은 토지정리과제만도 아름찬데 1차적으로 맡은 살림집을 짓자고 해도 수백톤의 세멘트가 있어야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많은 세멘트를 보장해낼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멘트가 없으면 우선 첫걸음을 땔수 없는것이 아닌가.

깊은 밤, 답답한 심사를 달랠길 없어 밖으로 나오자 선뜩한 눈바람이 휘익— 얼굴을 스쳤다. 얼핏 바라보니 김길운정치부장의 방에도 불빛이 환했다. 지금까지 헤치기 어려운 고비때마다 눈이 확 트이는 해결책을 내놓고 완강한 투지와 실천력으로 억척스럽게 승리를 떠밀어온 김길운정치부장이었다. 그래서인지 김세근의 발걸음은 절로 그리로 옮겨졌다.

그의 방에 들어서던 김세균은 무뎌 놀랐다. 무슨 도면들과 계산지들이 잔뜩 널린 책상앞에 마주 앉은 김길운이 전자수산기와 씨름질하고있었던 것이다.

김길운이 의아쩍게 눈을 치뜨며 물었다.

《려단장동무가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쉬지 않구.》

김세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뿜듯 말했다.

《잠이 다 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에. ... 어쨌으면 좋을지...》

김길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는데 말뜻은 전연 달랐다.

《려단장동무, 우리 려단이 하자고 결심해서 못 해낸 일이 있었던가요?》

김세균은 고개를 돌렸다. 려단의 연혁사에 아로 새겨진 지나간 나날들의 떼떼하고 긍지스러운 사연들을 그가 왜 모르랴!

그가 려단장으로 오기 전의 일이었지만 려단은 일찌기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고귀한 추억을 간직하고있다. 그뿐이라. 삼수발전소 언제체를 쌓을 때에는 자력갱생으로 만단을 이겨내며 제일먼저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하루성토량을 몇배로 경총 끌어올리며 돌격대의 앞장에서 나아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으나 돌격대원들은 때없이 그 나날들을 뜨겁게 추억하곤 한다.

김세균은 빨라지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다우쳐물었다.

《정치부장동무에게 어떤 묘안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우선 대용자재를 써보면 어떨까요? 석회석 매장지를 타고앉아 석회로를 건설하고 소석회를 팡팡 생산해낸다면? 사실 소석회가 깜짝 놀랄만한 대용품은 아니지만 많은 세멘트를 절약할수 있지요.》

김세균은 모지름의 흔적이 력력한 계산지들을 번져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다음날 려단지휘관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상세히 토론되었다.

며칠후 수습여리 떨어진 고산군 혁창리에서 석회석산지를 찾게 되었다. 이곳 농장에서는 소석회를 생산하여 군안의 여러 농장들에 공급하고있었다. 김세균과 김길운이 만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펄쩍 놀라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주변농장들에 석회를 공급해야 하는데 계획을 겨우

맞춘다고 했다. 그러니 어떻게 돌격대에까지...

김세균은 그들을 설복하다못해 두손을 들고 나앉았다. 곁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던 김길운이 별안간 김세균을 돌아보았다.

《려단장동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로력으로 석회석을 캐서 여기 농장과 다른 농장들에게도 공급해주면서 우리자체로 로를 쌓고 소석회를 구워내자는겁니다.》

김길운의 표정은 진지했고 날카롭게 세모진 그의 두눈엔 범접하기 어려운 결단과 확신이 어려있었다.

관리위원장이 미심쩍은 어조로 말했다.

《평안남도려단이 아무리 힘있기로 소문난 부대라고 해도 돌격대에서 필요한것도 보장하기 힘들텐데 우리 농장에까지...》

김길운은 채찍으로 휘가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자기가 한 말은 몸이 열쪼각나도 지킬줄 아는 사람들이요.》

뒤미처 김세균이 결심을 내리고 다짐을 두었다.

《그것때문이라면 마음놓으시오. 여러말 하지 맙시다. 래일중으로 로력과 설비를 전개하는것으로 락착합시다.》

돌격대원들은 첫날 한것동안에 발파구멍을 100여개나 뚫고 첫 발파를 했다. 단번에 40여립방메터의 석회석이 몽청 떨어져나왔다. 이 량이면 10톤급대형화물차 열차분에 해당한다. 지켜보던 농장일군들이 깜짝 놀라 굳어졌다.

한편 려단은 농장보다 두배나 큰 석회로를 건설하였다. 높은 열에 익어 한결 가벼워진 생석회돌들이 우박처럼 떨어져내렸다. 로앞의 적재장에는 며칠사이에 눈처럼 하얀 소석회무지가 높이 쌓였다.

한달후 려단지휘부 바로 뒤마당에 두기의 석회로를 더 쌓았다. 끝내 그 어떤 건설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는 훌륭한 토대가 마련된것이다. ...

김세균이 현장에 당도하니 대대장 김정익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잘하누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더니 어떻게 대대장이 있으면서 두동씩이나 통채로 열구는가 말이요!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도 전인데, 웅?》

문제의 호동에 들어선 김세균은 손으로 미장면들을 쓸어보았다. 모래마냥 부슬부슬 흩어져내렸다.

《보온대책이 없으면 작업을 중지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요, 이제!》

이때 김길운이 방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눈

에 먼저 뜨인것은 방바닥 한가운데 남은 모닥 불자리였다. 그는 대대장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원들에게 밤작업을 시킨게 아니요?》

《공정별계획을 맞추자니 별수 없었습니다. 한 개 소대만 남아서...》

김길운은 대대장의 얼굴을 지그시 응시했다.

《내 이미 말했지? 대원들을 야간작업시키는 지휘관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난 동무가 자기 무능력을 대원들을 혹사시켜 보충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창문도 없는 이런 한지에서...》

대대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입이 열개라 해도 할말이 없었던것이다. 물론 느닷없이 닥친 추위였으나 지휘관은 온갖 정황을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문득 김세근이 입속말처럼 나직이 말했다.

《나도 욕은 했지만 갑자기 달려든 추위를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아직 천장도 누르지 못한 형편이니...》

자제하듯 잠시 침묵하던 김길운이 준절히 말하였다.

《려단이 삼자연군문화회관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동무들도 들어서 알테지? 수십메터의 덩치큰 건물을 비닐막과 나래로 통채로 휘감고 겨울내내 혼합물작업을 했소. 집 한두채의 보온이 대체 뭐요. 그리구 대원들에게 밤작업을 시키는 문제로 말하면 이건 내 요구이기 전에 우리 돌격대원들을 친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란 말이요. 이걸 명심해야겠소. 지휘관은 작업과제를 보기 전에 대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하는거요.》

돌아서다가 문득 김형춘의 얼굴을 띠여본 김길운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판에 기자동무까지... 결합자료취재감으로나 되겠는지...》

... 오후에 김형춘은 토지정리전투장에서 김길운 정치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춘이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려단의 중기계력량이 이렇게 막강한줄은 짐작 못했습니다.》

평안남도려단이 맡은 호원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풀떡이는 붉은 심장마냥 세차게 나뭇기는 기발들, 맹렬히 기운을 쓰며 동음을 울리는 불도젤들과 굴착기, 대형화물자동차들...

김길운은 집채같은 흙더미를 밀며 용을 쓰고있

는 불도젤들을 가리켜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저 대형불도젤들이 바로 우리 려단의 중기계도입을 추동한 화불이었지요. 삼수발전소건설때에도 돌격대원들이 아직 마대를 메는것을 보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굴착기들과 대형화물차들이 얼마나 큰일을 했소.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오후부터 다시 불어치기 시작한 뽀얀 눈보라속에서 손달구지들을 밀고당기며 달리는 돌격대원들이 부르짖는 힘찬 구호의 웨침이 자동차들의 동음과 함께 철령의 하늘가 멀리로 울려퍼져갔다. ...

김세근이 형춘과 다시 만난것은 늦은 저녁 자기 방에서였다.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평안남도려단이 펼치는 위력의 요인을 조금이나마 파악했다고 할지. ... 그 어떤 물질적손해보다 대원들에게 끼친 자그마한 불편을 더 크게 보는 그 마음이 집단의 힘을 낳는 요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형춘의 말을 들으며 김세근은 차거운 눈바람이 창유리를 때리는 어두운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마음은 저으기 복잡했다.

어째서 자기는 남흥대대가 야간작업한 흔적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던가. 평시에 김세근도 지휘관으로서, 일군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사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가끔 오늘과 같이 김길운정치부장의 모습에 거울처럼 제모습이 비쳐질 때 그는 자신의 실체와 자부심간의 모순을 은연중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참다운 자부심이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확신, 그에 따른 대중의 진심어린 사랑과 존경이 폐부로 우러나오는 자부심이 아닐까?...

《하지만 아침에 보다싶이 나를 포함한 우리 일군들에게 아직 부족점이 적지 않지요. 지휘관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뜨겁고도 진실한 애정을 지녀야 한다는겁니다. 열렬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경량급이지요. 사랑의 크기가 바로 그 일군의 심장의 크기라는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정치부장동무가 한 말입니다.》

형춘은 생각깊은 얼굴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에 지닌 사랑의 무게가 바로 그 인간의 무게이고 가치란 말이지요?》

《아침에 욕을 먹은 남흥대대장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실 이번에 실수는 좀 했지만 정치부장동무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초급지휘관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도 많이 했고 자기 대원들을 아끼는데서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지요. ...》

사랑속엔 겨울이 없다

형준이 아예 잠자리를 대대로 옮겨오자 김정익은 허거프게 웃었다.

《내가 육을 얻어먹는걸 보셨지요? 정말 비판자료취재를 온게 아닙니까?》

형준은 싱긋 웃으며 《아니라고 딱 잡아떼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며칠 지내면서 인상을 개선해 봅시다.》 하고 한수 더 뻘었다.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다.

《참 러단장동지도 애착을 담아 말쑥하더군요. 전번 일은 어쩔수 없는 실수였다고, 대원들이 무척 따르는 인정깊고 능력있는 지휘관이라구요.》

김정익은 웃음기를 거두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어쩔수 없는 실수였다고요. 그게 정말 실수였을가요?...》

김정익의 눈가에 짙은 추억의 그늘이 비껴갔다.

《참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글줄로 추억속에 새겨진 고산땅의 첫 겨울!

눈이 오기 전까지 이 고장 특유의 세찬 먼지바람이 온 전투장을 휩쓸었다. 세차게 몰아치는 광풍, 잠시도 잦을새없이 후려치는 먼지와 모래의 모진 광란속에서 돌격대원들은 절벽을 헐고 골짜기들을 메워나갔다.

어느날 저녁 러단의 대대장이상급 지휘관회의때였다. 하루사업정형이 총화되고 모임이 끝날무렵 느닷없이 김길운이 김정익을 불렀다.

《하나 묻지요. 지금 직일판을 서는 동무 나이가 스물일곱이 쏘소?》

김정익은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예?!... 예, 나이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구 후방참모는 스물여덟살... 맞소?》

김정익의 량미간에 은연중 긴장이 왔다. 조심해야 했다. 정치부장의 아무것도 아닌듯 한 물음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어처구니없이 난처한 립장에 빠졌던 경우가 몇번인지 모른다. 대체 무슨 일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봐선 잘 모른다는 뜻인데...》

김길운은 잔조롭히 좁혀쁜 눈가에 웃음기를 머금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세상 찬찬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제가 아끼는 대원들의 나이도 모른다는게 말 되나. 내 심중에 짊어볼 여유를 얻으려고 피를 쓰는거지.》

장내엔 가벼운 안개마냥 웃음발이 퍼져올랐다. 김길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듯 심상히 말을 이었다.

《확실히 남흥대대는 지휘부력량이 그췌하지. 젊고 희어털쑥하고... 현대 작업현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스무살전의 애어린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많은 대원들도 적지 않소. 이게 집단의 룰리로 보나 의리로 보나 리치에 맞소?》

김정익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정치부장의 말은 론박할 여지없이 정확했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였다. 비단 남흥대대에만 한한 현상이 아니었던것이다.

《지휘관은 어떤 경우에도 린색한 겨울해빛이 되여선 안되오. 지휘관의 사랑엔 겨울이 없어야 하는거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을 차별없이 뜨겁게 품어주는 여름이 되여야지. 지휘관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고 뜨거우면 엄동설한에도 대원들이 추위를 잊게 되는거요.》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에 속속들이 젖어들었다. 정익은 대대로 돌아오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터쳤다. 대체 정치부장이 언제 대대일을 손금처럼 파악할수 있었는가.

청춘시절 최전연에서의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김길운은 신 고개를 넘어선 오늘까지도 후리후리한 키에 어떤 타격에도 부서지지 않을듯 한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있었다. 체력 못지 않게 성미 또한 결패사나웠다. 그 어떤 불의도 참아내지 못하는 그의 칼 끝같은 성미는 이미 온 돌격대에 잘 알려져있었다.

사실 정익은 침착하고 내성적인 성격때문인지 그처럼 펄펄 끓는 다혈질의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거부감을 품고있었다. 그러나 정익은 자기가 차츰 그에게 남다른 애착과 존경을 느끼고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내보니 그의 내면세계는 퍼그나 다채로웠다. 완강한 실천가형인가 하면 쉽게 따를수 없을만큼 사색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마음속 깊이엔 한없이 진실한 인간미가 맑은 샘물처럼 출렁이고있었다.

정익은 어느새 그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익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련만 김길운은 자주 그에게 불만을 보였다.

어느날 토지정리현장에 나와 중기계들의 가동정형을 알아보던 김길운의 눈에 다리를 저는 한 대원의 모습이 띄어였다.

《가만, 남흥대대 기타명수지? 이름이 중국이던가?》

총각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는게 너무 기뻐

금시 얼굴이 불깃해졌다.

《예, 한종국입니다.》

《음, 언제 봐야 일하는 본때도 기타숨씨에 못지 않아. 헌데 다린 왜 저나?》

《별치 않습니다. 어제 산에서 화목을 하다가 눈비탈에 그만 미끄러져서...》

《화목?... 어제야 돌격대적인 휴식일인데 화목이라니?》

사실은 대대전체가 휴식을 못한것은 아니고 전날 전투계획을 미달한 한개 소대에만 자극을 주는셈으로 화목작업을 시켰던것이다.

정익은 부지불식간에 번개와 퇴성을 머금은 소낙구름이 낮추 드리우고있음을 간파했다. 아닐세라... 저녁에 김길운은 무섭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난 대원들을 제 살붙이처럼 아끼는 지휘관에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 심정ियो! 그런데 수고한 대원들에게 휴식일에 화목작업을 시킨단 말이요? 과연 동무에게 지휘관자격이 있는가? 지휘관은커녕 초보적인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의리가 있는가 말이요? 대원들한테 용서를 받기 전엔 다시는 내앞에...》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밤 김길운은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어서도 좀체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고 한다. 모진 질책을 당하고 고민과 자포자기에 빠져 괴롭게 뒤척거릴 정익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려서였다.

끝내 참지 못하고 김길운은 모두가 잠든 야밤삼경에 러단지휘부에서 한참이나 떨어져있는 남흥대대를 찾아뵈었다. 《에이, 그것도 귀한 내 새끼인데 밤잠을 못 자게 할수야 없지. 풀어주어야지.》 하는 말을 가끔 중얼거리며...

그런데 그가 어둠속을 더듬어 대대에 도착했을 때 정익은 마실줄도 모르는 화술을 단김에 한고뿌나 들이키고 이미 잠들어버린 뒤였다. 다시 되돌아오며 김길운은 혼자소리로 《젊음이 좋긴 좋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잠만은 제때에 달게 자는군.》 하고는 허허 허거픈 웃음을 웃었다.

다음날 아침시간에 김길운이 다시 남흥대대의 작업장으로 왔다.

정익은 미안스러워 마주보기 어려웠으나 김길운은 내색없이 정치지도원에게 전투속보의 내용을 보다가 동성있게 할데 대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얼핏 생각난듯 정익을 돌아보았다.

《참, 어제 저녁 뭘 좀 토론해볼가 했는데 자더구만. 난 대대장이 나처럼 밤잠이 적은 사람이라길래 그럴사하게 여겼더니 뜬소문이란 들을게 못되더군.》

정익은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모처럼 오셨했는데 제가 그만...》

김길운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젓고나서 작업장 한곳을 가리켜보였다.

《저 처녀가 금방 돌격대에 나왔을 때 엄마가 보고싶어 밤마다 이불속에서 울곤 했다는 은실이지? 이젠 함마질숨씨가 제법 여물었구만, 음, 정말 용해.》

언제 봐야 김길운의 기억력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것만 같았다. 그는 한번 뇌리에 새긴 대원들의 이름을 거의나 잊어버리지 않는듯 했다. 모임때마다 그는 꼭꼭 이름을 짚어가며 어느 대대의 누구누구는 작업신이 낡고 누구누구는 장갑이 없으며 어느어느 처녀는 수건이 변변치 않아 불이 열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지휘관들이 얼굴을 붉히게 했다. 자기들이 미처 몰랐던 경우가 더 많았던것이다.

저녁중으로 러단후방참모는 그 대대들에 필요한 장갑이며 작업신을 추가로 공급하군 했다. 그러니 대원들이 어찌 좋아하지 않으랴!

김길운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들었다.

《내 생각 좀 해보았는데 이런걸 만들어보면 어떨가?》

그는 자기가 생각한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무척 간단하기는 해도 착상이 기발하였다. 토공사에서 제일 힘든 일은 삽으로 상차하는 작업이였다. 대대마다 수십여대씩의 손달구지를 도입하다나니 상차공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것은 물론 수레가 차레를 기다리는 헛시간도 적지 않았다.

이틀만에 나무상차기가 설치되였다. 미리 흙밥을 담아놓았다가 손달구지를 들이대면 축이 달린 상차대를 량쪽에서 동시에 기울여 쏘는 작업공정의 결과는 생각했던것 이상이였다. 하루 수십립방씩이나 실적이 쟁쟁 뛰어들었다. ...

퍼그나 밤이 깊어서야 정익은 형춘과 나란히 자리에 누웠다. 누워서도 그들은 한동안 더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리 애써도 훌륭한 지휘관이 된다는건 참 쉽지 않은 일인것 같습니다.》

정익의 말에 형춘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결국은 흥내낸다고 닳는건 아니란 말이지요? 하지만 대대장동무 역시 언제나 사랑으로 심장을 끓일 때 정치부장동지처럼 모두의 사랑과 존

경을 받게 될겁니다. 난 대대장동무를 믿습니다.》
《정말 우리 부장동지는 쉽지 않은 일군입니다.
건강하지도 못한 몸인데...》

문득 형춘이 몸을 숙구쳤다.

《정치부장동지가 앓습니까?》

《려단군의소 간호원인 수정동무의 말을 들어
보니 병세가 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매일 현장
에 나와 뛰어다니고 불러일으키고 하니 무쇠인들
견디겠습니까. 제일 추위가 심했던 며칠전엔 이
런 일이 있었습시다. 우리 대대의 새침데기인 소연
이란 처녀가 일하다말고 불췌 부장동지쪽으로 뛰어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난 심장이 덜컥했지만 미
처 말릴새도 없었지요. 소연이는 총총히 달려가
더니 부장동지의 목에 제 수건을 풀어 걸어주더군
요. 자기도 두볼이 온통 새빨강게 얼어가지구두...
정치부장동지가 환자라는걸 그도 알고있었지요. 난
불시에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에 들
으니 부장동진 수건을 소연이의 얼굴에 다시 꼭 씌
워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더 힘껏 일을
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지 않게 해주
마.> 하는 말을 몇번이고 곱씹었다고 합니다.》

정익은 새삼스레 목이 메여와 말끝을 흐렸다.

문득 그는 기자의 두눈에도 맑은 물기가 서서히
고여오르는것을 띠어보았다.

참된 심장은 병들지 않는다

려단군의소 간호원인 리수정의 나이는 스물아홉
이었다. 그가 돌격대에 탄원한지도 벌써 5년... 참
으로 세월은 따라잡기 어려운 날새와도 비길만 하
다. 사연도 많았던 그 나날들이 어찌면 그리도 빠
르게 눈앞을 스쳐지나간것일까. 하지만 그는 결코
흘러간 나날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의 청춘시
절을 영원히 자랑스럽게, 떼떽하게 추억할 하나의
희망을 일생토록 간직하는것— 고난이 막아서고
시련이 다가들어도 과감히 헤쳐나가며 한생을 하
루같이 푸르른 희망속에 산다는것은 더없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인것이다.

아, 꽃 피고 향기 넘치는 청춘과 원에
아버지장군님을 모시였으면! 드넓은 과일나무호원
마다 향기로운 열매 주렁질 해빛밝은 가을날 우리
장군님을 모시였으면!...

지금은 이해의 마지막달이다. 동터오는
2011년! 희망과 념원이 꽃피날 새해! 얼마나 하
많은 이야기가 날과 달들에 새겨질것인가!...

오후내내 개천시대대와 양덕군대대의 전투장
들을 돌며 치료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수정은 설원

겨울별이 비쳐드는 군의소창가에 앉아 파스한 상
념에 몸을 맡기고있었다. 문득 가까이 지나쳐가는
젊고 탄력있는 기자의 모습이 보였다.

수정의 입가에 서글픈 빛이 떠올랐다. 저 사람
은 술한 돌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만나 려단이 이
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것이다.

(그런데 그는 알고있을가? 밤마다 부장동지가
허리를 부여잡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동통에 몸부
림친다는것을, 얼핏 선잠에 들었다가는 다시 깨여
나 모진 아픔을 참으며 교박 몇시간동안 새날의
사업을 구상하고 작전한다는것을...)

몇해째 치료해오는 수정이만이 김길운부장의
병상태에 대해 손금처럼 환히 알고있었다. 처
음 그의 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던 그때가 언제
였던가. ...

삼수발전소 언제체공사가 거의 끝나가던
2006년 초봄이었다. 김길운의 당뇨병과 추간판탈
출증, 고혈압증세가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기운이
세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얼굴과 다리에 부종이
오는 일이 잦아졌고 매일 현장에서 려단장이나 참
모장과 함께 공사를 지휘하는 도중에도 때없이 핑
머리를 휘젓는 현훈증을 느끼군 했다. 그는 한번
도 자기 몸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았으나 도병
원에서 일하다가 한해전 돌격대에 탄원한 수정이
예민한 직업적감각으로 제일선참 정치부장의 불편
한 몸상태를 알아차렸다.

어느날 수정이 김길운에게 조심스레 내비쳤다.

《지금 숨이 가쁘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하구
어지럼증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흠, 신통한데... 의사들은 참 마술사 한가지라니
까.》

칭찬인지 비양인지 종잡기 어려운 김길운의 말
투엔 아랑곳없이 수정은 그의 얼굴이며 손의 부종
상태를 관찰했다. 그리고는 말없이 치료가방을 열
고 청진기며 혈압계를 꺼내 책상우에 벌려놓았다.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보다 혈압차이가 더 커
지고 빈맥도 심합니다.》

김길운은 심상히 고개를 끄덕이며 석심한 어조
로 말했다.

《육체도 병과의 싸움에서 단련이 돼야 면역이
강해지는 법이요. 나보다도 승헌자재과장이랑 병
약하고 나이많은분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겠소. 꼭
꼭 검진도 하고 투약도 제때에 하고...》

이때 방에 들어선 정치부부장 김금철에게 김길
운이 문득 물었다.

《이번 휴가때 집에 가서 옥연이와 흥근이가 결
혼식을 하고 온걸 알고있소?》

《예, 갈 때 귀찮조차 안했다고 제가 흥근이에 게 섭섭한 소릴 좀 했습니다.》

리옥연은 지휘부 취사원으로 일하는 처녀였고 한흥근은 후방부 경운기운전수였다.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사랑이 싹터 얼마전 그들은 휴가차로 집에 간 기회에 가정을 이루었던것이다.

김길운은 한동안 잠잠히 창문밖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뇌었다.

《우리 옥연인 량부모가 다 없는 고아인데... 결혼식날 울지나 않았을가?...》

김길운의 마지막말은 몹시도 흐리고 갈렸다.

《아무래도 일손이 잡힐것 같지 않구만. 부부장동무, 우리가 옥연이 친부모가 돼줍시다. 보란듯이 결혼식상도 잘 차려주고 시부모와 시권형제들에게 줄 결혼례물도 마련해주고... 생활용품들도 일식으로 갖춰줍시다.》

그러다가 수정이쪽을 돌아보았다.

《마침 녀성대표인 수정동무도 있는데 내친김에 우리 함께 결혼찬치준비품이랑 레물명세랑 짜보자구.》

부장과 부부장이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번갈아 뽑아내리고 수정은 자기가 생각해낸것도 덧붙이며 부지런히 손을 놀려 적어내려갔다. 이불장, 양복장, 텔레비존, 록화기, 이불, 눕가마일식, 그릇조... 지어 김길운은 식칼과 행주, 작은 양념단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문득 수정이 눈언저리를 가리웠다. 연약한 두어깨가 조용히 물결치기 시작했다.

김금철이 《왜 그래, 수정동무? 어디 아픈게 아니요?》하고 다급히 물었다.

수정은 얼굴에서 손을 떼지 않은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닙니다. 부부장동지... 너무 고마워서...》

김길운이 톡조로 시까슬렀다.

《누물도 헤프지. 누가 동물 시집보내줬다오?》

《어마나, 부장동지! 제가 언제...》하며 얼굴을 드러낸 처녀의 젖은 눈가엔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가득 실렸다.

김길운과 금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화창한 4월의 봄날 지휘부마당에 성의를 다한 결혼식상이 차려졌다. 려단안의 모든 대대장과 정치지도원들이 손님으로 초대되고 옥연이의 고향대대인 순천화학련합기업소대대의 돌격대원 전부가 결혼식에 참가하여 신랑신부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날 눈물을 흘리면 한생 눈물을 흘린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행복한 날에 흘린 옥연의 눈물은 친부모보다 더 살뜰하고 뜨거운 조직과 집단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고 뉘을 바쳐갈 사심없는 맹세의 눈물이였다. ...

별안간 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는통에 수정은 깜짝 놀라 생각에서 깨여났다. 문가엔 친자매와도 같이 이름마저 비슷한 혜정이가 지팽이를 짊은채 오똑하니 서있었다. 그의 입에서 전혀 환자같지 않게 쉿쉿하고 되알진 목소리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언제 들어왔어요? 제일 중한 입원환자한테 회진 안 와요?》

《아이구, 내 정신 좀 봐! 그만 깜빡했구나.》

《빨리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그래, 미안하다. 온바엔 그냥 여기서 치치하자, 응?》

부축하는 수정에게 혜정은 새초롬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법 생색을 냈다.

혜정은 려단 운수중대에서 일하는 돌격대원이였다. 회계일도 하고 취사일도 돌보는 여가에 기관수리를 거들어주다가 큰 치차 하나가 넘어지는통에 발을 상했다.

치료가 끝나자 혜정은 수정에게 물었다.

《참, 요새 우리 아버지 병은 좀 어때요? 더 심해진진 않았나요?》

수정은 밋지 않게 눈을 흘기며 그의 상큼한 코날을 툇졌다.

《코앞에서 외동딸한테 면회 한번 오지 않는 아버지 걱정은? 너나 열심히 치료를 받아. 군의소규정이랑두 좀 얹전히 지키구. 봉합한지가 며칠인데 여기저기 온통 싸다녀?》

혜정은 웅석을 부리듯 몸을 흔들었다.

《그래두 대달랴요. 제게 뭘 숨기는건 아니에요?》

수정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숨기긴 뭘... 점점 더 상태가 좋지 않아.》

혜정은 김길운부장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였다. 몇해전 돌격대에 입대하던 날 그는 헤여져있던 아버지와 마주앉아 밥 한끼 먹어볼새도 없이 려단직속 립업중대에 배속되였다. 말이 직속이지 립업중대는 170여리나 떨어진 산간벽지의 립지에 전개되어있었다.

립업중대에 가는 후방물자들을 싣고 덜컹덜컹거리며 산길을 툭아오르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우에 홀로 앉아 혜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아직 단 한번 톱이나 도끼를 쥐여보지 못했던 혜정의 붓초리같이 가늘고 하얗던 손이 며칠 안

되어 터지고 아물고 하더니 보름이 되어서야 겨우 손바닥에 뜬뜬한 굳은살이 배졌다. 하루해가 저문 저녁이면 혜정은 너무도 허리가 쭈시고 맥이 빠져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고만 싶었다.

사과열매가 한껏 무르익는 가을날 수정과 혜정은 한차의 적재함에 앉아 파수농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놀라 환성을 내뿜었다. 물결처럼 굽이쳐간 구릉지대에 짝 들어찬 과일나무들, 가슴이 찡하도록 온 누리에 차넘치는 사과향기...

하지만 그 기쁨이 혜정에게는 잠시잠깐이었다. 새 전투장에 도착하자마자 러단 운수중대에 배치된 것이다. 그달음으로 수정에게 달려와 하소했다.

《억대우같은 남자들만 있는 거기서 내가 대체 뭘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혜정은 천진스러우면서도 속깊은 성미대로 이내 새 일터에 안착되어 억대우같은 운전사들의 귀염과 사랑을 받았다.

수정이 보기엔 혜정이가 정말 옹했다. 먼발치서나마 하루 한번이라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정에게 실로정했던 그가 잠깐 들러보지도 않는 처사에 대한 섭섭한 빛은 전혀 내색없이 효녀답게 아버지의 병을 더 근심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지로 김길운의 병세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피하주사만 해도 하루 네번, 혈당강하제와 혈압약을 비롯한 각종 약들을 한번에 한줌씩 하루 세번 복용... 투약량이나 시간에서 단 한번만 실수를 해도 김길운의 생명은 위태로울수 있었다.

수정이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선 그의 건강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대신할수 없는 간호를 맡아안고 몇해째 아글타글 애태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도 김길운은 하루종일 토지정리전투현장과 살림집건설장들에 나가살다싶이 하며 걸린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잘못된 문제도 바로잡아주곤 했다.

그러던 지난 9월 어느날 김길운은 끝내 토지정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러단에 실려와 간신히 의식을 차리자 그는 짝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몸만 좀 아프지 않으면 좋겠구나! 힘껏 일하고싶은데...》

얼마후 당조직의 강한 요구에 따라 그는 감탕치료를 받기 위해 통천군 시중호료양소로 떠나갔는데 한달주기도 채우지 못하고 며칠만에 돌아왔다. 그는 치료기간에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백대의 기발대를 해결하였으며 평안남도러단 대원들을 료양소에 보내기로 료양소 일꾼들과 합의했다.

료양기간은 한달인데 이 기간 료양생들은 감탕치료와 수기치료 등 자기 질병에 해당하는 갖가지 치료봉사를 받게 된다.

그들이 떠나던 날 온 지휘부가 마당에 펼쳐나와 배웅했다. 차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미소를 짓고 뒤전에 서있는 김길운에게로 다가갔다. 일상시엔 대범하고 감정이 똑한 대동군대대장이 눈물이 고인 두눈을 습벽이며 젖은 목소리로 뇌였다.

《정치부장동지... 고맙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오겠습니다.》

김길운은 헛웃음을 쳤다.

《흠, 러단장동무나 내가 동무넌 선참 보내는 리유를 알면 단번에 눈물이 쑥 들어갈걸? 병을 때 주고 톡톡히 값을 받아내자는거요. 돌아와서는 몇 배로 뛰고 앞장에서 일을 제길 각오를 단단히 하라구.》

료양생들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정치부장동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처녀돌격대원들이 핑 고여오르는 눈물빛을 숨기려고 고개를 돌렸다.

며칠전에 있던 일이었다. 주사시간이 되어 정치부장의 방에 들어서다가 수정은 흠칫 놀라 굳어졌다. 김길운이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뜻밖에도 그의 두볼로는 붉은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수정의 심장은 옥죄어들었다. 한결음에 다가가 다급히 물었다.

《부장동지! 또 동통이 옵니까? 제발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쑥스럽게 눈굽을 훔쳐내고나서 김길운이 갈린 목소리로 뇌였다.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구... 다 내 아들, 내 딸 같은 사람들인데... 꺼떻게 얼굴들이 얼어가지구두이를 사려물고 내달리는걸 보면 너무 대견해... 그러구 너무 가슴이 아파... 더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더 뜨뜻이 입히구 더 뜨뜻이 재웠으면 좋겠는데...》

수정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했다. 눈굽이 화끈 달아오르고 목이 짹 메어왔다.

《부장동지!...》

성미가 불같이 잘못을 질책할 때엔 벼락치듯 무섭게 다불러대는 김길운의 마음은 사실 이처럼 어리고도 뜨거웠다. 그의 마음속엔 한두자식뿐이 아닌 천수백명의 아들딸들이 언제나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던 것이다.

《뽀를 꺾고 피를 바쳐서라도 중기계들을 더 마

런해서 대원들이 험하게 일하도록 해야 해. 이제 바로 우리 장군님의 뜻대로 대원들을 진짜로 위하는 길이고 하루라도 빨리 위대한 장군님을 이 땅에 모셔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길이야.》

이런 일군, 앉으나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숨결로 호흡하기 위해 자신을 강그리 불태우는 일군의 심장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병들수도 없고 병들어서도 안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수정은 굳센 열의로 붉어진 김길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음, 재미없다! 환잘 앓혀놓고 판생각만 하는군요.》

수정은 또다시 편듯 생각에서 깨어나 얼른 눈곱을 훔쳤다.

《참, 려단에 온 신문기자동지를 만나봤어요? 평양총각이래요. 꽤나 멋쟁이지요?》

수정은 미소를 띠우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까지야 뭘... 려단장동지랑 부장동지랑 취재한다더라.》

《에이, 나한텐 불일이 없나봐요. 마주칠 때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각듯이 인사했는데 두 겨우 웃음기나 흘리고는 지나쳐가더군요. 만나주면 나도 할 얘기가 많을것 같은데...》

더는 참지 못하고 수정은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뭐니. 웃자락을 붙잡고 제 소개를 할것이지, 호호...》

무성한 나무숲에서 새무리가 날아오르는듯 한 두 처녀의 맑은 웃음소리...

이때 문득 문기척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열렸다.

《어마나!...》

수정과 혜정은 다같이 외마디 비명을 삼켰다.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방금 입에 올렸던 당사자가 느닷없이 앞에 나타난것이다.

처녀들의 한껏 자지러지게 놀란 눈빛에 형춘은 자못 의아쩍은 표정이였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반가운 어조로 말했다.

《마침 함께 있었구만요. 수정동무랑 혜정동무랑 꼭 만나고싶었는데...》

두 처녀는 할 말을 잊고 입도 다물지 못한채 마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철령기슭에 새 봄이 온다

새해에 접어들어 한두달사이에 려단은 다섯개 호원의 토지를 정리하고 수천여대의 콘크리트지대를 세웠다. 한편으로는 수백미터에 달하는 본장 인입도로공사와 호원지선도로완공에 뒤이어 기

본도로건설에 착수하였다.

한겨울의 도로공사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추위는 맹렬히 기승을 부리고 토탕운반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사는 더욱더 힘겨워졌다.

아직은 봄이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 폭설이 쏟아져내리고 앙칼진 눈바람은 발톱세운 맹수마냥 얼굴을 허비었다.

그러나 김길운은 누구보다 먼저 마음속에 봄을 느끼고있었다. 그가 느끼는 봄은 계절의 봄만이 아니었다. 검질기게 불던 모진 시련과 난관들이 하나, 둘 붉은기앞에 무릎을 꿇고 맥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온몸과 온넋으로 아직 멀리에 있는 화창한 봄이 사나운 겨울을 손아귀에 거머잡아제끼며 성큼 다가오는듯 한 뚜렷한 감촉을 느끼는것이였다.

지난해말 려단은 1단계 살림집건설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특등의 영예를 지니였고 2단계 토지정리경쟁총화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쟁취하였다.

올해에도 토지정리, 살림집건설준비, 도로공사 등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소리치며 장훈을 부르고있다. 승리를 약속하는 물질기술적토대는 이미 든든하게 마련된셈이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넓은 려단마당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불도젤과 대형화물차들을 기본으로 하여 굴착기, 여러대의 중량급운반차들이 들어설 짝이 없이 짝 들어차곤 했다. 새로 맡게 될 살림집건설을 위해서도 미리 수만대의 블로크를 생산해놓았다.

김길운은 대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과 대원들의 물질문화생활개선에 큰 힘을 기울였다. 이미 전에 려단에서 많은 돼지들을 종축하여 아직 축산토대가 빈약한 대대들에 새끼돼지들을 나누어주어 기르게 한것이 큰 은을 냈다. 려단은 이미 전부터 자체로 비육한 돼지와 양, 염소들을 대원들에게 급식시켜 그들이 새힘을 가다듬도록 했고 한달에 두번씩 진행되는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도 고기류, 수산물, 식용기름과 같이 식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물자들을 경쟁상품으로 마련하여 공급하는 원칙을 세웠다.

《온몸을 태워 일을 하고 피타게 사색하자! 그래야 모든것이 풀린다.》 이것이 바로 김길운의 불같은 마음속 웨침이였다.

정치지도원회의에서 김길운은 대원들의 생활보장문제를 심각히 총화했다.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기 현장 가까이에 가설천막을 치라고 했는데 일부 대대들이 움직이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소. 이 바람 세찬 땅

에서 몇해를 일하자면 대대마다 천막 몇개씩은 꼭
꼭히 장만해야지 아직 날씨가 찬데 찬바람 뽕뽕
부는 한지에서 대원들에게 점심밥을 먹이겠는가!
… 려단에서 모든 대대들의 야외식당에 전개할 식
탁과 결상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는데 천막마저
해결해주길 바라는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사표를
내고 자리를 내놓소. 씹어주어야 삼키는 숙맥은
우리 대오에 더는 있을 자리가 없소!》

회의장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
았으며 새로운 결의들을 마음속에 다졌다. …

부서로 돌아가 신문에 널 평안남도려단의 투쟁
기사를 집필하던 형춘은 자료보충을 위해 2월 어
느날 다시 려단전투장을 찾았다.

이제는 퍼그나 낫을 익힌 사이라 김길운은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면서 보니까 려단이 말아하는 도로성토구간
이 다른 려단의 두배는 훨씬 넘어보이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장동지?》

김길운은 심상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로력은 우리가 다른 려단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대신 중기계력량은 비할바없이 세니 큰몫
을 맡아하는게 옹당하지요.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
는 평양을 제일 가까이 한 평안남도가 큰 짐을 걸
머지지 않으면 체면이 되겠소?》

그러다가 문득 《이거 내가 푼수없이 제 자랑에
흥이 났군.》 하고는 시원스럽게 허허 웃었다. 그
러나 다시금 심중해졌다.

《공사량이 문제가 아니지요. 언제든지 우리
장군님께서 오실 길인데 여기에 티 한점없이 순결
한 마음을, 량심을 묻는게 기본이지요. …》

그들은 돌격대원들이 정성답아 로반을 다지고
갖가지 중기계들이 짝 들어차 세찬 열기를 뽐고있
는 전투장을 말없이 뜨겁게 바라보았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도로공사는 마침
내 마감단계에 들어서 온 전투장이 더욱더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고있었다.

형춘은 성토구간을 다짐하는 대원들속에 뛰어들
어 흠뻑 땀을 흘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밤마다 모
진 병마에 신음하는 사람같지 않게 열정과 신심에
넘쳐 뛰고 부르짖고 손짓하며 전투를 지휘하고있
는 김길운부장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마음속
으로 부르짖었다.

《아, 우리모두가 저처럼 열정을 다해, 땀을 다
해 이 땅에 참된 사랑과 진심을 바친다면…》

점심시간에 형춘은 김길운의 뒤를 따라 여러 대
대들의 현장식사정형을 돌아보았다. 그가 보기

에도 대대들의 식사질이 한층 높아진것이 눈에 뜨
이게 알렸다.

정치지도원들의 하루총화도 전투적분위기에 맞
게 전투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대대별로 현장정치사업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총
화까지 끝나자 긴장했던 모임의 분위기는 다소 느
슨해지고 하루일을 성과적으로 완결한 기쁨과 안
도감이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 감돌았다.

김길운이 개천시대대 정치지도원 김순철을 찾
았다.

《개천이 맡은 석축벽이 거의 완공단계인데 자
동차를 성토구간대대에 붙이라는 참모부의 지시를
못 받았소?… 듣자니 정치지도원이 더 말쑥해 군
다더군. 려단일을 남의 일처럼 대하다가 이제 외
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있지.》

방금전까지 칭찬을 받고 얼굴이 환해져있던 김순철
이 역시 다혈질이라 당장 불끈해서 몸을 쏘구었다.

《말도 마십시오, 정치부장동지! 아직 막돌채취
장에 수십립방이 넘게 쌓여있습니다. 우선 제 발
등의 불이나 끄고봐야지 뭐…》

김길운은 웃음을 띤 입가를 슬슬 문지르고 아닌
보살하고 말했다.

《일전에 능구렁이 개천시대대장 박광일이 나한
테 한 말이 있소. 개천시대대는 명령앞에 흥정이
란 없다고, 결바르기가 대쪽같아 일단 과업이 떨어
지면 〈알았습니다.〉 밖에 모른다고, 준비정
도는 정치지도원보다 좀 낫더라구.》

장내엔 요란한 폭소가 터져올랐다. 하는수없
이 순철도 결달아 웃고말았다.

《예에, 우리 대대장 정말 야단이야. 평시엔 땅
벼락같이 으르다가도 지금처럼 〈유사시〉엔 나만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데 실은 정치지도원과 대대장의 사이가 제
일 각근한것이 개천시대대였다. 이쯤되면 개천
시대대의 차는 래일아침 첫시간 성토구간을 향해
출발할것이다.

김길운은 생각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물론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듯이 정
치지도원들이 수고하오. 사상사업, 사람과의 사
업, 부업… 게다가 작업실적도 대대장과 같이 책
입져야 하고… 하지만 모두가 뛰는 그늘밑에서 남
몰래 땀을 들이는 사람은 없는가, 문건정리를 한
답시고 한껏내내 방에만 박혀있는 사람, 푹배기
깨지는 소리로 목청이나 곤두세울줄 알고 대원들
의 심중에 깔린 근심과 아픔에는 무관심한 사람…
대원들은 결코 정치지도원 일개인을 믿고 의탁하
는것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인민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당의 숨결을 느끼고 그 풍만한 사랑의 세계를 감득하기에 당조직에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의탁하는것이요. 정치일군들은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오, 자신들의 언행하나, 인간적면모 하나하나가 우리 당의 권위,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와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앉아있던 형춘은 그토록 자신심에 넘쳐보이고 열정의 눈빛이 번쩍이던 김길운이 괴롭게 두눈을 감으며 지그시 입술을 앙다무는것을 띠어보았다. 그의 이마에 빠질빠질 진땀이 돌아나고 얼굴색이 거뭇게 죽어들었다.

형춘은 섬찟 놀라 다급히 다가갔다.

《부장동지, 왜 그러니까? 혹시 몸이… 의사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춘을 알아본 김길운은 얼굴에 애써 어설픈 미소를 떠올렸다.

《기자선생이요. 일없소. 이러다 낫겠지. 한두해 앓는 병도 아닌데…》

《제 보기엔 상태가 중한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더 많이…》

형춘은 갑자기 목이 메여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김길운은 수궁하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내 심장은 일손을 놓고 대원들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당장에 떴어버리고말거요. 뭐랄까… 믿음과 기대에 젖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밤이나 낮이나 나를 채찍질한다고 할지, 그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려는 열망이 자꾸만 타올라 내 몸의 병과 싸워이기는 면역기능을 강화해준다고 할지…》

그는 방금전까지 심장의 아픔에 모대기던 사람 같지 않게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기계운전수들한테 가봐야지. 그들이 정말 큰 몫을 맡아주고있소. 완공의 그날 우리 장군님을 여기에 모시는 감격의 그날이 오면 난 제일먼저 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내세우고싶소.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내 하나의 아픔이 뭐겠소. 심장이 뛰는 한 멈출수도 쉴수도 없는게 장군님의 전사된 우리모두의 참된 삶이고 인생이 아니겠소. …》

형춘은 오래도록 김길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같은 사람… 대원들이 바라고 지휘관들이 좋아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대원들을 잘 먹이고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

는것을 자기의 목표로 내세운 사람, 드센 결단력과 립체적인 실천력으로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줄 아는 불굴의 인간…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을 모르고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자기의 모든것을 불태우는 이런 참된 일군이 앞장에서 붉은기를 펴필 휘날리기에려단이 걸어온 길우엔 자랑스러운 승리의 표적만이 새겨져있는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이 솟아올랐다. 형춘은 옷깃을 열어 달아오르는 가슴을 식히며 고개를 쳐들었다.

드넓은 밤하늘에 다투어 빛을 뿌리는 령통한 별보라, 별보라!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저처럼 별들이 찬연히 빛나고있듯이 걸음걸음 지켜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있어 이 땅의 순결한 심장들은 밤이나 낮이나 해불마냥 활활 타오르며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것이리라.

마침내 평안남도려단은 1월부터 3월까지 달마다 진행한 토지정리 및 도로건설 사회주의경쟁 총화에서 자랑스러운 1등의 영예를 지니고 또 다시 승리의 단상에 올랐다. …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모진 시련과 난관을 억척같이 헤치며 쉬임없이 달음쳐온 이들에게 꿈에도 소원하던 가장 행복한 영광의 시각이 왔다. 2011년 6월 2일 우리의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부시게 개건확장되고있는 고산과수농장을 찾아주시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천여정보의 사과밭과 어린 사과나무들을 지켜주는 초병마냥 일매지게 렬을 맞추어 서있는 수십만대의 하얀 지지대들을 바라보시며 이것은 바로 선군시대의 영웅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천지개벽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연록색잎들이 가지마다 무성해진 키낮은사과나무호원들과 자력쟁생기지들을 돌아보며 김길운은 뜨거운 격정을 삼켰다.

아! 오늘을 위해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만난을 헤치고 시련을 짓부시며 오직 한길로만 달음쳐온 그 나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것처럼 사랑담아 믿음담아 축복해주신 618건설돌격대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이제 그 사랑과 믿음을 자양분으로 산악같이 펼쳐나 력사의 땅, 이 철령기슭에 강성국가의 새봄을, 만년대계의 청춘과원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불씨가 되어 기발이 되어

김 충 기

노을피는 서강동쪽길 따라
붉은기 날리는 포전으로 나가니
쭈정이 하나없이 알찬 이삭들
어쩌면 그리도 하나같은가

하나갈구나
아침인사도 정답게 주고받으며
포전에 들어서는 우리 마을 사람들
서로 돕고 이끌며 한모습되어
일손을 다그치는 그 마음도

한집안 한식솔마냥
정답게 안겨오는 그 모습속에
새벽마다 남먼저 붉은기 날리며
그 붉은기아래 온 마을 사람들 묶어세운
그대 모습 어려오나니

그대는 온 우산땅이 다 아는 선동원
하지만 그대 말을 앞세우지 않았더라
한겨울 남먼저 거름달구지를 끌고
한여름 남먼저 풀더미를 높이 쌓으며
불씨가 되어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핀 그

래일을 위한 오늘의 행군길에서

한결음도 떨어지지 말자고
한사람도 락오자가 되지 말자고
기발이 되어 농장원들 이끌고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웠지

집단을 위해 한몸 내대는것을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그 인정이 고마워 그 진정이 고마워
스스럼없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심장을 합치고 마음도 합치였거니

아, 수십년세월 그렇게
당의 뜻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우며
붉은기아래 우리를 한모습으로 내세운 그대는
우리 장군님 시대의 전형으로
그 이름 내세워준 선군시대의 붉은 선동원

오늘도 천만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어
총진군대오앞에 휘날리는 기발이 되어
우리를 부르는 그대여
조국은 그 모습 사랑하노라
인민은 그 이름 사랑하노라

돌고장의 사과덕이야기

김 일 왕

옛날에 기묘한 돌 셋이 솟아
고장이를 삼석이라 불렀다오
삼석에도 돌이 많아 소문난 도덕땅에
오늘 돌보다 사과가 더 많은 고장
그 고장에 내 아들 며느리가 산다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하였거늘
그 돌고장에 변이 나지 않았겠소
수령님과 장군님 다녀가신 땅에
오늘은 사과덕이 넘치는 고장이 되었소

몇해전 내 아들이 제대되어 가더니

덩실한 기와집에서 태어난 손자를 안고
아들 며느리 고향집에 오지 않았겠소
나들이보짐은 얼마나 희한하오

꿀같이 달디단 사과맛은 어떻구요
사과술 한잔에 내 벌써 취했는데
방안 가득 펼쳐놓은 희한한 상품들
가지가지 꺾자면 끝이 없소
사과술 사과즙 사과식초 사과사이다...
백화점 식료품매대 옮겨놓은듯

사과향수 사과린스 사과샴프...

백화점 화장품매대 그대로인듯
어느 백화점에서 사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오 이렇듯 멋쟁이상품
머느리네 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든것이라오

맛좋은 사과향기에 마음도 젖었는데
이렇듯 난생처음 보는 희귀한 제품들이
다름아닌 사과에서 만들어진다니
이것이 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과연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이구려

아, 아버지 우리 장군님
오늘의 이 만복을 안겨주시려
둘서덜길도 앞장서 걸으시며
둘많은 고장을 과일고장으로 펼쳐주셨으니
고장이름도 고쳐볼러야 할가보오
사랑덕 과일덕고장이라고

우리 분조 처녀들에게

김 명 철

해가 저물어 허리띠고 바라보니
아직도 맨앞에선 그 청년이 나가누나
처녀들아 찾아라 일을 그만하자고
저대로 그냥 두면 벼가을에 움해
논판에서 이밤을 지새울가보다

팔을 가진 어머니이고 분조장이여서만
내 이처럼 원심을 쓰는게 아니란다
경희극 《산울림》의 석철이처럼 살자고
저 연대봉을 넘어온 제대병사
한해사이 벌써 정이 들어 이러지 않니

나는 잊지 못한다
두벌농사는 장군님의 뜻인데
거름을 많이 내어 어떻게든 해내자고
정초부터 왓새를 언 땅을 까내던 그
니탄이 나오자 그리도 기뻐하던걸

너희들도 생각날게다
지난봄 바람막이바자감이 모자랄 때
그가 뒤꼍에서 실어내린 쉼단들
깊은 밤 갑자기 찬서리 내릴 때
마을 먼 모판에 그가 피운 우등불

장마비 퍼붓는 저 고진강쪽밑에
누가 먼저 서슴없이
흙매대 그러안고 뛰어들었더니
앓고난 순희 엄마 추세워주자고
토끼곰 안고간게 그 아니고 누구더냐

일이 힘들수록 사기를 돈구자고
논머리의 쉴참마다 손뽕금을 타며
《선군닐리리》를 부른것도 저 청년
선진농법보급에 앞장선것도 저 청년

이제 그가 색시얻어 새살림을 꾸리면
그 집엔 말그대로 깨가 쏟아지고
그가 동리사람들과 이 앞벌을 짊어지면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보다 화목해지고
들은 또 들대로 보다 기쁨지려니

정말이지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
저렇게 훌륭히 잘 키우신 병사들을
《산울림》 주인공으로 농장마다 보내주시여
산천이 밝아지고 일터가 흥성이는 세월
미래가 앞당겨 펼쳐지는 이 세월

그래서 들바람이 별로 더 상쾌하고
벼이삭 설레는 소리 별로 더 흥을 돋구는
이 좋은 가을 이 좋은 저녁
농장의 앞날에 저 청년을 세워보며
확신에 넘쳐 나는 말한다

처녀들아
나라의 부강에 몸을 내맡길 아는
오늘의 석철이들을 본받아
고향을 무릉도원으로 꽃피워가며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이 땅에 남기거라



한마음 한뜻으로

리 명 현

1

로동이 기쁨과 노래라는 말이 있듯이 일용품공장 치술직장 사람들은 말그대로 노래와 기쁨속에 일을 한다.

직장성원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 현대적인 각종 기계들의 동음이 한데 뒤섞여 울려퍼지는 조화로운 소리를 명망높은 어느 예술단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흥겹고 정서적인 관현악처럼 듣는다.

그중에서 이 음악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윤상현이다. 그것은 그가 이 귀중한 설비들의 가동과 보수를 책임진 기대수리공이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상현은 이 음악의 연주에 참가하는 악기들의 음을 책임진 조음사라고 할수 있다.

이 기계들의 동음이 언제나 고르게 끊어짐이 없이 울리게 하는것은 그의 직분이다.

그는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일을 긍지롭게 여긴다.

그러나 그는 매 기계들의 기술적특성과 작용원리, 요소들에 완전히 도통하여 소리만 듣고도 있을수 있는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로만 만족할수 없었다.

흥그러운 마음으로 치술생산의 마감공정을 맡은 여성작업반원들의 작업모습을 보느라니 상현의 머리속에서 언젠가부터 해오던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다.

저들의 작업을 계속 손로동에 맡길수 없다!... 그의 심중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포장작업반의 애어린 처녀, 몇달후면 만 20살에 잡히는 명금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상현에게 말했다.

《상현동지!... 저길 보세요. 난 막 부러워요.》

사상기, 식모기작업반쪽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거기선 처녀들이 자동공급단능로봇들을 다루고있다. 그 기계를 상현이가 발명하여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2등상을 받은 기계였다.

《상현동지! 우리 작업반에도 치술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현은 씨알박힌 소리를 잘하는 명금이가 또 무슨 말을 할는지 몰라 싱글싱글 웃으며 맑고 투명한 박막으로 치술을 포장하는 여성작업반원들의 잼싼 일숨씨만 눈여겨보았다.

한 여성작업반원이 명금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글쎄 말이야... 우리한테두 저런 고급한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모두의 시선이 상현에게로 쏠렸다. 그 책임이 그에게만 있는듯...

이때 포장된 완성제품지함을 밀차로 나르던 호산이가 끼여들었다.

그는 이 작업반에서 유일한 남자이며 명금이와 동갑이다.

《그 기계가 창안되면 내가 다른 작업반에 갈수 있겠군요.》

상현이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대답을 하지 않는 데 여성작업반원들이 무슨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만난듯 겨꿈내기로 한마디씩 한다.

《호산이가 사출작업반에 얼마나 가고싶었으면...》

《직장장두 다 안다는데 보낼 때가 되면 보내주지 않으리.》

《호산! 명금일 혼자 뒤투고 너 혼자 가련?》

《거기 가면 교대가 달라지겠는데 명금이와 어떻게 같이 퇴근하겠니?》

둥그스름한 얼굴이 금시 팔기빛으로 물들었다. 도톰한 아래입술을 감빚던 명금이가 다시 상현을 쳐다보며 또랑또랑 말했다.

《상현동지! 난 그 기계가 나오면 맨먼저 담당 기대공이 되겠다고 제기하겠어요. 그뿐인가요. 전 기술을 잘 모르지만 정말로 그 기계를 만들게 되면 무엇으로든 한몫 하겠어요.》

너성작업반원들이 웃음을 거두고 명금이와 상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명금인 옳은 말을 하였다. 옳다기보다 그저 자기 속마음 그대로 말했다.

그렇건만 상현은 종시 아무런 응대를 하지 못했다. 그뿐더러 어느 정도 내심 당황해지기까지 했다. 그것은 자기가 언제부터 생각해오던 그 기계 창안문제를 명금이가 갑자기 예견치 않은 상황에서 꺼냈기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고맙기도 했다.

치술자동포장기는 명금이의 요구이기 전에 포장작업반,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모두의 요구이다. 내가 아니면 누구든 해야 할 일이다.

...

하루일이 끝나 기쁨의 노래가락이 흐르던 때가 언제인가싶게 드넓은 현장엔 호젓한 고요가 떠돈다.

상현은 포장작업반 작업탁우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치술과 포장된 치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기계로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색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때 인기척소리가 났다.

한진철직장장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나?》

《이제 가겠습니다.》

《혹시 또 무슨 새 기술혁신안을 구상하는게 아닌가?》

《직장장동지! 치술자동포장기를 제가 한번 해볼가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너부죽한 얼굴이 퍼그나 인상적인 진철의 표정에 옅은 미소가 언뜻 내비쳤다.

《그래 무슨 안이라도 썼나?》

상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진철직장장이 다시 물었다.

《아직은 하자는 결심뿐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결심이 확고해야지. 하지만 결심 못지 않게 중요한건 실천방도야. ...》

진철직장장은 탁우에 놓여있는 치술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안 말없던 그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 포장기를 만드느라고 3년동안 애쓰던 사람이 있었네. 지금은 나이가 돼서 들어갔지만...》 상현이가 다우쳐물었다.

《그렇습니까! 그게 누구니까?》

《어찌자는건가?》

《그를 만나보자는겁니다. 그럼 그가 이전에 어떤 운동계통을 썼고 성공하지 못한 원인도 알게 되면 그이상 좋은 출발진지는 없다고 봅니다.》

상현은 문제해결의 귀중한 실머리를 찾은듯 신심에 넘쳐 말했다.

한진철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담뿍 어렸다.

《앞사람의 실패는 뒤사람이 성공할수 있는 교훈이 된다 그 말이겠지. ... 그렇다면 첫걸음을 벌써 내짚은셈이야. ... 그렇지 않나, 상현이!...》 하며 진철직장장이 원주먹으로 상현의 오른쪽어깨를 툭 쳤다.

《이젠 가보자! 시간도 지났는데 가면서 좀더 토론해보세.》

진철은 상현을 이끌고 출입문쪽으로 갔다.

2

희뻘히 날이 밝았다.

거리는 오늘에 펼쳐지게 될 활기를 시위하려는 듯 간단없이 설레기 시작한다.

도로에서 각이한 룰전기재들이 경쾌하게 질주하고 사람들이 명랑한 표정을 짓고 정력에 넘쳐 직장으로 출근길을 재촉한다.

종소리를 길게 울리며 달리던 궤도전차가 정류소에 멎어섰다.

사람들이 연줄연줄 전차문으로 내렸다.

그들속에는 룬알만 한 까만 점들이 초롱초롱 박혀있는 흰 셔츠에 깃없는 빨간 양복을 입고 그리 크지 않은 연미색가방을 어깨에 멘 명금이도 있었다.

명금은 정문을 지나 직장건물앞에 이르자 갑자기 한자리에 오탁 멈추어섰다. 그리고는 누가 없나 해서 사방을 돌아보았다.

보이는건 잘 포장된 깨끗하고 조용한 구내길뿐이다. 어느때도 빨리 출근하던 명금이가 반시간이나 더 빨리 나왔으니 누가 있을까.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나타났다.

자기네 직장장이다.

《우리 명금이가 빨리 나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직장장동지!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명금이가 밀도끝도 없이 가방에서 2단 수지갑박을 꺼내들어 직장장앞으로 내밀었다.

《대관절 이게 뭐냐?》
 《밥이에요. 상현동지한테 주자구 제가...》
 《용구나! 이런거야 본인이 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직장장동지가 좀 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창피스러운지 명금의 얼굴이 발기
 우리해졌다.
 《참, 애두!... 별게 다 창피스럽겠다.》
 명금이 어느새 출입문안으로 사라졌다.
 진철은 즐거운 미소를 짓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하루밤새 오물썸물해질 애가 아닌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좋은 일이다.
 나인 어려두 속궁리가 어물쩍하단 말이야.

천리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치술자동포
 장기발명의 첫걸음을 내짚은 상현은 탐구와 사색
 으로 시간에 시간을 잇고 날과 날을 이었다.
 어려운 문제는 치술을 넣은 박막을 접합하고 그
 것을 때는 장치였다. 접합부에 박막이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아 여간치 않은 애를 먹이고있다.
 그 해결여하에 따라 작업속도와 박막실수률이 결
 정된다.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던 상현이가 인기척소리에
 문쪽으로 상체를 돌렸다.

《꼬박 새우지 않았나?》
 《아닙니다. 좀 잤습니다.》
 《식사전이겠지?... 뭘... 맨뺨에 찬물 한고뿌 마
 셧겠지. ...》

진철은 책상우에 있던 도면이며 분도기며 콤파
 스, 책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2단
 밥곽을 풀어놓았다.

하얀 쌀밥, 도라지채, 반숙닭알부침, 양미리
 반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어서 들라구.》
 《!...》

진철이 상현에게 수저를 쥐여주었다.
 《설계가 어느 정도루 진척됐나?》

《접합장치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시험적으로
 접합부에 해면천을 대보았는데 그것두 안됩니다.》

《...그게 어떻게 떡먹듯 쉽게 되겠나?... 혼자
 풀머리 썩이느라 하지 말구 공무작업반에 가서 기
 능공들과 의논해보게. 거기엔 우리 직장 수리공출
 신이 두명씩이나 있네. 혹시 알겠나, 말끝에서 묘
 안이 나온다구...》

상현인 이 일을 자기 일로만 생각하는것 같아.》
 한동안 굳어진 사람처럼 말이 없던 상현이가 입
 을 열었다.

《내가 편협하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발명두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일일

수록 결사사람들의 도움도 받을줄 알아야 하네.
 우리가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얻자고 기계를 만
 들고있는게 아니잖나?》
 《알겠습니다. ... 직장장동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러구 인사는 이따 명금이한테 하
 라구.》
 《?!...》

오전작업 마감시간에 상현은 해체한 강모사압출
 기의 랭각수려파기를 정비하며 줄곧 접합장치를
 생각했다.

직장장동지 충고가 옳다. 모두가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관심을 돌려주는데 나는 지금껏 자
 기 개인의 일로만 생각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끝내 실패했고 누구도 선뜻 나서기
 주저하는 이 어려운 기계창안을 내가 단독으로 해
 서 직장과 공장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어떤
 개인적명예를 얻어보려는 사심이 나에게 없었던
 말인가.

비록 실패는 했어도 퇴직한 오랜 기능공의 3년
 동안 쌓은 공적이 없었더라면 난 지금도 방향없이
 암중모색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그 나이많은 기능공이 젊은이는 꼭 성공해야 한
 다고 신신당부하던 말이 생각났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씨인가.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자. 대중은 늘 선생이다.
 집단의 방조도 받을줄 알아야 하고 또 받아야
 한다.

편협한 자기가 발견되자 서글픈 감정은 순간일
 뿐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

공무작업반 기본작업타우에서 점심시간 쉴참
 에 머리힘으로 하루같이 흥을 돋구던 장기판대신
 에 그 자리에 상현의 도면을 펴놓고 방도를 진지
 하게 토론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
 그중 젊은 사람이 한마디했다.

《그러지말구 접합하는 요소와 떼기날 동작부분
 을 아예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작업반장이 호기심이 동하여 재촉한다.
 《방안이 있으면 말해보게.》

《시계태엽같은 강판을 날로 쓰자는겁니다.》
 《월프람강판 말인가?... 마저 이야기하게.》

《아니, 그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
 는겁니다.》 하며 그 젊은 사람이 뒤통수를 긁적
 거렸다.

당장 무슨 대단한 묘안이 나오는줄 알았던 다른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
 비록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도 치술직장

으로 돌아오는 상현의 마음은 기뻐다.

자기를 도와 흥겨운 휴식시간마저 바쳐가며 방도를 함께 토론해준 그들이 고마웠다. 정말 그들에게는 내 일, 네 일이 따로 있을상싶지 않았다.

오히려 작업반장은 토론할것이 있으면 아무때건 찾아오라고, 빨리 성공한 다음 자기네 작업반으로 오라고 하지 않는가.

힘을 합치면 산을 떠옮기구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는데...

순간 상현의 머리속에서 하나의 착상이 번쩍거렸다.

떼기날을 0.5밀리미터 월프람강판으로 한다면... 그것을 두개로 2밀리미터정도 간격으로 하고 그사이로 접합부금속열전달체를 운동시키자.

그 운동체를 퇴행시키는 동시에 웃날을 다시 공기압으로 0.5~1밀리정도로 순간적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면 박막실수물과 작업속도를 동시에 높일수 있다!

3

오늘은 8.28 청년절이다.

맑게 개인 하늘.

따사론 해빛을 받아 은구슬, 금구슬 뿌리며 흘러가는 대동강.

그 기슭에 자리잡은 청년중앙회관에서 호산이와 명금은 전국청년학생들의 소묘전시회장을 시종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관 출입문을 나섰다.

명금이가 하얀 팔목에 찬 콩알만 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5시 5분이다.

《아니, 호산동무! 어느쪽으로 가요?》

집으로 가자면 궤도전차를 타러 큰길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이다.

그들의 집은 같은 동에 있었다.

호산이가 돌아서며 벌써 웃었다.

도수높은 굽은테안경알속에서 까만 눈이 반짝거렸다.

《명금이, 우리 시간이 좀 있는데 유보도로 옥류교하고 대동교미를 지나 걸어가지 않겠어? 강바람도 슬슬 맞으며 얘기랑 하면서 말이야.》

《피—》

《왜?》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면 뭐라겠어요. ... 난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글쎄 나하구 저하구 친한 사이는 아니래도 같이 다니는거야 다 아는데 뭘 그래.》

《그래도 유보도는 싫어.》

《유보돈 나이트 처녀총각만 다니는텐가. ... 명금동무! 내 말대루 그쪽으로 걸어가자.》

《이럴 땐 명금동무로구나?》

《좋아! 이제부터 꼭꼭 동무라고 하겠어. 또 어떻게 하면 될가?...》

명금이가 해쭉 웃으며 호산이를 흘겨보았다.

호산이가 명금이를 앞세웠다, 반에 반보쯤...

둘이는 길을 건느고 제방뚝을 넘어 대동강유보도에 이르렀다.

그다음부터는 나란히 걸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천천히...

강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이거 무슨 말이든지 좀 하면서 가야지 사람들이 우릴 보는 눈치가 좀 이상해.》

호산이가 두눈을 깜박깜박거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병글서 웃으며 말했다.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살고있는 처녀와 총각이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저녁에 내가로 나와 큰 바위우에 앉았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입에 빗장을 질리운 사람처럼 총각이 통 말을 해야지. 처녀가 하도 속상해서 <달이 참 밝지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총각이 이때다 하구 <음— 나는 달이 환하게 웃는것만 같아.> 이러던가, 아니면 <달이 우리하구 무슨 말을 하자는것 같아.>, 좋기는 <달이 밝은들 우릴 흠쳐볼가. 여긴 우리 둘뿐이야.> 뭐 이렇게 애잡짤하게 말할줄 알았는데 <보름달이니까 밝지!> 아, 이랬다는거야. 정말 덜통스럽기 짝이 없는 총각이지.》

《으음— 동무한텐 그런 희떠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

《한가지 묻자요. 사출반에 정말 가겠어요?》

《그럼 가지 말란?》

《그거야 제 마음이지... 그거 가겠는가 묻는거지.》

《가야지 뭐. 포장반은 남자가 있을데가 못돼.》

《난 호산동무가 어느 작업반에서 일하든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일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야?》

《책도 보구 기술도 배우랴요. 그시그시 시키는 일만 하겠어요?》

호산이는 아무말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스적스적 걸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며 명금에게 물었다.

《명금동무 생각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상현동지가 하는 기술혁신을 도와주면서 기계 기술을 배우는게 어때요?》

둘이는 한동안 말없이 걸기만 하였다.

호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기술을 배우면 상현동지처럼 척척 새 기계를 발명해낼수 있을까?》

《시작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동문 결심하고 이악하게 노력하면 꼭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

호산동무! 그렇게 믿으랴요?》

《?!...》

호산의 머리가 천천히 수그러졌다.

둘이는 또다시 말없이 걷기만 하였다.

이번에도 호산이가 먼저 말을 뱉다.

《명금이... 아니, 명금동무!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충고를 하는거야. ... 이쪽으로 걸어가자구 할 땐 이 타산, 저 타산 하던 동무가 그런 말을 하니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명금이 걸음을 뚝 멈추고 호산을 지켜보며 되알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작업반에 청년동맹원이 나하구 호산동무하구 또 누가 있어요?》

호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꿈꿔 갑자르기만 하였다.

머칠이 지나갔다.

그동안 호산의 심리는 순편치 못했다.

대동강유보도에서 하던 명금의 말이 귀전에서 떠날줄 몰랐다.

내게 뭐 목적과 희망이 없다구?!... 하지만 아무리 따지고 살펴봐야 자기에게 그것이 정말 없지 않는가. 그시그시 시키는 일이나 한것밖에 없다.

목적과 희망이 없을진대 어떻게 앞날의 리상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야 명금이 자기에게 한 말은 자기를 비웃느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옳은 말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은 없어!

기술은 초보적인것도 모르니 희떠운 소리밖에 할게 없거던. 괜히 엇드레질만 하면서... 그제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야.

압축기실문을 빠금히 열고 호산이가 안을 살펴 보았다.

《문을 열었으면 들어와야지.》

상현이가 말했다.

《여기에 있는걸 온데 찾았어요.》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니?》

《상현동지를 좀 만나자구...》

압축기동음이 고르롭게 울려 퍼진다.

호산이가 작업대우에 펼쳐놓은 도면을 보았다.

《꽤나 복잡하군요!》

《배충조립도 같은데 대면야 아무것도 아니지.》

《참! 상현동진 해군에서 군사복무를 했대지요?... 기관장까지요. ... 음, 그래서 그렇게 기계숙을 잘 알고있군요!...

〈자유행정축이을손〉?! 거 이름부터 까다로운데요.》

《호산이가 일없이 오지야 않았겠지?》

《...상현동지! 이제부터 저한테 기술을 배워주지 않겠나요?... 당장 상현동지처럼 큼직한 기계는 창안 못해두 우선 우리 직장 설비들을 내속까지 다 알자구 해요.》

《호산인 사출작업반에 간다구 하지 않았니?》

《아무데 가든 나라고 뭐 시키는 일만 하겠어요. 나도 사내인데 희망을 가지구 뭔가 좀 해보자는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달라요.》

나두 상현동지 일을 뭐든지 힘자라는껏 돕겠어요》

《배워줘야지 뭐.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데...》

상현이가 우선우선하니 대답했다.

《정말이나요?!》

《정말 아니문.》

《야! 난 상현동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을줄 몰랐어요.》

호산이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배우겠다는거야 좋은 일이지. ... 그럼 어떻게 시작한다... 우선 이 압축기부터 배우자. 먼저 이걸 알아야 해, 왜 일용기계들은 동력을 전동기로 하지 않고 압축공기로 하는지...》

호산이가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듣고보니 그렇군요. ... 상현동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어요. ... 뭔가 하면 아예 내가 상현동지조수가 되자는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서 배우니 여러모로 실리적이겠거던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생산실습을 저레 배합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호산이가 잡도리를 보통 단단히 하지 않았는데... 호산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혹시 누구한테서 통을 맞은게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인가요? 상현동지두 내가 제 할 일도 찾을줄 모른다면 배워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래그래! 호산이 말이 맞아. 맞지 않구... 내 직장장동지한테 제기하겠어. 될것 같아. 아니, 꼭 되도록 해야지 뭐.》

《멋있어요! 내가 상현동지를 찾아오길 참 잘했어요》

《호산이와 마주앉으니 머리가 거뜨해지는게 기분이 좋단 말이야. ... 호산이 네 이름이 〈부를호〉 자에 〈셈 산〉 이라는게 맞니?... 회계원이 주머니가 그랬다던지. ...》

《거짓말이에요. 언젠가 회계원이 전자수판으로 두자리수자 곱하기를 했는데 내가 저보다 암산으로 더 빨리 답을 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내게 호걸처럼 마음이 크라고 〈호

결 호> 자에 몸은 산처럼 크라고 <산 산> 자를 달아주었어요.》

《그래, 좋은 이름이야. ... 그런데 어떻게 빨리 암산했니? 나도 그 비결을 좀 알아자구.》

《이거 뭐 학생이 선생한테 가르치는것 같아서 어색하군요. ... 우선 통속적인 수자들의 사칙계산값들은 쪽 통달해야 하는데 속셈의 기본방법은 복잡한 수자들을 간편한 수자로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실례로 25 곱하기 25하면 한 수자는 무작정 세 수자로 갈라야 해요.

10과 10으로, 또 하나는 5 이렇게 하면 쉽지요. 25에 10은 0하나를 붙이면 되니까 250이고 이게 두번이니 500, 5은 10의 절반이니까 125이거든요. 500에 125를 더하면 625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머리속에서 순간적으로 해치우면 전자수판을 5~6번 누르기 전에 암산해낼수 있어요.》

《거참 신통한데!》

방금전까지 신이 나서 설명하던 호산이가 시무룩해졌다.

《호산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자 호산이가 발췌 웃는다.

《상현동지! 나하구 대동강맥주집에 가자요!》

《난 원래 주자 달린 액체하군 인연이 멀어.》

《상현동지 주량이 적다는걸 나도 알아요. 실은 나도 같아요. 그걸 마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구 숨이 가빠지는게 ...

하지만 맥주는 청량음료이거든요.

내가 상현동지 조수가 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지나가겠나요?... 나두래일부터 지난날과는 싹 결별하구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겠어요. ...

그러니 이제부터 언제한번 상현동지한테 이러저러자 해보겠나요. 그러니 오늘만은 내 말대로 하자요. 뭘 그러나요?》

《항복이다. 두손 들었다, 하하...》

4

설비점검하는 날 공장적으로 직장별 순번 맨 마지막은 늘 치술직장이다.

치술직장에서 점검 마지막기대는 강모사압출기이다. 이 기대점검이 끝나면 치술직장과 동시에 공장적인 설비점검이 끝나는것으로 된다. 이 판례는 언제부터인지 어길수 없고 어겨서도 안되는것으로 되어왔다.

이것만 봐도 공장에서 핵심직장은 치술직장이며 치술직장에서 제일 귀중한 설비는 강모사압출기라

는것을 그닥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럼 이 판례가 치술직장설비들이 가장 현대적이기때문일까?...

아니다. 주요하게는 치술직장이 설비관리에서 공장적으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진철은 설비점검하는 날이면 새라새롭게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런 직장을 책임진 초급일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곤 한다.

오늘 공장적인 설비점검에 대한 총화모임은 치술직장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진철은 이자체도 자기 직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다.

모임에서는 설비관리뿐아니라 기술혁신에서도 앞장서고있는 치술직장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고무로 끝을 맺었다.

진철은 웅장그레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골몰한 상념에 잠겼다.

직장일이 잘된다는 평을 받을 때면, 직장종업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때면 진철에게는 자기 사업에 대한 보람과 자랑에 뒤따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더 잘할수 있는 일을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수 있는가.

내가 놓치고있는 일은 없을가.

내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치술자동포장기제작은 거의 끝나게 되었다.

윤상현은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자동포장기제작을 맡아나선 스공장을 분주히 오가며 그 제작을 마무리짓기 위해 눈코뜰새없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다.

내가 그를 도와줄수 있는 일은 더 없을가?...

오늘 설비점검총화에서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평가도 물론 완성날자를 눈앞에 두고있는 치술자동포장기에 대한 평가이다.

불현듯 몇년전 일이 떠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쓰는 폴리에틸렌박막은 일정한 너비로 잘라 속말대에 말아서 썼다. 그런데 그 말대가 부족하여 생산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꼈다.

뜻밖에도 공장에 입직한지 반년도 채 안되는 윤상현이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를 가지고 진철을 찾아왔다.

진철이 몹시 기뻐하자 상현은 신명이 나서 설명을 했다.

어느날 상현은 우연히 먼발치에서 기사장에게 설

명하느라 구내바닥에 퍼놓았던 설계도면을 기술공정원이 집어들고 두루마리를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차! 저것 봐라.

순간 상현의 머리속에서 하나의 착상이 번쩍거렸다.

비닐박막도 종이와 성질이 비슷하니 말대없이도 말수 있지 않는가.

그날 하루일이 끝나자 상현은 직장에 남아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모의실험을 했다.

하면 할수록 될수 있다는 흥분의 열파가 그의 온 마음을 그러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게 되면 조잡한 공정도 없어지겠으니 생산이 높아진단 말이지. 내 기사장동지한테 제기하겠소》

진철은 벌써 일이 다 된것처럼 기뻐했다.

기사장도 적극 찬성해주었다.

몇달후 상현의 첫 창고고안기체는 그가 군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첫 실탄사격훈련에서 과녁 중심중부에 명중한것처럼 단번에 성공되었다.

직장종업원들이 새 기계를 유지정속의 신비한 보물처럼 들여다보며 재간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공의 보람은 그의 가슴속에서 환희로 부풀어올랐다.

상현은 그 기쁨을 사람의 한생에서 느낄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진실한 기쁨으로 간주했다.

그후 인차 윤상현은 공장의 추천을 받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가소물기계과 전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부직장장이 방에 들어섰다.

《오늘 설비점검총화는 우리 직장에 대한 평가로 되었다는데...》

진철은 자기 생각을 거두고 그에게 말했다.

《나와 오늘 저녁에 윤상현이네 집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윤상현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산다.

《그의 어머니가 년로한데다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데 가정에서 애로되는 점이 없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너무 일만 일이라고 시킨것 같습니다.》

《그때문이라면 전 가지 않겠습니다. ... 그 어머니가 애로되는게 있다고 해서 직장초급일꾼들앞에서 척 터놓겠습니까?》

《그렇겠군요... 그럼 어쩐다?...》

《참! 회계원동무가 그의 집과 가까운데 그에게 적당한 구실을 붙여 보내는게 어떻겠습니까. 녀성들끼리는 통할겁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때에 회계원이 방에 들어섰다. 호산이 이름이

《부를 호》 자에 《웁 산》 이라고 했다는 그 녀자다.

《속담 그런데 없다더니!...》

부직장장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회계원이 컴퓨터가 있는 자기 책상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직장장이 방금전에 있는 대화내용을 알려주었다.

《어제 제가 식량공급표를 가지고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렇소?!... 어서 얘기하오.》

한진철은 침착한 어조로 재촉했다.

《직장장동지! 그 집 어머니가 벽지를 사다놓고 손이 떨려 바르지 못하고있는데 제게 사람을 한명 붙여주면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주면 고맙겠소!》

《다들 도와나서는데...》

《누굴 붙여주면 좋겠소?》

《포장반 명금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녀자들끼리만 될가?...》

부직장장이 한마디 했다.

《왜 두명이겠습니까. 명금이가 가면 호산이도 틀림없이 같이 가겠다고 할겁니다.》

치솔직장에만 아니라 온 공장에 퍼진 말, 호산이를 찾으려면 명금이가 있는데서 찾아야 하고 명금이를 찾으려면 호산이가 있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소문을 이들이 모를리 없었다.

《직장장동무!》 하고 부직장장이 말했다.

《말이 난김에 호산이를 사출반으로 옮기는 문제말입니다... 지금 호산이는 상현이한테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부직장장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호산인 역빠르고 머리가 총명해서 발전이 빠를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사장동지하고 토론해서 인차 보조수리공으로 직종을 바꾸어줍시다. 후비를 키우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되지요. 이거 정말 일할 재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다.

토론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기쁨의 미소가 넘쳐흘렀다.

그날 저녁 작업반장모임을 끝낸 진철은 사업수첩을 펴놓고 매일의 사업에 대하여 더듬어보았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니뭐니해도 치솔자동포장기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진철은 다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치솔직장입니다.》

저쪽에서 하는 통화자의 청높은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여기 스공장입니다. 제 상현입니다.》

《상현인가?! 내 직장장이요. 기다렸소.》

《직장장동지! 우리가 주문한 포장기부속가공을 오늘 현재 전부 끝냈습니다. 방금전까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수고했소! 매일 아침 첫시간에 운반조직을 하겠소. 뭐 다른건 제기되는게 없소?... 그럼 빨리 퇴근하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진철은 후— 하고 큰숨을 내불었다.

5

《박사선생님! 접수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컴퓨터화면으로 개별적인 기계부분품을 3차원 공간에서 동작형으로 움직여보던 머리 희끗희끗한 최학준박사가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응답했다.

《알겠소. 인차 나간다고 전하시오.》

경공업공장들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학 일용기계연구소에 찾아오는 먼회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연구소에서 연구한 새 기계들을 현장에 도입하며 생산현장에서 발명되고있는 기계의 제작과 도입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을 드바쁘게 하는 학준은 자신이 패기와 정열이 넘쳐나던 젊은 시절로 되돌아온것만 같았다.

《아니, 이게 일용품공장 치솔직장장동무가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선생님!》

그들은 치솔직장에 종전의 낡은 설비를 들어내고 새로운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어놓던 그때에 벌써 서로 면식을 익힌 사이였다.

학준은 진철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래, 생산은 여전히 잘 되고있겠지요?》

《그럼요. 전달에도 공장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을 했는걸요.》

《그렇게지요. ... 감격과 환희속에서 새 설비들을 설치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참, 세월두 빠릅니다.》

학준과 진철은 감회깊이 그때를 그려보며 회포를 나누었다.

진철은 자기네 직장에서 치솔자동포장기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그 동문》 하고 진철이 윤상현을 넘두에 두고 말했다.

《방도가 나서지 않아 지금 남들이 보지 않는데서 울고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돌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연구소와 박사선생이 대상하는 공장이 뭐 우리뿐입니까. ... 그래서 바쁘실줄 뻔히 알면서도 방조를 받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내게두 작년부터 연구해본 치솔자동포장기설계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진 가벼운 탄성이 진철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설비관리를 잘해서 설비만부하를 거는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가면 윤상현동무랑 우리 동무들이 굉장히 기뻐할겁니다.》

《직장장동문 이럴 땐 꼭 어린애같습니다.》

진철은 그 말이 조금도 노엽지 않은듯 웃음을 터뜨렸다.

학준박사도 덩달아 웃었다.

학준은 진철이 떠나간 후 자기의 치솔자동포장기설계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그러니 생산현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해보았던 말이지... 그럴수 있다. 그 일이 어떻게 연구소나 전문기관에만 해당한 일이라. 생산의 주인인 그들이 바로 그 생산을 높이는 기술혁신을 남의 일로만 여길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학준은 그 포장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길 없었다.

그 다음날 학준은 치솔직장사무실에서 윤상현의 설계도면을 자기 안과 대비하여 시간가는줄 모르고 분석해보았다.

기계적인 수행요소들은 윤상현의 설계가 우월하다. 학준은 그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접합때기장치만 봐도 기묘한 방법을 썼고 더우기 외측과 내측이 동시에 돌다가 외측은 서고 그 순간부터 내측은 역회전해야 하는 자유행정축은 확실히 기발한데가 있다. 아니, 전혀 새롭다. 이걸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발명권을 받을수 있는 새 기술혁신안이다.

이것이 빛이 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걸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우리의 량심이고 도덕이다. 그러자면 어떻게?...

학준은 그 해답을 바로 다름아닌 자신이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현장으로 갔다.

실패한 기계가 있는 곳에서 진철과 상현이, 호산이가 박사를 맞이했다.

《이 동무가 윤상현입니다.》

진철직장장이 학준에게 소개했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그럼 기계가동상태를 좀 봅시다.》

상현이와 호산이가 기계를 가동시켰다.

기계가동을 한동안 지켜보고난 학준은 혼연히 웃으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자동포장기는 됩시다. 신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 상현동문 실패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소?》

《박막이송과 치술공급주기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학준도 공감이라는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방도는 무엇이라고 봤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박막이송과 치술공급을 기계적으로 위치를 조절하여 맞추게 한것이 기본실패원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학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제 이들에게 방도를 대준다고 해도 기술적대책안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것이다. 그럼 그만큼 성공하는 시간이 늦어질것이다. 하루, 한시, 한초가 백날처럼 귀중한 이때...

《이걸 반소. 동무의 설계에 내가 연구한 전자수감장치를 결합시킵시다! 이것이 자동포장기를 가장 빨리 성공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학준은 자기의 설계안을 윤상현앞에 서슴없이 내밀었다.

상현은 놀라움에 찬 시선을 박사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러니 이걸 연구한 박사선생이 자기것은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내가 이걸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선생님!...》

윤상현이 감동에 겨워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실패를 극복할 방도를 찾지 못해 자신의 무능을 타매하던 피로움이 되살아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졌다.

《〈용감한 발명가〉 동무가 이렇게 감상적인데가 다 있구만. ... 상현동무! 중요한건 누구의 손으로 했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성공하여 생산에 하루빨리 도입하는거요. ... 지금 어디서나 래일을 향해 줄달음쳐달리고있는데 어제날의

발명이 오늘에는 낡은것으로 도태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선 더욱 그렇소. ... 우리 자기라는 개인올타리와는 싹 인연을 끊읍시다.》

《선생님!》

상현은 박사의 그 진정앞에서 폐부를 찌르는 충격을 금할수 없어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학준은 그러는 그의 손에 자기의 설계안을 쥐여주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이걸 료해하고 동무의 설계에 첨부하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소에 오오. 그때 다시 토론해서 우리 연구소 컴퓨터로 설계를 다시 완성하거요. 그 설계가 꼭 총화설계로 될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됐소. ... 나도 이번에 여기에 내려와서 배우는 점도 없지 않소.》

이번에는 호산이가 놀라와했다. 박사가 배울게 있다니?!...

《우리 연구사들이 현장에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서로 합심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확신했단 말이요. ... 참, 상현동무! 그 자유행정축 말이요. 그건 당당히 동무것이라고 말할수 있소.》

자부심을 가지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계속 분발하오.》

《!...》

호산이가 박사와 상현의 얼굴을 번갈아쳐다 보았다.

6

오늘은 드디어 치술자동포장기 최종시운전을 하게 된다.

상현은 어제 늦도록 호산이와 함께 제작완성된 부분품들을 총조립도를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시종 흥분과 긴장속에서 완성조립하였다.

얼마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으로, 얼마나 큰 공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속에, 얼마나 엇바뀌는 좌절과 확신의 교차속에서 이루어진것인가.

정말 이번엔 성공할가? 그러다 또 실패한다면... 아니야, 꼭 성공할거야.

모든 요소와 장치들이 자기 흐름을 타고 맞물려 자기의 성능상특성을 다 발휘할거야.

상현은 어제밤 꿈속에서도 성공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였다.

꿈은 언제나 반대라는데... 그렇다면 실패!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 상현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런 위구심이었다.

상현은 오늘 시운전을 남에게 맡기고 어데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을 누얏히고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긴단 말인가. 그는 오늘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오늘 하루동안만이라도 그 어떤 생각도, 일체 모든 사고를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공장에 출근한 윤상현에게 진철이 시운전을 오후 3시에 하게 했으니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라고 지시했다.

《직장장동지! 박사선생님에게도 알렸습니까?》
《다시 연구소로 연락하겠소. 꼭 오실거요.》

...

새 기계의 최종시운전을 앞둔 작업현장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압축기실문앞에서 몇미터 떨어져 웅크리고있는 치술자동포장기는 곧 고고성을 터뜨릴 순간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려상케 했다.

시운전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사장도 왔고 학준박사도 왔다.

《그래, 준비가 다 됐소?》

기사장이 진철에게 물었다.

《됐습니다.》

기사장이 박사선생에게 물었다.

《시작할가요?》

《그렇게 합시다.》

학준도 저우기 긴장된 표정이였다.

진철이 손을 들어 상현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호산이! 압축기 가동시키라.》

호산이가 압축기실에 쟁싸게 뛰어들어갔다.

명금인 벌써 시험할 제품을 대기시켜놓고 기다리는중이다.

시간이 무거운 긴장속에서 한초한초 흐른다.

1분도 못되어 압이 오른 공기가 자동포장기에 미쳐왔다.

윤상현이가 시동단추를 눌렀다.

《절크릭》, 《투-탁》, 《샤르릉》

기계의 모든 장치들이 맞물려 동작한다.

상현이가 명금에게 소리쳤다.

《명금이, 장입하라.》

명금이 안내대에 치술을 장입하였다.

어느새 현장에 있던 모든 직장종업원들이 모여들어 자동포장기주위에 어깨성을 쌓았다.

지금껏 사람의 손으로 하던 포장작업을 기계가 대신한다.

기사장이 말했다.

《작업속도를 측정해보오.》

속셈명수 호산이가 시간측정을 했다.

《초당 1.67개, 분당 100개입니다.》

그 말에 제품퇴출안내대에서 떨어지는 제품들을 살펴보던 상현이가 젖은 목소리로 보태였다.

《기사장동지! 박막실수률은 100프로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포장질도 종전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성공이란 말이요?!》

기사장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성공!》

《성공이다!》

《성공했다!》

기사장이 박사에게로 다가가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선생님!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웬걸요. 난 자기 의무를 수행했을뿐입니다.

포장기를 발명한 사람은 이 동무입니다.》

학준이 상현이를 내세웠다.

기사장이 그의 두손목을 부여잡았다.

《상현동무! 대단해, 장하단 말이요. ... 자! 동무들, 박수로 축하해줍시다.》

모두들 손벽이 깨어져라 박수를 쳤다.

정녕 성공이란 말인가?!...

아침까지 현실이 아니었던것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되었던 말인가!...

상현의 눈가에 물기가 번들거렸다.

호산이가 명금이한테 눈짓했다.

명금이가 준비해두었던 국화 한송이와 백일홍 한송이를 상현에게 주었다.

상현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젠 우리모두가 한 일입니다.》

...

현장에서 다시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왜 불안한가?

아니,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눈앞에서 자동포장기안내대에 치술을 장입하던 명금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포장기라면 그 장입마저 기계로 해야 하지 않는가.

오늘은 일체 모든 사고를 하지 않으려던 상현은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다.

7

이즈음 치술직장에서는 소문이라 볼수 없고 그렇다고 귀속말은 더욱 아닌 그런 말이 돌았다.

윤상현이가 더 큰 기술혁신을 한대!

혹시 포장반의 녀성작업반원들속에서 시작된 말이 아닐가. ...

치술자동포장기를 발명 한 윤상현의 일거일동에 대한 관심사가 직장사람들 누구나의 관심사로 된 이상 꼭 그렇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치술자동포장기가 완성된 후 윤상현은 이전보다 더 말이 적어졌다.

말이 더 적어졌다면 그만큼 생각은 많아졌을 것이다.

윤상현은 잠시간이면 자동화의 조종리론을 비롯한 여러 기술도서들을 탐독하고 치술대의 사출성형 후 제품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며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기도 하고 기대호상간 거리도 측정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상현이가 기사장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저를 불렀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기사장과 진철직장장이 동시에 상현을 쳐다보았다.

《동무가 요새 무슨 기술혁신안을 구상하고있는데 말해보요.》

《생각은 해보고있는데 아직...》

진철이 상현에게 그러지 말고 어서 이야기하라고 눈짓을 했다.

《...전 지금 치술종합생산체계에 대해서 구상하고있습니다. 치술대사출성형이후 식모, 사상, 검사, 포장, 중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포괄하는 자동화된 종합적인 생산체계를 도입해보자는겁니다. 기대별사이는 이송콘베아를 놓고 공정별 흐름들에 맞물림지구를 임의의 제품도 쓸수 있게 조절범위를 넓혀주어 설치하여 불합격품과 회수품을 영상수감장치로써 선별처리하자는겁니다. ...

그리구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시장치, 기록장치, 운반장치들의 조종을 컴퓨터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CNC화의 높은 단계인 유연생산체계요. 아주 대담한 환상이요. 우리 공장이라구 그걸 도입하지 못할 리유는 없소. ... 그래 동무생각엔 그걸 하자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보오?》

《유연생산체계는 현대기술의 종합체이니만치 전문가들의 방조없이 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연구소나 자동화연구소, 일용기계연구소들의 전문가들로 우리 직장에 대한 기술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장과 진철직장장이 마주보며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기사장동지가 벌써 그 기관들에 의뢰했소. 동무가 말한 그 기술조사그루빠가 우리 직장에 인차 내려오오. 동문 현장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 생산체계 배열이나 관리 등 많은 문제들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하오. 동무에 대한 기대가 크오.》

상현의 가슴속에서 이름할수 없는 기쁨의 충격이 세차게 일렁거렸다.

기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무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소. 이제 열리는 선군시대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 우리 공장을 대표해서 동무가 참가하게 됐소. ...

그 회의에서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토론하게 되오. 이번에 많이 배우고 오라구. 그다음 우리 힘을 합쳐 꼭 치술종합생산체계를 완성하지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예이다.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인가.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되어 새롭게 태어났단 말인가. 돌보시고 마음쓰셔야 할 일이 그리도 많으신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생활을 위해서라면 사소한것이 따로 있을수 없다 하시며 돌려주신 인민에 대한 우주와도 같은 그 사랑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던가!

내가 그런 공장, 그런 직장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다니!...

이 소식은 삼시에 온 공장에 퍼졌다.

치술직장에서 입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번 일이 참 잘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들 기뻐했다.

그들은 모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 상현이가 아니라 자기들이 참가하는것으로 생각했다.

조선속담

소심성(조심성)

-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 닭알섬 다루듯(한다)
-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 장님 징검다리 건너듯
- 한번 엮지른 물은 퍼담지 못한다
- 부처님앞에 초불 들고 들어가듯
- 나그네귀는 석자다

붓대여, 불멸의 자옥 걸음걸음 따르라

—최근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수필들을 더듬어보며—

김 학

오늘 우리의 수필형상수준이 한계단 오르고 있다.

주체문학의 대강 《주체문학론》에서 수필형태에 대한 고전적인 리론이 확립된 후 피타는 탐구와 열정을 바쳐온 작가들의 몸부림이 력력히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

걸음걸음 따라서...

수필이란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붓길 따라서》이다. 다시말하여 체험이나 느낌을 일정한 틀거리가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펼쳐보이는 산문의 한 형태라는것이다. 하지만 례의 수필들에서 강하게 받는 인상은 일반적인 상념의 붓길만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시대 사상정신, 위대한 령도의 자옥을 걸음걸음 따르고있다는것이다. 한치라도 드티거나 한걸음이라도 떨어지면 작가적운명의 젓줄기를 잃어버릴듯 하여 억척같이 따라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그 자옥이 회령의 언덕길에 찍혀지자마자 매혹의 붓대는 천리를 한달음에 북방으로 달렸고 [《회령의 녀인들》 엄성영 작, 주체99(2010)년 2호] 불멸의 그 자옥 비날론구내에 새겨지면 충정의 붓대는 남먼저 함흥행취재차에 몸을 실었다. [《열매 주렁지는 땅》 김혜인 작, 주체99(2010)년 4호], [《소원에 대한 생각》 최용호 작, 주체99(2010)년 4호], [《영웅들을 낳는 땅에서》 김창림 작, 주체99(2010)년 6호]. 그리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그 자옥 묘향산에 새겨지면 열정의 붓대는 등산길 굽이굽이를 더듬어갔고 [《길에 대한 생각》 김준구 작, 주체99(2010)년 3호] 믿음의 그 자옥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에 어리면 사색의 붓대는 아아한 언제우에 치달아올랐다. [《〈전기강〉》 김혜인 작, 주체99(2010)년

3호].

바로 그렇게 위인의 거룩한 그 자옥을 따라 우리의 믿음직한 붓대는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전선으로 가는 길》 김진경 작, 주체99(2010)년 6호], 중앙동물원으로 [《세계일주》 백성근 작, 주체99(2010)년 8호], 중국동북지방으로 [《인연과 뿌리》 김은희 작, 주체99(2010)년 10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으로 [《사과풍경》 한영실 작, 주체99(2010)년 11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으로 [《인연이 깊어가는 계절에》 변영옥 작, 주체100(2011)년 4호],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 [《철산봉의 인차대기실에서》 라광철 작, 주체100(2011)년 4호] 지체없이 달려갔다.

온 한해 최고사령부의 야전차를 따라 이 나라 방방곡곡 지어는 국경너머 먼곳에까지 견고걸으며 위대한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면서 전진의 보폭을 찍어간 그 길에 선군시대를 노래하고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알찬 수필들이 태어났다.

정녕 한편한편의 수필들에는 그야말로 선군조국의 청사우에 영원불멸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자옥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수필형태의 발전력사는 비교적 오래다. 자기 고유의 개념을 가지고 발생발전해오면서 일정한 변화도 있었겠지만 오늘 선군의 새 시대 우리 수필들의 혁신적면모는 참으로 놀랄만 한것이다.

오늘날 우리 작가들의 수필적체험과 느낌은 의례히 위대한 령도의 자옥에서 시작되고 전개되고 종결되고있으며 숭고한 그 대상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색과 탐구의 력점을 찍고 력사의 진리, 인생철학의 생명수를 뽑아올리고있다. 이것은 이 땅에 날에 날마다 일어나는 세기적인 변, 세계적인 창조물들에 례외없이 어려있는 위대한 령도의 자옥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인식의 결과라는 측면에서뿐이 아니라 선군의 붓대를 총대마냥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선 우리 작가들의 비상한 자세를 또한 엿보게 한다는데서도 적극 긍정할만 한것이다.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바로 서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결작, 위대성교양, 사회주의신념교양의 교과서와도 같은 명작의 주요징표의 하나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형상적 발견

다른 모든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수필도 언제나 작가가 새로 찾은 형상적발견이 있어야 한다.

형상적발견 다시말하여 문학적종자의 발견을 소홀히 하면 글은 필자의 느낌은 펼쳐보이지 않고 어디서 보고 들은 사실을 실무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될수 있다. 혼치는 않지만 지금 수필이란 모자를 쓰고 지면에 나타나는 일부 글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수필들에서 문학의 한 형태로서의 고유한 정서적향기, 사색적여운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폐의 수필들에서는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신한 생활감정속에서 의미심장한 철학을 밝혀내는것으로써 형상적발견을 출시킨 일부 수필들에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이것이 독자의 주목을 끈다.

《회령3미》중의 하나인 《너미》에서 선군시대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수필 《회령의 녀인들》이 그러하며 이 나라에 뻗어있는 모든 길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그 자욱을 따라 열려진것임을 심오히 확인한 수필 《길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러하다. 수필들은 생활과 현실의 자그마한 세부들에서도 선군시대를 노래하고 력사의 진리를 도출해낼수 있는 문학적종자를 품들여 찾아내어 풍만한 형상으로 펼치고 있다. 문학에서의 철학성은 곧 형상으로 안받침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수필 《〈전기강〉》은 제목이 그대로 작품의 기본문제점이며 형상적발견이다. 그 표현은 물론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의 말씀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시대어이지만 거기에 깃든 위인의 비범한 사색과 철학의 세계, 미의 세계에 가깝게 접근하지 못한 작가의 안목이라면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발견적인 제목이라고 할수 있다. 실지 수필에서 세계각지에 있다는 《향기강》, 《잉크강》, 《음악강》 등이 탐구되어 《전기강》의 거대한 시대력사적, 사회미학적의미가 비상히 부각되고있는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수필 《열매 주렁지는 땅》의 《열매》, 《소원

에 대한 생각》의 《소원》 등도 작가들의 심오한 사상미학적평가에 의하여 선택된것으로 하여 풍만한 형상을 담보한 주요한 세부로 되었다. 하여 수필의 주인공과 함께 독자들도 《자력갱생의 나무에서 가꾸어낸 승리의 열매... 향기롭고 더없이 감미로운 그 열매들을 마음껏 맛보며 소리치며 잘 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환희에 넘쳐 가슴들먹이는 것이며 《인민의 소원,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이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라고 숭엄한 감정속에 뜨겁게 확인하는것이다.

이밖에도 《태일을 싣고 흘러온 보통강을 통해 오늘의 우리 조국을 보고 태일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는 수필 《태일을 싣고 흐르는 보통강》[박경철 작, 주체99(2010)년 5호], 한꺼번에 74명의 로력영웅들이 배출된 사변을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키워내시는 위대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심을 절감하는 수필 《영웅들을 낳는 땅에서》 그리고 《인생의 걸음걸음은 전선으로 가는 길》임을 발견한 수필 《전선으로 가는 길》과 《아버지수령님 그 시원을 마련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다져가시는 조종친선의 그 력사적 전통이 있어 지나간 나날의 그 많은 세부들과 인연들도 다 새록새록 잊혀지지 않》음을 다감하게 사색하는 수필 《인연과 뿌리》, 완공된 대계도간 석지에서 《웃는 나라 웃는 조국》을 보는 수필 《웃는 땅에서》[박경철 작, 주체99(2010)년 11호] 등에는 딱딱한 소개에 급급하는 론리적사고에 앞서 심오하고 풍만한 생활철학을 중시하는 형상적사색의 흔적이 력력하다.

아직은 발견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미흡한 점들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예술적탐구의 궤도에서는 탈선하지 않고있다는데 우리가 가지는 락판의 리유가 있다.

수필-서정시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 또한 필자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고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신한 사상감정이 담겨야 좋은 수필이 된다는것은 주체적인 수필창작론의 요구이다.

산문으로 된 시... 남다른 얼굴... 수필이 명실공히 문학의 한 형태로 되게 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가 되자면 서정이 있어야 하고 서정은 남다른 얼굴로 표현된다. 남과 뚜렷이 구별되는 작

품의 얼굴은 필자의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신한 사상감정 그리고 그것의 개성적인 표현방식에 있다. 주인공의 남다른 얼굴이 뚜렷할수록 수필의 사상정서적내용이 더욱 명확해지고 개성적인 표현방식이 민활할수록 작품의 서정은 풍만해지면서 하나의 훌륭한 산문시가 태어나는 것이다.

레의 수필들이 이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나는 자강도에서 산다. 그 땅에 대한 유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자강도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

이렇게 시작부터 자기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수필 《전선으로 가는 길》의 주인공은 최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 남다른 체험과 느낌으로 선군시대 인간들의 걸음에 대한 자기나름의 철학을 풀고 있다. 20여년전 산골학교 교단에서 처녀시절을 보내면서 겪은 체험은 주인공의 한생을 관통하면서 참으로 인상깊은 인생리치를 깨우치고 있다.

어제날의 대학생, 수도에서 대학공부를 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의 추억, 재학기간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이따금 보통강기슭 건국동에 있는 처남네 집에 가서 보내면서 보통강기슭에 나와 사색도 하고 공부도 하던 주인공, 여기서 공부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년대가 삭갈려 도무지 기억되지 않는 문학사공부도 머리에 콕콕 잘 들어가군 한다는 수필 《태일을 신고 흐르는 보통강》의 필자는 체험이 개성적인것만큼 여운도 인상적이고 강하다.

이런 남다른 얼굴은 《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전기강〉》과 같은 수필들에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다. 물론 수필의 남다른 얼굴이 필자의 남다른 경력이나 직업, 나이, 성별 등에서만 표현된다는것은 아니다. 보다는 남다른 체험과 남다른 사색, 남다른 사상미학적발견에 있는것이다. 하지만 독자와 보다 가깝게 인사를 나누면 필자의 목소리에 더 진중히 귀를 기울일수 있다는것, 자기를 드러낸 친절성에 형상의 정서가 더 쉽게 발을 붙일수 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수필 《인연과 뿌리》는 형상의 또 다른 측면, 표현방식의 측면에서 남다른 얼굴을 보여준것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일정한 계기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여 이러저러한 체험과 느낌으로 일반화과정을 거쳐 해당한 주제로마끔 마감을 장식하는 일반적인 구성형식과는 달리 레의 수필은 소설의 자연, 정경묘사와도 같은 정서적묘사로 시작을 떼고 뒤이어 웅당 있을법 한 필자의 얼굴도 아직 드러내 보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제3의 인물이 불쑥 나타난다. 《수도 평양에서 공부하고있는 한 제대군인대학생처녀도 가을국화꽃뭉음을 들고 환송연도에 서있었다. 혹시 자기가 아는 얼굴이라도…》 이렇게 등장한 제대군인대학생처녀는 무대에서 인차 사라지지 않고 년대를 이어가며 형상전과정을 이끌어가고있다. 갈데 없는 소설이다.

수필은 조국해방전쟁을 겪은 제대군인처녀대학생을 내세웠고 그의 체험을 기본으로 필침으로써 조종천선의 력사적전통에 대한 의미를 생신하고 풍부한 사상정서로 펼쳐보일수 있었다. 제대군인처녀대학생은 바로 수필의 남다른 얼굴인 동시에 필자의 남다른 얼굴이다. 필자-딸의 얼굴이 제대군인처녀대학생-어머니의 얼굴로 굴절되었다고 할가.

많은 수필들이 서정시라면 이 수필은 담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수필에서 필자의 남다른 얼굴은 이렇게도 나타난다는것, 수필의 남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한 바로 여기에 수필 《인연과 뿌리》의 혁신적성과가 있다.

평자는 최근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수필들을 본 견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확실히 우리 수필들의 수준이 오르는것만은 사실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수필을 홀시하지 말고 이것도 문학작품이라는 인식을 바로 가지며 일생에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좋은 수필들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기 위해 언제나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속담

나약성, 무기력

- 두부살에 바늘뼈
- 불에 덴 강아지 앓는 소리
- 열흘길 하루도 아니가서 돌아선다
- 고양앞에 쥐(걸음)
- 풀자루 주저앉듯
- 산밖에 난 범(호랑이)이요 물밖에 난 고기라
- 물없는 기러기

내가 짠 천 입 니 다

리 정 녀

너무도 황홀하고 희한하여
무슨 말과 글로 다 표현하라
꿈인가 하였더니
아니구나 나는 지금 사람들 붐비는
우리가 만든 상품매대앞에 서있구나

평양제1백화점
아버이장군님 다녀가신 매대에서
고운 옷감천 사들고 상표를 펼쳐보니
평양방직공장 데트론인견천
정든 글발 나를 반겨 웃고있구나

평양방직공장 데트론인견천!
내가 내 손으로 짠 천을 보니
눈앞에 환히 어제런듯 어려오누나
봄날도 이른아침 아버지장군님
우리 공장 우리 일터를 찾아주신 날

천을 짜는 나의 모습 보아주시고
내가 짠 천을 쓸어보시며
이 천으로 녀성들이 옷을 해입으면
거리가 환해질것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신 장군님

복속에 살면서 복을 다 모르듯이
천을 짤 때는 다 몰랐던 천
내가 짠 천이 이렇게 좋은줄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 그냥은 못 지나
옷감 이불감 꿰어안고 가는 천

부엌세간 가득 안고 가는 새색시도
한벌 옷감 꿰어가지고 가는 매대
시집갈 딸을 둔 어머니들
잔치날 첫날옷감 고르는 매대
남자들도 안해의 옷감 고르느라 붐비는 매대...

아, 이것이 진정 행복이 아닐가요
모든 상품 우리의것인 궁지
내가 짠 천으로 옷을 해입고
내가 짠 천매대앞에 사람들 붐비는 모습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장군님 다녀가신 방직공장 직포공
이 천은 장군님앞에서 내가 짠 천
이 천으로 거리가 환하게 새옷 해입고
4월의 그날에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고마움의 노래 축원의 춤바다를 펼치자고...

우리는 매일에 산다

김 순 단

내 사는 교장은
수도에서 수천리
도시에서 수백리 머나먼 곳
지도에서도 선뜻 찾기 어려운 곳
거기에서 내가 살고 이웃들이 산다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보시라
조국이 크나큰 거목이라면
내가 살고 이웃들이 사는 교장은
그 거목의 가지에 피어난
한잎의 푸른 잎새

둘러보면

오붓한 마을을 품어안은 산밭과 벼랑은
사계절풍경 천연병풍인듯
산촌풍경 도시풍경 매일의 풍경까지 다 있는 곳
이곳이 내 나라의 한 교장 래일구

험한 산 굽이굽이 백여리 염소방목길은
도시의 룬환도로 그대로 옮겨진듯
언제우의 호수엔 염소 양떼 물마시고
언제아래 발전소의 은빛전선줄은
내 고향의 노래를 연주하는 악보의 오선인듯

래일구! 교장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들먹이는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고장이어도
행복의 끝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선 날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도시의 대학으로 아이들이 떠나가고...

방금전엔 도예술단배우들이 오더니
오늘은 중앙의 농업박사 설계가들이
한당대 여기서 살듯
연구설비 가득 신품 오고
설계가들의 측량기는 벌써
더 좋은 래일의 언덕에 세워지고

아이들도 이제는
평양의 손님들과 친숙하여
평양삼촌 평양누이 허물없이 부르는 고장
마치 도시의 한 구획이 여기에 옮겨진듯

도시의 살림집들과 처마를 맞대인 고장

아, 바라볼수록 눈물겨워라
나라일에 그리도 바쁘신 장군님
수도에서 수천리 먼곳 여기까지 오시여
이런 희한한 산촌마을풍경은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다고
그리도 기쁘시여

학교도 병원도 발전소도 호수도 다리도...
모든것이 도시를 꼭 닮았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신 어버이장군님
래일의 모습을 오늘에 안겨주신 장군님사랑속에
내가 살고 이웃들이 사는
오, 래일구 래일구!

작가일화

무 탈 수 없는 정의의 필봉

어느해인가 권필(1569-1612, 리조시기 시인)은 임무숙이 과거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권필은 그 리유가 무엇인지 대뜸 짐작이 갔다. 임무숙으로 말하면 이미 시짓기와 문장짓기에 이름이 있어 조정에게까지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항상 대바른 소리를 하는것으로 하여 그를 싫어하는 측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임무숙이 별시에 응시하여 광해군과 그의 처가족속들의 전횡을 징계하는 글을 써낸적이 있었다.

이 일로 하여 그는 과거시험에서 떨어졌다. 결국 임무숙을 싫어한 왕과 조정관료들의 작간인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어디에 가서 하소할데도 없었다. 당시 왕의 폭정과 그를 등대고 세도를 부리는 통치배들의 전횡이 극도에 달한 때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기가 일쑤였다. 특히 이미 권필과 원쑤진 류희분일족의 세도는 검은것도 희게 하고 흰것도 검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그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렀다.

(어떻게 할것인가. 류희분의 세도는 하늘에 닿았고 조정에서는 매일처럼 이러루한 비행이 계속되고있다. 서둘러 나서다가는 목숨이 위태

로울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정의의 글이 박해받는 참을수 없는 사태를 외면하고있을수야 없지 않은가. ...)

잠시 생각을 더듬던 권필은 곧 책상우에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다.

(내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정의의 필봉을 무디게 할수 없다. 한목숨이 아까워 진실을 외면하고 구구히 살아간다면 그 어이 옳바른 삶이라 하겠는가.)

결심을 가다듬은 권필은 곧 시 한수를 써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후날 그에게 죽음까지도 가져다준 유명한 시 《궁중의 버들》이었다.

궁중에 버들이 류달리 푸르기에
피꼬리 얇밋게 란장을 치누나
향락만 탐내는 부자집사식들
그런걸 봄경치라 아침을 하네

조정에선 태평세계 되었다고
신하들이 치하하기 바빠하건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실한 목소리
선비의 입에서 터질줄 알았으리

필요한 사람



김기범

《어째서 학민아바이가 혁신자명단에서 빠졌소?》

그러자 마치 이렇게 물어보기를 기다리고있었던 듯이 부직장장의 두툼한 입술사이로는 대답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혁신자선발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에 거의 보름나마 입원 하였으며 더우기는 직접적으로 기술혁신한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진명은 속이 답답해져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분기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는데서 큰 기여를 한 혁신자들을 공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의의있게 표창하기로 하였다.

공장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혁신자선발사업을 새 기준에 따라 하였고 부직장장은 마치 미리안을 가지고 기다리고있었던듯이 제일먼저 명단을 올려보냈다. 이 모든것이 진명이가 내화벽돌원료 때문에 ××광산에 나가있는 동안에 벌어졌다.

물론 명단에는 잘못 제기된 사람들이 없었다. 잘못이 있다면 부직장장이 직장장인 진명과와 토론이 없이 제멋대로 올려보낸것이였다.

《어느 하루도 조퇴나 지각이 없이 만출근하던 아바이가 심장병때문에 입원하게 된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지 않겠소. 그리고 이 동무들의...》 하면서 진명은 끝이 뭉툭한 손가락으로 앞에 놓여있는 명단을 쿡 찍었다.

《창의고안에도 오랜 기능공인 학민아바이의 남 모르는 방조가 있지 않겠소. 그렇지 않소?》

학민아바이를 극력 두둔하려드는 진명의 안타까

운 심정이 리해되어서인지 아니면 그의 말이 긍정되어서인지 부직장장은 아래입술을 약간 내밀고 고개를 두어번 끄덕거리였다.

《이제라도 아바이를 추가로 제기합시다. 아마 아바이에 대해서는 우에서도 반대하지 않을거요.》

마지막말은 의논이 아니라 거의 지시하да싶이한 말투였다.

《알겠습니다.》

부직장장 역시 쾌히 승낙하고 진명이가 더 다른 말을 할 기색이 없어보이자 나가려고 되돌아섰다.

《가만, 부직장장동무가 제대되어 우리 직장에 배치받아왔을 때 첫 반장이 학민아바이였지?》

《예, 학민동지에게서 로벽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도 그 아바이에게서 처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소.》

진명이가 어째서 이 말을 하였는지 그 속뜻을 알아차린 그는 마음놓으라는듯이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랬건만 진명의 마음은 전혀 개운치 못했다. 비오려는 하늘마냥 구름이 꾸역꾸역 무겁게 끼여만 가는 마음속을 활짝 개이게 하고싶어 진명은 창문을 활 열어제꼈다. 그러자 열려진 창문으로 무성하게 아지펄친 감나무가 먼저 안겨들고 그 너머로 번듯하게 세워진 공장혁신자영예게시판이 시야에 비껴왔다. 게시판에는 수십명의 사진이 나란히 배열되어있었는데 그속에는 학민아바이도 있었다. 해마다 달라지는 혁신자사진속에서도 아바이만은 말아놓은 자리인듯 그곳에서 변함없이 시뭇이 웃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나야 이제는 로쌍고 남은 파벽돌이지.》

언젠가 진명의 가슴을 아프게 찢었던 학민아바이의 말이 이 시각 다시금 귀가에 들려왔다.

그때 진명은 무슨 말을 하는가고 아바이에게 야단을 쳤었다. 비록 속으로는 세월의 눈비에 다스러져 풍화된듯 겁석해보이는 체구와 두둑한 이마에 폭 파그어진 주름이며 거무스름한 얼굴에 열기설기 뻗어간 주름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그 말이 옳을수도 있다는것을 어쩔수없이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마치 그 말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해마다 당당하게 오르던 혁신자명단에서 처음으로 제외되었으니 참 가슴저린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정말 학민아바이가 성쌍고 남은 돌이 되었던 말인가? 거방진 용해로결에 서면 어방없이 작아져 보이는 아바이였지만 일단 그 손에 맡기면 제집부뚜막이런듯 척척 허물고 쌓던 용해로대장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던 말인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아바이자신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배들에 대한 후배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비판해야 하는가? 모든것을 변화시키고야마는 무정한 자연의 법칙을 나무람해야 하는가?...

사실 공장적으로 아바이만큼 로를 손금보듯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언젠가 로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비상사고가 생겨 그 원인을 몰라 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할 때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아바이가(그때 아바이는 공장진료소에서 침을 맞고있었다.) 단번에 그 원인을 명중하여 직장에서 자기의 지위를 더욱 명백히 과시했었다. 그때 아바이는 흐뭇한 웃음을 입에 물고 다시 살아나 웁-웁- 힘차게 숨을 쉬는 로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었다.

아바이의 손에서 자라난 기능공들이 오늘은 직장은 물론이고 공장일군으로 자랐고 많은 기술자들이 아바이가 피땀을 바쳐 쌓은 귀중한 경험에서 보석같은 조언을 받거나 번개같은 착상들을 터냈다. 회의때마다 주석단에는 늘 아바이의 자리가 마련되어있었고 출근할 때에는 제일먼저 어깨를 들썩이며 씨엉씨엉 정문으로 걸어들어오던 학민아바이였다.

《우리 아바이앞에서는 지배인동지도 먼저 인사한다네.》

《이제 아바이가 인차 영웅이 될지도 몰라.》

이런 말들이 공장구내에 안개처럼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직장의 젊은 용해공들은 학민아바이와 함께 일하는것을 은연히 뽐내기도 하였다.

《나야 이제는 로쌍고 남은 파벽돌이지.》

아바이가 던진 이 말이 다시금 진명의 가슴벽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명이 다되어감에 따라 김빠진 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어쩔수없이 해체되군 하던 낡은 로들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이전에는 무심히 보고 스치던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아바이의 모습과 함께 겹치면서 류달리 확대되어 안겨왔다.

(아니다! 공장을 위해 한생을 용해로에 바쳐 살아온 아바이의 한생이 그렇게 미미하게 마무리짓게 할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기억속에 이름난 혁신자로, 용해로에 남아 말년을 궁지롭게 총화짓도록 해야 해! 이것이 우리 후배들이 로선배들에게 다해야 할 최대의 존경이고 지녀야 할 량심이 아니겠는가!)

문득 진명의 머리속에 아바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던 때의 잊지 못할 지난날의 일이 감회깊이 떠올랐다.

《이건 어디서 굴러온 덜된 녀석이야. 감히 당비서동지를 찾아가 때를 써? 버르장머리없이...》

직장장은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명이를 보는 순간 다짜고짜로 노기를 터치었다. 그 바람에 방안의 공기가 순간에 쩍 얼어붙는듯싶었다.

《직장장동지가 안된다고 무정하게 자르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진명은 미리 예견하고있었던듯 조금도 주점들지 않고 맞받아 말하였다.

《안된다면 안된다는걸로 알고 기다리란 말이요. 엇그제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에 가겠다는게 량심이 있소? 공장대학에 가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동무보다 못해서 가만있는줄 아오? 다 조직의 추천을 받아서 가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 말은 일을 잘하란 말이요. 성실한 녀석이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만 속에 바람이 잔뜩 찬 녀석...》

《배우겠다는게 바람찬겁니까?》

직장장의 마지막말은 아예 활활 타는 불에 뿌린 기름이 되었다.

《아하, 이것 바라. 동문 제대군인이지? 그러면 상급도 모르는가? 직장에 직장장이 왜 있고 작업반에 반장이 왜 필요하겠소? 이건 통 저밖에 모른단 말이야. 로장동문 왜 가만히 있소? 말 좀 하구려.》

하건만 옆에 앉아있는 학민로장(그때는 로장이었다.)은 줄곧 한마디 말도 없이 뚫어지게 진명의 얼굴만 바라보고있었다.

《전 무조건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추천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부탁이 아니라 과도한 흥분으로 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주먹을 내미니 몽둥이가 나온다는 격으로 더욱 강경하게 엮어서는 진명이를 보자 직장장은 아예 입을 딱 벌리고 고집스럽게 튀어나온 진명이의 이마를 노려보았다. 맞구멍이 날것만 같았다.

《로장동무, 저녀석이 왜 대학에 가겠다고 그러는지 아오? 글썄 처녀에게 채운게 분해서 저런다 질 않소. 뭐? 매년엔 무조건 대학생이 될테니 두고보라고 큰소리 쳤다나?》

《그게 정말이요?》

그제서야 로장이 처음으로 바위문을 열었다.

진명은 이번에는 로장과 맞설 차비였다. 까짓거 이왕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아무것도 꺼릴것이 없었다. 결심은 확고하고 이미 땅크는 떠난 이상(그는 땅크병출신이였다.) 앞에 수립이든 진필이든 뱀다 밀고나갈 배심이었다.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로장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퍽 부드러웠다.

《배짱이 있구만.》

뜻밖의 말에 의아해진 진명은 앉아있는 로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따위 배짱은 없는것보다 못해. 그래 로장동무, 이녀석을 어떻게 하자우?》

직장장에게는 이미 대학을 보낼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진명이를 어떻게 교양할것인가가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여기서 두말할것 없지요. 보냅시다.》

《보내다니? 대학에 말이요?》

직장장보다 진명이가 더 깜짝 놀랐다. 두사람의 눈길이 동시에 용해로의 불길에 그슬릴대로 그슬린 로장의 검붉은 얼굴에 날아들어 박혔다. 하나는 기쁨과 희망의 빛이, 다른 하나는 실망과 지어는 섭섭한 눈빛이었다.

《누가 대학에 보내자우? 저 손을 보니 분명 진동기수리를 하던것 같은데 마저 하라고 여기서 내보내잔 말이요. 로동시간에 일을 해야지 욕먹고만 있겠소? 나가보라구, 저녁에 따로 만나세.》

맥이 탁 풀렸다. 잔뜩 켜기였던 긴장이 순간에 허물어지였다. 《혹시》라는 한가닥의 실오리같은 희망마저 매정하게 끊어져버리자 진명은 언제 펄펄 뛰던가싶게 비맞은 수닭같이 후줄근해져서 러벅러벅 나오고말았다. 땅크로 끌어내도 기어이 양버티려던 각오와 용기가 아버지의 엄엄한 눈길앞에서 물먹은 담벽이 되었던것이다.

전동기를 수리하다가 현장을 돌아보는 당비서동지를 눈에 띄어보고 하던 일을 내던지고 막 달려

갈 때에는 신심이 넘치여 일이 단번에 해결될듯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망신스럽게 끝날줄은 몰랐다.

일감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는 뜬어놓은 전동기결에 한참동안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그날 저녁 일을 대충 거두고나서 목욕을 하려하는데 로장이 그를 불러세웠다.

《부문당비서동지가 찾네. 이제 가보라구.》

(그러니 이제는 부문당비서동지에게서 욕먹게 되었군!)

대뜸 이런 짐작이 들자 기분이 탁 잡치여진 진명은 반발하듯 돌아서버렸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것은 꾸중이 아니라 한장의 대학입학추천서용지였다.

《우리는 로장동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무를 공장대학에 추천하기로 했소. 직장장동무도 동의했소.》

《예?》

진명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책상우에서는 그의 이름 석자가 뚜렷이 씌여진 추천서용지가 진명이를 올려다보고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요구조건이 있소. 그걸 약속해야만 우리는 이 추천서를 주겠소.》

《?》

《규산염을 전공해서 새로운 내화벽돌을 연구하겠다는걸 약속하겠소?》

진명은 부문당비서의 진지한 눈빛앞에서 선향 대답할수가 없었다. 입술이 말라들었다. 사실 진명이는 대학에 가야 하겠다는 갈망뿐이었지 무엇을 전공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갈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물이면 되지 그것이 무슨 물인가는 마신 다음의 문제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진명이에게 가야 할 길을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아마 틀림없이 로장동지의 생각일것이라고 진명은 생각하였다.

정작 일이 이렇게 번져지니 생각이 자연 많아졌다. 희망이 드디어 실현된 이 시각 웅당 기뻐해야 하겠으나 그 희망이 너무나 돌발적으로 그리고 바라지 않던 곳에서 찾아왔기에 오히려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우선 대답부터 해놓고 보자는 유혹이 검질기게 머리를 쳐들었으나 차마 량심에 걸리어 입을 열수가 없었다. 일단 승낙한다면 이 시각부터 진명의 인생은 내화벽돌과 이어지게 된다. 앞에서뿐아니라 뒤에서도 또 다른 눈길이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 그것은 조용히 들어선 로장의 눈빛이었다.

마치 불속을 들여다보며 로온도를 가늠해보듯 그 눈빛은 갈피잡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진명의 마

음속을 예리하게 꿰뚫어치는것 같았다.

《억지로 시키려는것은 아닐세. 내화벽돌의 질이 좋지 못해 결핍하면 로를 세우고 보수해야 하는게 가슴아파서 내가 제기한거네. 다른 사람이 해주길 앉아서 기다릴것없이 로의 주인인 우리가 새 내화벽돌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우린 자네를 추천했네. 그러니...》

《우리》라는 말이 진명의 가슴을 드세게 울렸다. 그 《우리》속에는 자기를 눈이 빠지도록 다 불러세우던 직장장이며 앞에 있는 로장과 부문당비서 그리고 세포비서를 비롯한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이 다 들어있었던것이다. 수많은 손들이 그를 대학에 가라고 떠밀고있었다.

비록 낡고 불품없는 로이지만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혈여가는 내화벽돌 한장한장을 떨어뜨려가듯 살점처럼 아프게 느끼는 진실한 마음들이 그대로 느껴져와 잡생각을 할 태워버렸다.

진명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약속을 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노력해도 새 내화물재료를 연구해내지 못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명은 눈길을 바닥에 툭 떨어두고 조심히 근심을 터놓았다.

《그렇수도 있소. 또 성공한다 해도 혹시 그때 가서 우리가 없을수도 있소. 그러나 우린 동무를 믿소.》

《뭘 보고 말입니까?》

이 물음에 두사람은 눈을 맞추고 입귀에 웃음을 그리었다.

《동무가 쉽게 대답했다면 믿지 않았을거요, 허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것을 보았소.》

《예?》

《동무에겐 자존심이 있거던. 그거요!》

자존심! 이 말이 그때 얼마나 그의 가슴을 드세게 울려주었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짜릿해오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진명은 공장대학에 입학할수 있었고 높은 성적으로 졸업해서는 끝내 새로운 재료의 내화물연구에서 성공하여 공장의 기둥으로 떠받들려왔다.

진명이 성공한 날 학민아바이가 달려와 그를 얼싸안으며 등실등실 올리추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치 자기가 연구해낸듯이 진명이보다 더 기뻐하는것이였다.

《이젠 마음이 좀 놓이오. 이제부터 자네 내결에서 못 떠나. 우리한테 동무가 꼭 필요한거던, 허허허...》

사람이 자기가 대중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되었을 때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한 때는 없다. 그날 진명이라도 얼마나 감격하여 로장을 힘껏 포옹했던가!

어느덧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지금은 진명이가 현대적인 유리공장의 기본생산단위를 책임진 일군이 되였다. 하긴만 학민아바이는 여전히 반장이였다. 진명은 가슴이 아팠다. 아바이의 손길에 받들려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직장과 공장의 일군들로 자라난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언제부터 학민아바이를 눈아래로 보게 되였는가!

인간의 가치를 나이나 학력의 높이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 지금 공장실태만 놓고봐도 일부 기술자들은 대학을 졸업했다고는 하나 제구실을 하지 못하여 대중의 뒤소리를 듣고있다. 인간의 가치는 학력의 높이가 아니라 그가 이룩해놓은 업적이 정하는 법이다.

진명의 가슴속에는 아바이를 만나보고싶은 충동이 불쑥 치밀었다.

사무실에서 나와 용해로를 찾아가니 아바이는 마침 젊은 용해공들과 함께 로앞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나날이 주름살이 늘어나는것이 가슴에 아릿하게 박혀왔다.

그가 처음으로 아바이를 만났을 때에는 로벽같은 앞가슴과 용해로를 통채로 둘러쌀것만 같은 든든한 어깨에 저이기 위압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어깨가 휘우듬히 굽어져있어 과연 저 어깨에 한개 작업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울수 있을가 하는 우려감까지 들었다.

《반장동지, 로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명은 아바이가 말없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로에서 방금 들어낸 내화벽돌에 눈길을 던졌다.

1 500도를 헤아리는 고열속에서 엷처럼 질질 녹아 불품없이 엉켜붙어버린 덩어리들을 보느라니 자연히 기분잡혔다. 사실 그 내화벽돌은 그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였던것이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자신의 공지로 될수 없다는 수치심이 갈마들어 진명은 바라볼수가 없었다.

현실태는 지금의 내화벽돌로써는 현대적인 용해로를 보수하기 극히 어려우며 보다 더 질높은 내화물이 절실히 필요됨을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저것도 이제는 폐물이 되어가네.》

아바이의 불만은 마치도 불품없이 녹아붙은 폐벽돌이 아니라 저런 구실 못하는것을 만들어낸 진명이 자기를 두고 꾸짖는것처럼 들려왔다. 아마 다른 사람이였다면 반박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학민아바이앞에서는 차마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마치 자기의 자식이 놀림당하기라도 한듯 진정으로

괴로와하는 아바이를 보니 진명은 그앞에 있기가 더욱 웅색해졌다.

진명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바이는 녹아 버린 벽돌을 구석에 세워놓은 오물통속에 휙 집어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진명의 가슴복판에 날아들어 비수같이 박히는듯싶었다. 비록 버림받고 못났 다 해도 어쨌든 자기의 자식이었던것이다. 허나 지금은 실지로 구실 못하는 자식을 두고 무어라고 변명할수가 없었다.

《제기되는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반장보다도 먼저 옆에 있던 반고수머리 청년이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며 한마디 했다.

《요즈음 로보물자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리과장동지에게 의견을 제기했더니 나보고 철이 없다질 않습니다. 아니, 글썄 도리어 불평분자라고 큰소리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깍에 성이 나서 얼굴까지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제가 규정외에 더 달라고 요구합니까? 응당 해결해주게 된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도 제 권에서...》

《됐네.》

아바이의 이 한마디 말이 반고수머리청년의 말을 뭉쳐 잘랐다. 그러자 청년은 자기 입을 꼭 막아놓은 반장아바이가 맞갖지 않았던지 횡하니 기름통을 집어 들고 원료분배기뒤로 사라졌다.

《그게 없어서 일 못하는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게 있네.》

아바이는 진명이의 얼떠름해진 표정을 얼핏 보고는 장갑을 깔고 앉아 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다부진 몸집의 청년에게 눈을 주었다.

그는 공장적으로 명성높은 창의고안명수로서 공장대학에 다니고있는 용해로장 영민이었다.

《저녀석이 지금것보다 더 좋은 우리 내화벽돌을 만들겠다고 무섭게 달라붙었네. 공장도서관에 가서 연구에 필요한 책과 잡지들을 찾으니까 없다고 하더라누만. 그러면서 공장이 갓 꾸려진 뒤여서 그러니 랑해하라고 하더라나. 내 그래서 어제 지배인을 찾아가서 푹푹한 책 하나 갖추어놓지 못한것이 무슨 놈의 도서관이냐고 들이댔지. 랑해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랑해해서는 우리가 발전할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랬네.》

《지배인동지는요?》

《허허 웃더구만. 그러면서 지금 공장에서는 아예 컴퓨터도서관실을 새롭게 꾸릴 결심이라더군.》

아바이는 말을 마치고 눈길을 들어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진명이도 그의 눈길을 쫓아 그곳을 바

라보았다. 거기에는 《최첨단을 돌파하라!》라는 글발이 나래치듯 힘있게 씌여져있었다.

《저 글발을 볼 때면 난 어쩐지 죄송스러워. 속담에 겸손하면 발전하고 우쭐대면 뒤떨어진다고 했어. 지금 자기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다, CNC기계를 성공했다, 주체비료를 만들어냈다 하면서 남들은 버쩍 뚫고있는데 우린 현대적인 공장으로 생산을 팡팡 하는데 만족하기 시작했거던. 글썄 아직도 일부 자재는 수입해오면서도 말일세. 그게 어떤 돈인가!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랑, 과자를 제대로 사먹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자고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한 자금이 아닌가. 난 도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수 없구만.》

진명은 허허 웃고말았다. 아닌게아니라 생산원료를 100프로 국산화하면 얼마나 리상적인 일인가. 하지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연료와 원료, 자원이 모두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어느 나라든지 선진기술과 원료자재의 수입은 불가피한 법이다.

《어찌겠습니까. 수입하는것이 더 실리적인 때도 있습니다.》

진명이는 《실리》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어 강조함으로써 경제는 결코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것이 아님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그런건 나도 알아. 내 말은 수입하는게 실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일세.》

아바이는 할 말을 다 했다는듯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엉치밑에 깔려있던 장갑을 손에 집어들었다.

《영민이네를 잘 도와주자구. 우리가 이미전에 해놓았어야 할 일인데 지금 저녀석들이 걸머지고 아글타글 애쓰고있거던. 난 영민이가 마음에 들어, 자존심이 강하거던!》

(자존심! 내가 언제 아바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었던가?)

그렇다. 10여년전 우리는 동무의 자존심을 보고 대학에 보낸다고, 자기 뭇까지 합쳐서 더 많이 배우고 오라고 수표란에 이름을 큼직하게 휘갈겨 쓰던 아바이!

그날 저녁일이 다시 머리속에 떠오르자 고맙던 그때의 흥분이 다시금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하였다.

(아바이는 한생 잊지 못할 은인들중의 한사람이니 내가 직장장으로 있는 한 끝까지 그를 내세워야 한다. 이번 혁신자축하모임때에도 아바이는 당당히 주석단에 앉아있어야 한다.)

진명은 그길로 당위원회회를 찾아가 자기의 이 심

정을 털어놓았다. 그때 당비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진명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장장동무, 혁신자선발기준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공장참모부에서 집체적토의끝에 세운것이니 누구도 이것을 어길수가 없습니다. 인정에 사로잡혀 원칙을 흥정하는건 아니겠지요?》

《그런건 아니지만...》

《직장장동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기 위해 온 나라가 분발해나선 오늘의 시대에 혁신자라는 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맡겨진 생산과제를 남보다 육체적으로 두배, 세배 해제끼는 사람을 혁신자로 보았다면 오늘날에는 기술을 아는 사람, 두뇌로 일을 해제끼는 사람이 진짜 혁신자입니다. 공장에는 이런 혁신자들이 필요 합니다. 이번에 많은 동무들이 큰 자극을 받고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이문제는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청사문을 나서서 맥없이 돌아오는 진명의 마음은 발걸음보다 더 무거웠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바이의 인생이 하강선을 굽기 시작하는것인가? 늙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대우인가? 나중에는 서글픈 심정을 안고 년로보장수속을 하게 되겠지?

문득 《직장장.》하고 찾는 소리에 머리를 쳐든 진명은 서너걸음 떨어진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학민아바이를 보는 순간 흠칫 놀랐다.

《생각에 푹 빠졌구만, 찾는 소리를 못 듣는걸 보니.》

진명은 착잡하게 얹힌 심정을 아바이에게 엿보일가봐 급히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어디에 가십니까?》

《당비서동지를 만나러 가네.》

《예? 당비서동지를 말입니까?》

진명은 의아한 눈길로 아바이를 마주보았다.

《방금전에 날 찾아 용해로에 왔댔다는구만. 그래서 무슨 일때문인지 만나보려고 그러네.》

그리고는 더 길게 말할새가 없다는듯 결쾌있게 돌아서서 청사현관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이는 들었어도 걸음씨는 여전히 씨원씨원한것이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

그 모습을 뒤에서 눈으로 쫓는 진명이의 눈앞에는 용해로앞에 오면 고급담배를 갑채로 꺼내놓고 대신 학민아바이의 마라초를 달래여 구수하게 말아피우던 당비서의 모습과 방금전의 판사람같이 엄엄하던 모습이 흑백처럼 선명하게 대조되어 떠올랐다.

얼마후 공장은 공장창립기념일을 의의있게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선진과학기술이 도입되고 최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종합적인 유리생산기지를 풍치수려한 대동강하류기슭에 번듯하니 일떠세웠다. 이전날의 재래식방법으로 유리를 생산하던 낡은 공장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멋쟁이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공장이 우뚝 솟아 밝은 유리들을 팡팡 생산해내고있었다.

공장창립기념일을 맞으면서 공장에서는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들을 조직하고 종업원들에게 안겨줄 후방공급물자도 푸짐히 마련하였으며 특히 체육경기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를 본때있게 다그쳤다.

이날 온 공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처럼 기쁨에 넘쳐 흥성거리었으며 모두의 얼굴마다에 웃음과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더우기 이번 체육경기들에 지배인과 당비서를 비롯한 공장의 책임일꾼들부터가 빠짐없이 선수로 출전하는것으로 하여 직장마다 승벽심들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비서동지, 오늘경기때 공격선에 서지 말고 방어만 착실히 서주십시오. 그 나이에 어떻게 펄펄 달리시겠습니까.》

축구경기시작전에 판유리직장팀의 오른쪽날개가 푸점 좋게 웃으며 당비서를 은근히 떠보았다.

《무슨 소릴!... 내가 공격을 해서 공을 차넣어야 저 원료팀의 문지기가 공을 못 잡아.》

《왜 말입니까?》

《내가 슛한 공을 잡으면 직장장직무에서 당장 해임시키겠다고 단단히 울렀다니까.》

《와하하!》

당비서의 툇담에 주변에서 호탕한 웃음들이 터졌다.

첫 경기는 그 시작부터 치열했다. 공장종업원들의 대부분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권장하고 끼곳한 체대군인들이니 승벽심들이 여간 드세지 않았다.

《경기는 힘을 다해 이기는것이 도덕이다!》

1점을 놓고도 전혀 양보를 모르는 완강성과 체면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기질들로 하여 운동장은 그대로 격전장같았다.

격전은 운동장안에서뿐아니라 밖에서도 벌어졌다.

두 팀의 응원대장들이 재기를 부리며 맹활약을 하니 흥겨운 출가락들이 다 나오고 재간들이 펼쳐졌다. 오죽하면 길손들이 발걸음 멈추고 이 광경

을 지켜보며 《평양에서 배우들을 데려왔구만!》
하고 감탄까지 하였으랴.

백열전을 이룬 경기는 드디어 마감에 이르러 사
람찾기종목으로 이채를 띠게 되었다. 공장일군
들이 제각기 직장들을 대표하여 출발선에 나섰다.

앞가슴에 《판유리》라고 주먹같은 글자들이 씌
여진 파란색운동복을 입은 당비서가 축구화를 신
은 발을 구르며 출발신호를 긴장속에 기다리었다.

《땅!》

신호총성이 울리자마자 제일먼저 30대의 기
사장이, 그뒤로 50대의 당비서가 앞사람의 잔
등을 받을듯이 바투 따라서서 종이쪽지들이 가지
런히 놓여있는 책상앞으로 썰하니 달려왔다.

《학민아바이! 학민아바이!》

당비서는 신호수처럼 종이쪽지를 머리위로 높이
쳐들고 휘두르며 소리쳤다.

《응? 나를?》

객석에 앉아있던 아바이는 당황해하였다. 순
간에 사방에서 여러개의 손들이 뻗쳐와 어서 앞으
로 나가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떠밀었다. 아바
이가 잠시 머뭇거리는데 당비서가 단김을 뽑으며
썰하니 달려들어왔다.

《학민아바이, 빨리요.》

《전 심장이 나빠서 뛰질 못합니다. 제대신 이
걸 가지고...》

학민은 자기의 모자를 획 벗어서 당비서에게 내
밀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아바이를 등에 들쳐업었다. 그
러자 우뢰소리같은 응원합성이 뒤따라 터져올
랐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아바이 이겨라!》

《달려라, 달려라, 우리 당비서 달려라!》

진명 역시 감동적인 장면앞에 몹시 흥분되어 그
들의 뒤를 따라 달리며 목청껏 소리쳤다.

《당비서동지, 힘을 내십시오.》

아닌게아니라 자기만 한 체구의 아바이를 업은
당비서는 헉헉 숨을 틔으며 어지간히 무거운 발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서 아바이를 내려놓았다. 그보다는 아바이가 고
집을 부리며 기어코 내려섰다고 해야 옳을것
이다.

《비서동지, 내 발로 뛰겠수다. 자, 뽀시다!》

그리고는 당비서의 손을 덥석 잡고 앞으로 달렸
다. 《와!—》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온 운동
장이 따라나서며 응원을 하였다. 결승선에 이 두
사람이 먼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유리물
처럼 하나로 융합되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드

여 그들이 결승선에 들어섰다. 비록 먼저 들어서
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은 1등한 선수들보다 더 많
은 꽃다발과 축하의 인사들을 앞을 다투어 안겨주
었다.

진명이 역시 학민아바이를 찾아와 기어이 함께
달린 당비서가 진정으로 고마와서 감격의 박수를
치고 또 쳤다. 아무리 힘껏 쳐도 손바닥이 아픈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진명은 아바이와 함께 저녁노을빛을
함뿍 몸에 끼었으며 어깨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직장별로 들썩하게 야유회
를 마치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흥그러움이 사라지지 않아 서로가 유쾌히 통을
주고받으며 활기있게 걸어갔다. 앞에서는 원료
직장장이 자기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당비서가 차넣은 공을 막아냈는가를 익살을 섞어
가며 떠드는 바람에 연방 웃음이 날아올랐다. 뒤
에서는 영민이네가 축구경기에서 진것을 두고 못
내 분해하면서 래일 교대를 마친 후 다시 경기를
해보자고 욱욕 기세들을 울리고있었다. 그러나 오
직 그들 두사람만이 묵묵히 마치 오늘 아무런 일
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던듯 조용히 발걸음만 옮
길뿐이었다.

원래 입이 무거운 아바이였지만 오늘따라 더
욱 철문같이 꼭 다물린 입을 보니 도무지 그 심
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명은 짐작키 어려
웠다.

아바이는 경기상품을 팔에 꼭 안고 걸어가고있
었다. 불현듯 당비서의 등에 업혀가던 아바이의
어린애같던 모습이 떠올라 부지중 웃었다.

《오늘 당비서동지가 아바이를 업고 달린것을
두고 반영들이 좋습니다.》

진명이가 먼저 지루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래, 우리 당비서같은 일군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

이렇게 수궁하는 아바이의 눈빛이 펍 부드러워
졌다.

《허허참, 이젠 내가 남의 잔등에 업히우는 신
세가 되었구만. 망신했어, 망신했다니까.》

학민의 중얼거리는 말에 진명은 얼떠름해졌다.

《예, 망신이라니요? 아바이 혼자 괜한 생각
을 하십니다. 모두가 아바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오늘 보셨지요?》

진명은 입을 꼭 다물었다. 아바이의 눈빛이 순
간 엄하게 변했기때문이었다.

《존경한다구? 난 그런 존경이 싫구만. 혁신
자가 못되는 사람을 혁신자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경기에서 진 사람을 이긴 사람보다 더 내세워주는

존경은 바라지 않아.》

진명은 말문이 막혔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 듯
섬섬한 생각이 소리치며 흘러들었다. 아버지를 마
지막까지 한모습으로 내세워주자고 애쓰는 사람들
에게 고맙다고 따뜻이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자기를 망신시켰다고 고깝게 여기니 이것
을 두고 늙은이의 괴벽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다시 침묵속에 길을 걸었다. 뒤에서 따라
오던 영민이네들이 어느새 앞으로 활기차게 걸
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들의 어깨마다
에는 배구공이며 축구공들, 기타와 손풍금이 제각
기 들리워져 들썩거리고있었다. 아버지의 생각깊어
지는 눈길에 그들의 뒤를 바라보고있었다.

《난 말일세.》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저녀석들이 컴퓨터로 용해로를 고분고분
길들이는것을 보며 생각되는바가 많네. 세월이
참 얼마나 달라졌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
리가 한해동안 뽑던 유리를 지금은 저 애들이
한달만에 보란듯이 생산해내니 말일세. 10년이
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이제는 맞지 않는다
니까.》

진명은 아버지의 감동이 얼마든지 이해되었고
공감이 갔다. 종전의 낡은 생산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세계적인 추세인 부유식흐름생산공정을 받
아들이고 그에 맞게 설비들도 모두 현대적으로 개
조한 결과 공장의 연간생산량은 일약 십여배로 뛰
어올랐으며 그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공장에서
는 이 과정에 과학기술의 위력을 다시금 확신하고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공장의
운명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내밀고있었다. 그러
다보니 이 공장은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대학졸업
생들과 현재 공장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있었다.

《난 말일세, 날이 갈수록 확실히 내가 뒤떨어
졌다는것을 느끼게 돼. 가만! 내 말을 막지 말게.
옛날에는 기사들이랑 기능공들이랑 날 찾아와 이
것저것 많이 물으며 내 조언을 귀담아들었지. 그
때는 사는 맛이 있더라니까. 지금은 말일세, 오는
사람들이 별반 없구만. 또 오는 사람들마저도 내
말을 들어보고는 그다지 시원치 않아하더라니 말일
세. 이게 뭔가? 응? 이젠 내가 낡았다는거지. 음,
그렇지 않구. 후회되더구만. 정말이지 한창나이때
더 많이 배우지 못한게 후회되네.》

혼자서 묻고 대답하면서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후회를 깡그리 쏟아놓는 아버지의 곁에서 진명은
감히 입을 벌릴념을 못했다.

아버지는 말을 꺼낼 때처럼 갑자기 입을 꼭 다

물고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다.

진명이는 마침 피우려고 꺼내든 담배곽에서 한
대를 권하고 자기의 라이타불을 켜다.

《로장동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경험은 절
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지난 시기 로장동지가 세운 공로는 그냥 남아있다
니까요.》

진명은 저도 모르게 《로장》이라고 옛직무를
불렀다. 단들이 있는 이 시각 어쩐지 수년전 홍안
의 제대군인총각시절처럼 《로장동지》라고 부
르고싶었던것이다.

학민아버지는 반백이 되어버린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난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려먹는 사람이 아니
야. 지난날의 공로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휘두르면
존경이 아니라 동정을 받게 돼. 그다음엔 미움으
로 되거던. 난 동정이나 받자고 한생 피땀흘려 일
한게 아니야.》

진명이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
고 놀랐다. 언제봐야 늘 굳세고 태연하던 그 얼
굴에 괴로움이 짙게 드리운것이 깃을 찢는 저
녁어스름속에서도 뚜렷이 알리였던것이다. 그
렇다! 아버지는 분명 괴로와하고있었다. 어제
날의 드높던 공지가 차츰차츰 빛을 잃고 퇴색
되어가는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아픔속에서 고민하고있었다. 허전한 느낌과 자책
감이 그의 약간 찌프러진 눈시울밑에서 진하게 느
껴져왔다.

불현듯 진명이는 총각시절 처녀에게 사랑을 고
백했다가 인격을 무시당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가장 귀중한것이 짓밟혔으나 어쩔수없이 받아들이
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으로 하여 더욱 가슴이 아팠
던 그였다. 그래서 다시는 우롱당하지 말고 굳세
게 지키리라 열백번 결심다지였던 진명이였다. 그
때 자기의 흥분했던 모습을 오늘날 학민아버지의
얼굴에서 다시 찾아보는듯싶었다. 바로 자기를 대
학으로 떠밀어준 고마운 로장동지의 모습에서 말
이다. 그럼 누가 그의 인격을 우롱했던 말인가.
한생을 로속에서 끓이고 불태우고 빛내여온 공로
자를 누가 무시하려드는가. 혹시 혁신자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진명이 그자신이 아닌지, 혁신자로
추천할수 없다고 등을 돌려댄 그 사람들인지 아니
면 오늘날 동정을 베풀어 1등처럼 내세워준 그 사
람들인지.

《모두 내 잘못이야. 배울 생각은 안하고 경험
만 믿고 일하던 내탓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꾀초가 되어버린 담배
를 획 도랑에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장알진 손바

닥을 진명의 어깨우에 툭 올려놓았다.

《진명이 이보라구, 내 자네에게 아픈 말을 하겠네. 자넨 대학을 나왔겠다 또 직장장이겠다, 나보다 아는것이 많을테지만 그래두 내 말을 들어두라구. 자넨 지난 시기 성과에 자만하고있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단 말일세. 자네의것이 버림받는다 해도 꿈만해하거던. 이게 뻔이 있는 사람인가? 영민이보다 자네가 더 가슴아파해야 옳지 않은가 말일세.》

진명은 자기의 눈을 밑바닥까지 찌르는듯 한 아버지의 눈길앞에서 슬며시 머리를 돌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분발해서 더 배우라구. 자네 자존심이야 내 잘 알지. 들어두라구, 자존심을 지키자면 배워야 해. 이젠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찾은 교훈들중의 하나야. 모르면 뒤떨어지고 뒤떨어지면 어쩔수없이 짓밟히는게 자존심이야.》

이 말은 그대로 불갈구리가 되어 진명의 머리속에 찌꺼기처럼 붙어있던 폐벽들을 가차없이 털어내고 끌어냈다. 왜 이 말이 진명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것인가?

진명이가 또다시 남에게 채울가봐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당부해주는 그 고마운 진정때문인가. 그 보다는 대학시절 그 어느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느 강의시간에도 들어보지 못한 귀중한 교훈을 교수도 박사도 철학자도 아닌 평범한 아버지가 새겨주는것이어서 더욱 충격이 큰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말이 백번 옳았다. 진명이 자기에게는 확실히 자존심이 없었다. 구태여 있다고 한다면 자기자만에 기초한 고집과 독단이였다. 자기의것이 남보다 못하고 뒤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어도 도전할줄 모르는 진명이 그에게 자존심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 이런 자존심이 없는 인간이 과연 오늘날 비약의 천리마를 타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벅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가? 시대의 숨결에 호흡을 맞추고 조국의 전진에 보폭을 맞추는 사람이라 할수 있는가?

진명의 가슴속에서는 뚝뚝하게 대답할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엉키여 소용돌이쳤다.

《직장장, 며칠 있다가 순천에 좀 다녀오겠네.》

《예? 그 먼곳에요?》

뜻밖의 제의에 진명은 얼터름해졌다.

《영민이네를 돕자고 그래. 그녀석들에게 필요한 재료가 순천 ××광산에서 나온다는구만.》 이 말에 진명이는 미간을 찌프리였다.

《학민아바이, 금방 앓고난 몸으로 그 먼길을 어떻게 가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생산전투가

한창인데 반장이 자리를 뜨면 되겠습니까?》

《괜찮아, 내대신에 영민이가 있지 않나. 나보다 생산지휘를 더 잘한다는거야 자네도 잘 알면서두 그러누만.》

진명이는 아버지의 이 고집스러운 제기가 더욱 언짢았다. 그래서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속심을 툭 털어놓았다.

《학민아바이, 다른 사람을 보내겠으니 그만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아들벌되는 녀석들의 뒤를 쫓아다닌다고 말입니다.》

진명이는 자기의 로골적인 불만에 아버지가 벌컥 성을 내리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도리어 《허허.》 웃는것이였다.

아버지가 그저 웃어넘기는 모습에 진명이는 더욱 기분이 잡치였다. 겉으로는 널리 소개되고 찬양받아야 할 미풍갈아보였으나 실지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영민이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낮추고 그의 손발이 되어주려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울컥했던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제의를 하였으면 감정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직장장, 내 하나 물을가?》

《?!》

《자존심이 강하다는게 무슨 말인가?》

《그야 두말할것 없지요. 자기를 지켜내고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진명의 대답에 아버지는 아니라는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러나 얼마전에 당비서동지와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더군. 학민아바이, 자존심이 강하다는것은 남을 이기는것보다는 자신을 이겨내는것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분발해서 극복해나가는 사람이 진짜배기자존심을 지닌 사람이 아닐가요라고 말일세.》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당위원회청사앞에서 아버지와 부딪쳤던 일이 생각났다. 후날 들은데 의하면 당비서동지가 학민아바이가 혁신자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놓고 자기 일처럼 피로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현장에까지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다음에는 오늘 체육경기에서 아버지를 업고 달리던 당비서동지의 땀에 폭 젖은 얼굴이 잇달아 떠올랐다. 그러니 당비서동지는 어제날의 혁신자가 실망과 비판속에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더욱 과감하게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고 그럴 힘이 없다면 업고서라도 끝까지 이끌어주고싶어한 고마운분이였다.

《그러면서 〈학민아바이, 이제부터 더 큰일

어머니에게

류 학 명

달 밝은 초소의 저녁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며
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 시각 나를 그려보실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내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던 그 봄날
고향집 앞뜰에 심었던 감나무
이제는 내 키만큼 자랐겠지요
내 키도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이제 어머니앞에 불쑥 나타나면
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실겁니다
끼니마다 내가 좋아하는 콩음식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는 지휘관들의 사랑
한집안식솔같은 중대생활속에서
내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초소로 떠나올 때
애티를 벗지 못했던 이 아들
그래서 걱정도 하시던 어머니
오늘 제가 보낸 영예사진 보시면

저를 안아보신듯 다 아실겁니다

키만 부쩍 자란게 아니랍니다
아버이장군님 보내주신 노래반주기재에 맞추어
병사생활 노래할 때면
지휘관들도 구대원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대 아니련대의 독창가수감이라고

어찌 노래만 잘하는줄 아십니까
훈련에선 시범동작
사격장에 나서면 통구명사격명수라
사단장동지의 감사도 받았답니다

어머니 이젠 마음놓으십시오
어제날 어머니의 애를 태우던
집안의 막내가 아니라
오늘은 장군님의 제일병사
조국수호의 전초병으로 자랐으니

오늘 보내는 편지속의 사진에
아직은 이 가슴에 꽃송이만 웃고있지만
어머니 믿으십시오
이 가슴에 가득 빛날 메달과 훈장
영웅의 어머니가 될 그날을 꼭 기다리십시오!

을 맡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 말 일세. <더 큰일이라니?)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겠지. 내가 이제 무슨 큰일을 할 재목이 되겠나 말일세. 당비서동지는 웃으면서 <우리 다같이 새 세대들의 밑거름이 되어줍시다. 학민동지의 뒤통까지 합쳐 더 많이 배워 우리 나라 유리 공업을 최첨단으로 비약시키도록 뒤에서 떠밀어주는 송풍기가 되고 밑에서 받쳐주는 뿌리가 되어주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뒤에 서고 밑에 묻히는게 자존심이 상하는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더군.》

아바이는 말을 끊고 진명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대답을 진명이가 해야 하는듯이 말이다.

진명이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 물음이 진명이자신에게 한것이라고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바이는 머뭇거리는 진명이를 얼마동안 지켜보

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나이나 직급을 봐도 그래 또 내가 해놓은 일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야 내가 영민이네를 우에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고 훈시할수 있지. 하지만 난 영민이네들을 내우에 올려놓고 그들을 힘껏 돕는 길에서 진짜 큰일을 해보려네. 두번다시 남의 등에 업혀서야 안되지.》

진명이는 대문을 열고 마당안으로 먼저 들어서며 직장장이 왔다고 반갑게 소리쳐 집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아바이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득 진명이의 귀가에 언젠가 아바이가 했던 말들이 아득한 세월의 공간을 뛰어넘어 쟁쟁히 들려왔다.

《동무에게는 자존심이 있거던.》

《우리에게는 동무가 꼭 필요하오.》

지금 이 시각 진명이는 이 말을 학민아바이에게 하고싶었다.

련 시

황금산처녀의 노래

유 련 희

황금산엔
머루 다래 산열매만 달린답니까

숲속에 풀판에
구름처럼 흐르는
젖소떼 양떼 염소떼...

어찌 보면
산에 달린

큰 열매들 같습니다

나무에도 덩굴에도 산열매
땅속엔 약초 풀판에 양떼
행복이 무르익은 우리 황금산

여기서 터치는 처녀들의 노래는
그 얼마나 순결하고
그윽한것입니까...

어머니의 이름

내 처음
작업반에 배치되던 날
반장은 내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 소개했어요
이 동무는 누구의 딸이라고

때로 우에서
일군들이 내려올 때도
반장처럼 사람들은 나를
그들앞에 내세웠어요
어느 동무의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마치도
꼭 그래야만 하는듯
공훈사양공 어머니의 이름없인
나도 내 이름도 빛을 잃는듯
그럴 때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것만 같아
어머니 한생의

그 고귀한 땀과 노력의 열매로
내 이름 빛나는것만 같아

아, 40여년
풀많은 산골에 고기똥년 마련하며
사양공으로 사신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는 이 나를 위해
그처럼 한생을 불태우셨던듯!

정녕 피줄만 물려주기엔 너무도 모자라
고향을 위해 조국을 위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머니는 땀으로 쓴 자신의 온생애 담아
그렇듯 소중히 물려주셨던가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의 그 한생을 축복처럼 없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리우기가
그리웠어요 어머니처럼 떳떳한
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

어찌면 좋아

나도
어머니가 되었어요!
나라에서 보내준
그 귀한 종자양들의 어머니

한마리
또 한마리
폭신한 털옷을 무릎까지 두르고
수십쌍의 눈길이 나를 쳐다봐요

—낫설은
어린 처녀
우릴 꽤
당해낼가?

이런 때 어머니라면...
나도 몰래 깃드는 그 한생각
어머니처럼 따뜻한 정성을

내 가슴에도 불러줬나봐요

나를 시험이나 하려는듯
접수하자마자 새끼낳는 양들을
도에서 돌아오는 수백리차칸에서
아이, 두마리나 받아냈더니

어마나 고것들이
가슴에 안겨 파고들어요
엄만줄 알고
엄만줄 알고...

이때라 수십마리 양들이
나를 보며 우는 소리
배고프다고 저들도 겨끔내기로
이 엄마를 찾는 소리

아, 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되었어요
글쎄 나도 어쩔새없이
아이, 어쩌면 좋아...

어머니를 그리며

아직은
너무도 어리다고
열여덟 당당한 공민의 어깨에도
자꾸만 걱정을 얹으시는 어머니

고생이란
너무도 모르고 자라
며칠만 집떠나도
걱정에 잠 못드시는 나의 어머니

아마도 우리 집 아래목은
어머니의 걱정으로 덥혀지나봐요
눈이 오면 추울세라
비가 오면 습기찰세라...

아마도 우리 집 공기는
어머니의 걱정으로 흐르나봐요
배고플세라 아플세라 피로울세라
눅을세라 힘들세라 말 들을세라...

숨막히도록
그토록 하많은 걱정속에서도
나는 왜 시름을 몰랐을까요
늘 사려깊은 눈빛속에 웃음만 알며
걱정이 사랑이던줄 모른 그 시절...

그렇게 사랑하고파요
걱정은 오로지 내 가슴속에

기쁨은 동무들에게
나의 양들에게

깊은잠 꿈속에서도
이 딸의 숨결을 가려들던 엄마처럼
동무들의 아픔 느낄수 있게
양들의 울음소리 알아들을수 있게

아, 아직은 어머니도 마음 못 놓으시는
이 나를 믿고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양들
우리 장군님 맡겨주신 양들

순간도 떠나선 살수 없기에
순간도 떠나선 살수 없기에
사시절 집떠나 방목지에서 사는
나는 젊은날의 어머니

바치고바쳐도
늘 모자라 걱정뿐이던 어머니처럼
참된 사랑을 예서 배우며
땀젖는 기쁨에 취해사는
나는 커가는 어머니의 딸!

일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며
이밤도 조용히 엄마얼굴 그려보니
걱정했던 얼굴에 웃음이 퍼요...

꽃 갈 다 나 요

꽃갈다나요
하이얀
햇숨구름꽃
푸르른 산판에 몽실몽실 양떼들이

요술초리갈대요
내 회초린
휘이— 휘이— 산판마다

빙실빙실 웃음꽃 가득히 피워내는...

그래서 날보곤 뭐
요술사라나요
아이참 우습네 리당비서아바이
평양에서 미술가를 모셔오겠대요

어마나 글썄 이를
어찌먼 좋아요
난 아직 농장에술소조에도
뽑혀본적 없는데

해별에 가매진

조고만 얼굴!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
눈길도 못 들겠네

이런 나를 그리면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다 보는
전람회에 낼거라며!

아이참 비서동진
제일 잘 아시면서
아이,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새 벽 일 기

마지막새끼양까지
다 받아내고
기쁨에 일기장 펼쳐들었는데
아, 하늘이 동녘하늘이 들린다

희뵈히 동터오는 려명의 빛!
더운 밤을 후더분히 감싸안으며
푸근히 피어나는 새벽안개우로
흰하게 티여오는 새날의 문!

벌써 몇번째라...
일기장아 너와 함께
이렇듯 가슴벅찬 새날을 맞음은
네우에 태양을 떠올리며 목메임은

어제밤도 양들이
열둘이나 불었단다
이 봄에도 양무리
꿈으로 불었단다

날마다 늘어나는 재부를 속삭이며
아름찬 행복을 또 한걸음 당겨오며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의 아침
새로운 위훈으로 부르는 아침!

그 어이 밤에만 일기를 적으랴
창조의 한밤으로 조국을 풍성이며
크나큰 기쁨을 새날에 드리며
새벽에 쓰는 일기 참으로 멋스러워

낮과 밤이 따로없는 강성대국시간표에
칸칸이 황금산같은 재부를 채우며
빈틈없이 영근 하루 떼떼이 총화하는
아, 나의 새벽일기!

이 땅에 사회주의번영기를 안아온
어머니세대의 자서전처럼
우리 세대가 땀으로 새겨가는
아, 나의 보물 나의 긍지여!

행 복

쥐어보면 햇슴보다 더 부드럽고
안아보면 봄별처럼 따스한
빼곡이 자란 양털을
제손으로 깎아보셨습니까

차붓차붓
손끝에 어리광치며
구름처럼 구름처럼 피어나는 폭신한걸
제손으로 공장에 실어보내봤습니까

창성땅 새각시들 이부자리는
여기서 다 나오겠으니
이제는 양들만이 아니라

술한 녀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직물공장 인수원이 넌지시 던지는
그 익살을 받아보셨습니까
장모님— 하며 너훈 하는 절에
어마나 뺑소니쳐보셨습니까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날에... 하면서도
가마니 덮고 자란 그 시절을 못 잊는
할머니들 이야기 새롭습니다

여기서 쏟아질 제품들을 품으며

책쟁이 작가로부터 마음 후한 작가로

1970년대말 어느날 아침이었다.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의 저자로 독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작가 김수범은 옷방 책상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고있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만팔이 책상머리에 서서 무척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저... 아버지...》

안경을 벗으며 작가는 《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직도 사색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작가는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저... 저... 소설책을 한 열댓권 좀 가질수 없나해서요.》

쭈뼛거리던 딸이 입속말처럼 웅얼거리는 소리에 대뜸 작가의 목청이 높아졌다.

《뭘, 책을? 그것도 열댓권씩이나. 너 정신있느냐?》

갑작 놀란듯 딸이 바빠 변명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졸업기념으로 대학도서관에 오래전에 나온 책들을 있는것 기증하기로 토론했거든요.》

이때 어느새 옆에 와선 안해가 기겁해서 딸을 꾸짖었다.

《아니 애, 너 아버지가 저 책들을 얼마나 살붙이처럼 아끼는지 잘 알지? 아버지 작가야. 아버지 에겐 책이...》

그만에야 새침해진 딸이 두눈이 둥그레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툭 내쏘았다.

《아버지 정말 책각쟁이작가야.》

그러더니 출입문을 열고 썩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가? 뭐?... 책각쟁이작가?》

작가는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한 방에 세 벽면이 짙 차게 질서있게 꽂혀있는 책들, 그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지식의 보물고였고 행복의 한부분이었으며 정신적양식이였다.

책방에 새책이 들어왔다면 선참으로 달려가고 어디에 귀한 책이 있다면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한권한권 구해들인 책들이였다. 실지 그는 각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

그러나... 배움의 강렬한 열망으로 청춘을 불태우는 대학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책을 기증하겠다는 그 마음을 높이 사주고싶었다.

원래 체육을 즐기고 성격이 호방한 작가는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벗고 도와주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날 오전 작가는 손수레에 책을 한가득 싣고 안해와 함께 대학을 찾아갔다.

《이 책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책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정말 기쁘겠습니다.》

세계문학선집을 비롯한 부피두터운 많은 소설책들, 시집과 정치도서 등 책들을 바라보며 대학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아니 작가선생님, 이렇게 많은 책을...》

그러나 작가는 지성이 번뜩이는 두눈을 빛내이며 진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한번 후대들을 위해 마음후한 작가가 되여보자는것입니다, 하하하.》

작가 김수범은 유쾌하게 웃고있었다.

전 복 향

손가락이 모자라 올상이 된
우물집 증손자의 얼굴우에도
까르르— 웃음이 실려가는데

이 양털이
저기 먼 최전연초소
근무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언몸도
포근히 녹여주는 이불이 되었으면...
남모르는 내 소원도 따뜻이 어립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지난해
산넘어 평넘어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어버이 보아주신 기쁨이라고

우릴 믿고 이 땅에
지방공업혁명의 불길도 지퍼주셨다고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이는
위대한 사랑의 그 이야기

아아, 웃음우에 눈물이
눈물우에 또 웃음이 병글어지는
이런 양털을 깎아보셨습니까
이런 기쁨을 안아보셨습니까

하늘아래 첫동네 우리 창성에
하늘아래 행복의 락원을 펼치시려
오시고 또 오시는 어버이앞에
하늘가득 산판가득 복구름때 펼쳐드릴

내 나라의 마지막산 마지막기슭까지
기름진 양떼를 듬뿍이 살찌워갈
황금산처녀들의 이쁜 미래가
무덕무덕 더미마다 하야니 비껴웃는

이런 양털을 깎아보셨습니까
이런 행복을 안아보셨습니까!...

샘 물에 비낀 시대적 문제성

— 단편소설 《마를줄 모르는 샘》을 읽고 —

리 성 옥

정갈하고 시원하고 맛이 좋아선가, 많은 작가들이 샘에 인간생활의 이모저모를 담아 형상의 세계를 펼쳤다. 아마도 자기의 작품이 깊은 땅속에서 솟아나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한생을 깨끗이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교과서가 되길 바라서였을것이다.

단편소설 《마를줄 모르는 샘》(백상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0(2011)년 7호)도 제목이 보여주는것처럼 샘과 맺게 되는 인간생활을 문제성있게 펼쳐나갔다.

작품은 단순히 세속적인 범위에서 맺게 되는 인간과 샘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인민대중이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이야기줄거리도 재미나게 엮어나가야 한다.》

소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에 관한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밝혔다.

사람들의 생존은 물론 수명파도 관계되는 물은 인간생활에서 쌀, 불 등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있다.

물의 중요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별치 않은 이야기인듯 하나 작품은 샘물을 둘러싼 두사람의 행동의 불일치를 끌고가면서 이를 오늘의 시대적인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애국,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돌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책임진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소화기질환에 특효가 있는 천죽령샘물을 읍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샘물공급소를 내오는 문제는 그 발기자인 제대군관치녀 경선이보다도 군도시경영과장 병석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것이였다. 하기에 몇달전부터 퇴근후면 샘물을 뜨려 10여리

길을 걸어야 했던 병석은 도시경영과 부원인 경선의 발기를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해 뛰여다니게 된다. 그러나 수도관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자 병석은 손뻐를 놓고 주저앉아 공사를 국가계획에 물려 다음해로 미루려고 한다.

이때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뛰여다니던 두 인물의 형상은 다르게 안겨진다. 제나름의 론리와 모대감을 가진 두 인물이 샘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과장인 병석이기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데 처녀부원인 경선에게서 어떤 방도가 나올것인가. 그 어떤 커다란 발견도 단순한것으로부터 이루어지듯 그렇게도 난문제로 제기되던 수도관은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경선은 아이들이 피마주대로 만든 물총에서 소나무를 수도관대용으로 쓸것을 착상해낸다.

발기도 경선이가 했고 해결책도 그가 찾았다. 천죽령샘물에 대하여 먼저 안것은 병석이었지만 샘물과 읍주민들을 련관시키지 못했고 또 샘물공급소를 내오는 문제를 지지만 하고 뒤로 미루려고 하였다. 경선과 병석이의 형상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

수도관문제는 곧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였다.

《한가정의 부모형제들과 정다운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뛰고 또 뛰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인민을 자기의 혈육처럼 여길 때 해결 못할 문제란 없는것이다.

이렇게 소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관점과 자세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하였다.

소설은 시대적문제성을 해명하는데 맞게 구성도 특색있게 조직해나가고있다.

작품은 단출한 인간관계와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있으나 빠드름하지 않고 소설의 세계에 끌려들어가게 하고있다.

그것은 인민을 자기의 천혈육처럼 여길데 대한 일군들의 관점문제를 해명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간명하면서도 문제성있게 설정하였기때문

내 고향의 징검돌아

김 명 옥

내 선뜻 옮겨디딜수 없구나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는 이 시각
내 고향 시내가 징검돌아
발로는 차마 디딜수 없어
소중히 마음속으로 쓰다듬으며
너를 불안고 도는 내물처럼 속삭이노라

어릴적
잘 걷지 못하는 나를 등에 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징검돌을 건느시던 선생님
장마철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나를 먼저 안아일으키시던
물에 젖은 그 모습 징검돌아 너도 다 알리

집으로 학교로...
나의 두다리가 되어준
선생님 그 땀젖은 잔등은
내가 그리도 밟고 뛰놀고싶던
학교의 운동장 내 고향의 동구길이던가

나를 업으신 선생님어깨우엔

다른 애들과 똑같이 걸은
그날의 등산길 야영길과
조국위해 목숨바친 영웅의 동상앞에도
나를 세워주신 그 모든 날과 달들이
세월이 되어 없혀져있으리라

선생님등에서 자란 어제날 이 소년이
선생님의 정성으로 완치되어
오늘은 림름한 병사로
억센 두다리로 대지를 구르며
초소로 떠나나니
마음속에 고여진 저 돌 하나라도 잃는다면
스승도 고향도 조국도 잃을 징검돌아

내 성장에 뜨겁게 새겨져
바라보면 눈시울 후덥게 젖어오는
선생님의 모습이어
고마운 조국의 모습이어
내 무엇을 주저하랴
이제 총전 이 병사의 값높은 그 위훈도
너를 산악처럼 딛고서야 소중히 안아일으킬
아, 내 고향의 징검돌아!

이다.

작품에서는 읍주민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병석과 안해, 병석과 경선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끌고나갔다.

병석과 경선의 읍주민들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관점으로부터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사건이 발전함으로써 시대성있는 문제점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소설은 병석의 시야에 비친 경선의 형상을 창조해나갔다.

작품에서는 수도관을 해결해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경선의 심리적충충이라든가, 샘물공급소를 내오는 문제를 포기하려는 병석이에 대한 경선의 실망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것을 다 부정인물인 병석이가 경선이에 대하여 공감, 실망, 탄복하게 되는 과정으로 끌고갔다. 이로부터 소설은 회상의 수법을 적절히 배합하였다.

병석이의 형상에 많은 묘를 돌리면서 그가 경선

이에게 감동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형상적묘를 더욱 뚜렷이 하였다.

이와 함께 소설은 시대감이 나는 생동한 어휘표현들을 적극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이바지하였다.

《포신을 벗어난 포알마냥 일단 조준경안에 든 목표는 무조건 명중시켜야 한다. ...》, 《강철포신처럼 끄떡않던 처녀》, 《나무잎들을 뚫는 물에 데쳐낸 시래기처럼 후줄근하게 만든》 등과 같은 우리 말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대감이 나는 생동한 언어표현들을 적극 살려씀으로써 보다 작품이 인상깊게 하였다.

물론 소설은 사상예술적측면에서 완벽하다고 말할수 없다.

소설에서는 병석이의 처남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그 해결이 명백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소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펼치고 해명함으로써 인상깊게 안겨지게 하였다.

신진순과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시인, 소설가였던 신진순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우리 작가들과 함께 있다.

작가는 주체6(1917)년 5월 경기도 리천군의 몰락한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 우리 나라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아래 있었다.

6살나던 해에 아버지를 여윈 작가는 모진 생활고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친구였던 정씨부자까지도 소작료를 악착하게 받아가고 집은 빚값에 차압당하여 그의 식구들은 산기슭의 오막살이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운 작가는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배움의 열망을 품고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교적으로 실력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되었다. 학교를 마친 작가는 서울로 올라가 학업을 계속할 뜻을 가지고 상급학교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성적으로 합격되었다. 그는 간판점에서 일하는 오빠와 하숙생활을 하면서 이악하게 공부하였다. 이때 작가는 오빠가 몰래 보는 좌익서적들을 자기도 탐독하는 과정에 당시 사회의 불합리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점차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신진순은 주체21(1932)년부터 서울의 좌익운동가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연락도 다니고 여러 학교들에 비밀독서회를 내오는 일도 수행하였다. 주체22(1933)년 그는 서울 숙명고등학교 동맹휴학사건 주모자로 지목되어 종로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강제출학당하였다.

작가는 그후 한 량심적인 교원의 도움으로 배화고등여자학교에 편입할수 있었다. 여기서 영어와 수학, 물리를 배우며 수학, 물리학에 취미를 두었던 그는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녀학생이 그것을 배우기보다는 문학을 전공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주체27(1938)년 2월에 《조선일보》에서 진행되는 현상응모에 시 《고숙》을 투고하여 입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창작에 취미를 가지고 달라붙어 단편소설 《첫 가을》과 《웃》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주체25(1936)년에 배화고등여자학교를 졸업한 작가는 학교교원들의 소개로 리화녀자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학비를 물기 위하여 화분물

주기, 가정교사 등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수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였다.

경성제국대학졸업과 동시에 력사적인 8.15조국해방을 맞이한 작가는 얼마간 진국준비위원회에 나가 일하던중 자기를 데리러 온 남편을 따라 9월 초에 평양으로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터운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의 사회적지위는 매우 높아졌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긴 때로부터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을 여러차례 뵈옵고 그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해방후 평양시 녀성강습소(후에 교원양성소로 됨)도 내오고 녀성들의 잡지인 《조선녀성》 창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을 받아안은 영광도 지니었다.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작가는 목메여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먼 후날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녀성》잡지사의 기자로 일하던 그는 평소의 뜻대로 창작을 해볼 결심으로 어느 영화촬영소 창작실을 거쳐 1960년대 초엽부터 현역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해방후부터 알고계시던 작가를 잊지 않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59(1970)년 4월 어느날에 《로동신문》에 실린 작가의 시를 보아주시고 몸소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가의 생활경로에 대하여 세심히 들어주시고 그의 가정에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었다. 그리고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문예총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도록 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가를 곁에 부르시여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82(1993)년 2월 어느

날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작가를 불러주시고 그가 부르는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작가 신진순을 잊지 않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작가는 환갑이 지난 때에도 청춘의 정열을 가지고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 중편소설 《고향으로 가는 길》, 《남녘마을 아이들》과 단편소설들인 《진달래》, 《오늘도 살아계시다》 등 소설들과 많은 시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가을에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까운 재사를 잃었다고 하시며 그의 장의를 잘해주도록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작가 신진순은 평양의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되어있다.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는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처녀보잡이로 소문났던 한 녀성일군을 원형으로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59(1970)년 4월 작가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이 작품창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에 대하여 들어주시며 원형에 대한 전형화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소설을 잘 써보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그후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완성되게 되었다.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의 주인공은 처녀

이다. 담차고 용맹하며 근면하고 이악한 처녀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싸우고 마을을 해방한 후에는 전선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처녀의 몸으로 보잡이를 하여 전식식량증산에 기여한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화폭의 주요부분들에서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전후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실현에 용감하게 펼쳐나선 주인공을 비롯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인상깊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평범한 인간인 주인공이 농촌의 핵심으로 되고 지난날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농촌의 주인으로 자라나고 여기에서 거대한 전변을 안아오게 되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소설은 이와 함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멸망상태를 밝히면서 전후 농업협동화는 그야말로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작가의 전후 농업협동화시기의 실재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창작된것으로 하여 매우 실감있다. 소설은 구성의 폭이 넓으며 우리 농촌의 새 전변의 력사를 산 인간들의 성장발전속에서 인상깊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선과 숭고한 덕성선을 잘 펼쳐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식교양적의의가 크다. 이것은 한생을 수령함모의 정신으로 살며 수령형상의 앞장에서 창작활동을 벌려온 작가 신진순의 충실성의 정화이며 그 분출인것이다.

최영일

상 식

일군들이 아래사람들과 인사할 때

일군들은 우선 아래사람이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그에 어울리는 답례인사를 할줄 알아야 한다.

인사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오?》, 《괜찮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동무구만, 반갑소.》 등으로 답례한다.

일군들은 또한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헤아리는 아래사람의 위로인사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사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를 받으면 《괜찮소. 고생이야 동무들이 더 하지요.》, 《걱정해주어 고맙소.》, 《일없소.

이제는 건강하오.》, 《일이 잘되니 걱정마오.》 등으로 답례인사한다.

정황과 조건에 따라 일군들은 아래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할수도 있다.

일군들은 또한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바래워주며 하는 인사말에도 레절있게 답례할줄 알아야 한다. 인사를 하면 《잘있소.》, 《그럼 수고하오.》, 《동무도 건강하길 바라오.》, 《나야 뭐 수고랄게 있소?》, 《수고야 동무들이 하지.》 등으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남정가》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남정가》는 양사준이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왜란 직후에 창작한 작품으로서 전란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와 시적일반화에서 박인로의 《태평사》와 함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문학의 중요한 대표작으로 된다.

양사준은 자를 응거라고 하고 호를 풍고, 청주인 등으로 불렸다. 그는 중광시에 합격하고 평양서운으로 있다가 파직된 후 다시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고 경기도 포천에 무덤이 있다는것외에 구체적인 경력이 알려져있지 않다. 그는 을묘왜란이 일어나자 우도방어사 김경석이 지휘하는 남정군에 속하여 전라도 평암에서 싸웠다고 한다.

을묘왜란은 1555년에 일본해적떼가 전라도 남쪽지방에 침입하였던 사건이다.

《남정가》는 바로 이 을묘왜란때 왜구를 격퇴하는 싸움에 직접 참가하였던 작가의 실지체험에 기초하여 창작된것으로 하여 전란의 역사적현실을 매우 생동하고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있다.

나라가 태평하여 수십년이 넘었더니
문무백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게을리하고 전란을 잊었다가
때는 을묘년 여름계절에
적의 무리 구름처럼 밀려들니 그 수를 누 헤리오
어리석은 저 병사야 네 진은 어디 두고
옷 벗어 항복 비니 처음 뜻과 다를세고
부모처자를 누 아니 두었을고
칼맞거니 살맞거니 주검이 들에 널려
불쌍토다 남쪽백성이여 적의 형세 승승하여
십성이 련이어 함락되니 봉마다 경계하네
일개 서생이 술을 가득 부어
왕궁에 절을 올리니 우리 집을 다 잊었네
동성에 다달아 적병을 굽어보니
한눈에 안겨온다
적진이 무너지고 오작희 창우희
군사들 입모아 웨치니 함성은 성을 진감하네
군사야 두려말아 비장아 나아가자
적의 전술 알수 없어 일진은 우회하고

일진은 행군한다 금성을 가로질러
모산으로 돌아드니 원수부에 가깝도다
다투어 돌진함이 이때도록 하단 말가
일시에 돌입하니 포화가 산을 덮네
긴 창을 내 휘두른다 큰 검을 네 빼든다
칼맞아 산다더냐 살맞아 산다더냐
장사들 캄츰추니 우리 왕은 만세로세
달이 높다한들 님의 덕에 당을손가
태평은 하리로다 안불망위라
병농을 검비하고 군정을 판심하야
태평가 높이 부르니 어리석은 이 몸이어
충심에 우국일념이야 잊을수가 없소이다
※네 진—너의 진지라는 뜻.

원수부—지휘부라는 뜻.

안불망위—앞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절대로 위험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뜻.

가사에서는 먼저 나라가 태평하여 수십년간이나 문무백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게을리하고 전란을 잊고있는 사이에 섬나라 도적들이 을묘년 여름에 불시에 구름처럼 밀려들어 남쪽의 고을들을 련이어 함락하고 백성들과 관리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로략질을 일삼던 전쟁 초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와 함께 태평성가만을 부르면서 국방력강화에 무관심했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갑자기 달려든 섬나라 도적들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지어 항복을 애걸하기까지 하는 매국적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면서 칼에 맞고 화살에 맞아 주검이 들에 널리고 여러 성들이 련이어 함락되던 당시의 처절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노래되었다. 특히 《어리석은 저 병사야 네 진은 어디 두고/ 옷 벗어 항복 비니 처음 뜻과 다를세고》와 같은 구절을 통하여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목숨만을 구하려고 한 매국노들을 규탄하였다.

여기서 《어리석은 저 병사》란 원적을 말한다. 원적(?—1555)은 리조 명종때 무관으로서 전라병사로 있으면서 명종 10년에 을묘왜란을 당했을 때 불의에 달려든 왜선 70여척에 의해 달랑포가 포위당하고 성중의 식량이 떨어지자 화의를 간청하는 항복서를 보냈다. 그러나 왜놈들은 이 항복서

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쳐들어와 성을 깨뜨렸으며 원적은 장흥부사 한온과 같이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미 죽었으나 먼저 항복서를 내어 성을 잃고 사기를 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원적을 군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였다.

작품의 다음부분에서는 용감무쌍한 로장 김경석을 따라 《일개 서생》인 시인자신이 나라의 령을 받고 평암진 전장에 사흘만에 다달은 사실과 당시 전장의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화하였다.

작품에서는 김경석의 지휘하에 보강된 우리 군사가 적들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산길로 은밀히 배회하여 적진이 눈앞에 굽어보이는 곳까지 이른 다음 묘한 전법으로 적진을 일격에 허물어버리는 통쾌한 전투장면을 독특한 시적어휘들을 구사하여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여기서 《오작회 창우회》와 같은 표현은 오늘의 견지에서는 해석을 전제로 해야 할 어휘이지만 그때 당시의 언어생활환경에서는 평온하던 남의 나라 령토에 기여들어 온갖 만행과 략탈을 다하는 가증스러운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화살을 안기는 우리 군사의 용맹스러운 싸움모습을 눈앞에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그려보여줄수 있는 생동한 시어로 된다.

작품의 마감부분에서는 섬나라 도적무리와의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환희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절대로 위험을 잊어서는 안된다(《안불망위》)는것을 강조하고 전란을 막자면 군사와 농사를 함

께 발전시키고 국방력강화에 항상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피력하였다.

작품은 을묘왜란의 발발과 초기 남쪽지방의 처참한 피해, 우리 군사가 력량을 편성하여 평암에 도착한 후 적진의 형세를 료해하고 묘한 전법으로 적들을 일격에 소탕한 다음 패잔병놈들을 추격하여 전투를 결속한 이야기, 전승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 등 싸움 전과정의 력사적사실들을 하나의 폭넓은 서사적화폭속에 펼쳐보임으로써 그 표현 형식과 시적구조상 서사시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한편 작품에는 시인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인민대중이 는 역할문제를 정당하게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부패무능한 봉건군주의 《현명성》을 내세운 것과 같은 본질적인 약점을 발로시키고있다. 또한 시행조직과 운율이 짜이지 못하고 한자어휘를 많이 쓰고있는것 등도 작품의 예술적가치를 손상시키는 결함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정가》는 중세가사형태가 발생하여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반침략애국주의의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반침략투쟁사를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재현한것으로 하여 이후시기에 창작된 반침략애국시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중세문학작품들의 애국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신 정 수

소 개

조너선 스위프트와 풍자산문 《통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담겨져있는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고 평가됩니다.》

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는 사람들속에 장편소설 《갈리버려행기》와 함께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그러나 그가 쓴 《책의 싸움》, 《통이야기》 등과 같은 풍자산문의 사상예술적가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특히 《통이야기》에서 작가는 그리스도교의 각이한 종파들속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하여 예리한

공격을 가하고있다.

통은 17세기 영국철학자 홉스가 말한 속이 텅 비고 내용이 없는 바로 그 《통》이며 바다에서 작은 배들이 고래의 습격을 받을 때 고래의 주의를 판데로 돌리기 위하여 배에서 빈 나무통을 던지는것과 같이 지배계급이 반동통치의 본질로부터 대중의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리용하는것과 같은 바로 그 《통》이다.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그 풍자적대상과 성격을 규정하고있는 작품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3대종파를 상징하는 피터의 3형제의 형상을 통

하여 승려들의 위선과 도덕적외해상태를 비판폭로하였다.

형제간인 피터, 마틴, 재크는 아버지에게서 유물로 똑같이 멋진 외투를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유언에서 그 어떤 장식으로 이 외투를 다듬겠다고 손을 대지 말고 수수한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라는것 그리고 형제지간에 의중계 지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7년간 3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그후 상류사회로 들어가려 하면서 그들은 상류사회의 생활에 현혹되어 띠, 멜끈, 셔들로 외투를 장식하여 류형에 맞게 옷모양을 고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만형인 피터는 유서의 원문을 형제들이 읽는것을 금지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이 유서의 유일한 보관자, 해석자라고 선포한다. 그리고는 유서의 원문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외곡한다. 작품은 피터가 그 유서를 트렁크속에 깊숙이 감추는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속에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던 7년간은 아직 교회가 분리되기 전의 시기를 표현한다. 이야기에서 피터는 카톨릭교, 마틴은 마르틴 루테르의 프로테스탄트교, 재크는 영국에서 퓨리탄(청교)이라는 명칭을 띤 칼빈교를 의미한다. 아버지는 예수를, 아버지의 유서는 매개종교가 그 유언의 정확한 실현을 지향하였던 《성서》, 즉 복음서를 의미한다. 외투는 신앙을 의미한다.

피터가 아버지의 유서를 동생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형상은 종교개혁시기 카톨릭교회가 성서를 세속인들이 함부로 읽지 못하게 금지시켜 광범한 항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을 련상시킨다. 피터가 거만해질대로 거만해져 나중에는 집열쇠를 모두 자기가 틀어쥐고 하나씩 써야 할 모자 세개를 단꺼번에 머리에 쓰고 형제들과 방문객들에게 자기 발에 입맞추도록 강요하는 형상은 당시 로마법왕이 레배할 때 쓰는 삼중관, 교도들이 법왕의 신에 입맞추는 카톨릭례식 등 법왕청의 특징적인 의식들을 암시한다. 피터는 동생들을 횡포하게 조롱하며 제수들을 내쫓고 그대신 거리의 방탕한 매춘부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마틴과 재크는 어느날 아버지의 유서를 훔쳐내어 그것을 읽고나서 피터의 란폭한 조작, 기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루테르에 의하여 성서가 도이쉴란드어로 번역되고 공개되기 시작한 종교개혁을 암시하는것이다. 마틴과 재크는 형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합법적안해를 다시 데려다가 외투를 원상

대로 복구한다. (목사들의 결혼제도는 종교개혁가 루테르가 내세운 조항중에 첫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외투를 복구하는 형상은 복음서의 원전에 충실할것을 주장한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의 구호를 련상시킨다.)

피터는 사기적인 행동으로 넘어가 가짜약을 만들어 《요술》을 부린다. 그 추종자들은 빵과 맹물을 고기와 포도주인줄 알고 맛있게 먹는다. 이 모든 사기적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수입이 피터의 손에 들어간다.

재크도 형에 못지 않게 위선자이며 사기꾼이다.

그는 매일처럼 성가를 코노래로 부른다. 그래서 거리에서 동네아이들의 조롱을 받는다. 그는 진흙탕이나 시궁창에 빠져서도 항상 기도를 드리며 종교적활황경에 빠진다. 이런 행동은 추악한 행동을 할 때일수록 더욱 고조된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유서에 대한 자기의 열렬한 신봉을 시위하는바 유서의 인용문을 따서 말하기를 좋아하며 그것으로 옳고그름을 가르는데 습관된듯 보인다. 음악이 울리거나 인간적인 기쁨을 느낄 때에는 미쳐돌아간다. 또한 외투를 고치려고 성급하게 시도하다가 일이 잘되지 않자 격분하여 외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런 형상은 영국청교의 고유한 특징인 성서에 대한 현학, 몽매한 신봉을 뚜렷하게 반영한것이다. 작가는 재크의 형상을 통해 청교적인 영국부르주아지의 본질을 이루고있는 종교적위선과 야수적인 리운추구의 독특한 결합을 냉혹하게 비판한다. 또한 피터와 재크의 류사성을 강조하면서 청교적광신주의는 카톨릭적광신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것, 그 물질적인 저급한 타산을 감추고 있다는것 등을 폭로한다.

마틴은 앵글리컨교회의 목사였던 작가의 출신과 세계관으로 하여 거의나 다치지 않고있는 인물이다. 마틴은 탄탄한 천을 못쓰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외투에서 띠를 뜯어내기는 하지만 다시 외투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앵글리컨교회의 기초에 놓여있는 매우 온건한 종교개혁을 넘두에 두고있다.

이상과 같이 작가는 창작의 초기기부터 사상에 술적으로 가치있는 작품들을 내놓아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진향

《만 악 관》

리 영 복

백악관! 그것은 원주민살육으로
아메리카대륙을 정복한 해적의 무리들이
마치나 저들의 량심이 깨끗하기라도 하듯
인류앞에 표방해 위선으로 세운 하얀 돌집

허나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외우기만 해도 증오가 타오르는 저주의 표적
모략과 음모의 대명사로 불리어나니

거기서 백가지 악이 꾸며지고
거기서 길들여진 야수들이
인류에게 온갖 불행을 강요하며
백가지 악을 저지른다 하여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리 백악관

인디안의 무덤우에 우뚝 솟아
악명떨치는 테로두목들의 소굴 백악관
거기서 어찌 백가지 악만 꾸며지고
백가지 범죄만을 저지른다 하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것이 없는
살인야만들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보며

내 부정하노라 백악관이란 말을!

지금도 미친듯이 도처에서 저지르는
악의 행적을 거슬러보면
《고명》한 미국대통령의 관저를
오늘도 그저 소박하게 백악관이라
그대로 부르자니 아무래도 안되겠소

그래서 내 펍 늦은감은 있어도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이기도 하니
내 새 간판을 제껴 달아주려네
백악관의 《각하》들이 흡족하게
고전미와 현대맛이 다 나게!

가만... 《천악관》? 아니 그것도 모자라
백악관나리들이 성차지 않아할게요
그럼 《만악관》 그것도 성차지 않아할게지만
오늘은 그쯤해둡시다요
인류의 최대의 규탄과 배격을 받는
천만가지 음모가 꾸며지고
천만가지 악을 저지르는 악마의 소굴
《만악관》이라고!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11호 (루계 제769호)

편집위원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11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11월	5일						

7-1650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